



5

198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3. 5호

(루계 427)



◆◆◆◆◆◆◆◆◆◆◆◆◆◆◆◆

차례

◆◆◆◆◆◆◆◆◆◆◆◆◆◆◆◆

붉은 화살	4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을 경축하여	5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시여	5
어머니당의 품	6
어머니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서정	7
우리 문학에 그려진 혁명적동지애의 숭고한 화폭	11
그날의 맹세	15
락원의 10명 당원들처럼	39
예술영화 《월미도》에 구현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	41
소중한 마음	44
봄밤	45
웃자!	45
이 땅의 삶이 좋아	46
별들이 찬란한 밤	47
후회	55
밤에 본 초상	63
만경봉 무지개	71
소조원의 눈길	72
분수	73
나의 심장	73
내 사랑하는 도시여	74

5 월의 광주여, 온 남녘이여!	75
사령원의 침묵	76
한전류속에	79
형제	80

붉은 화살

김 철

창너머 하늘에는
탐조등의 불빛 서서히 엇갈리고
추리꽃 하야니 설레는 정원에는
개성으로 돌아가는 승용차의 발동소리...

그 소리에 이윽도록 귀를 기울이시며
여기 최고사령부의 환한 작전실
벽을 가득 채운 커다란 지도앞에
근엄히 서계시여라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

백두의 산악이런가
흰 여름군복의 승엄한 그 모습...
금시 푸른 불이 쏟아지려나
전화에 휩싸인 강토 삼천리를
쭉-훑어보시는 그 안광...

전선과 후방 머나먼 적구에서
전파는 쉬임없이 날아오고
장령들과 련락군관들
일군들의 드바쁜 걸음을 따라
결사전에 일떠선 조국의 숨결이
끝없이 끝없이 파도쳐오는데

판문점, 하나의 작은 점에
시선을 멈추셨던 위대한 수령님
-놈들이 또 잔꾀를 부리는군!
작전연필 드신 손 전선동부로 옮기시여라
남쪽으로! 붉은 화살 단호히 그으시여라

오, 저 화살이 아니었던가
서울과 대전
락동강 언덕으로 내려쳐간 폭풍!
저 화살이었어라
《하기 공세》 《추기공세》
온갖 악명높은 《공세》들을 짓조기며
우뢰쳐나아간 징벌의 불줄기!

저 화살이 가리키는곳에서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었기에
전사는 한이 없었노라
저 화살과 함께
달리다가 달리다가 숨이 진대도

-**김일성** 장군 만세!
메아리는 뜨겁게 산천에 남고
눈동자... 눈동자에는
여기 최고사령부
불밝은 창문이 비끼지 않았던가

아, 그 눈들
그 가슴들에 차고넘친
뜨거움을 믿으시여
깨끗함을 믿으시여
남쪽으로! 남쪽으로!
더 굵게, 더 짙게 그으시는
멸적의 화살이여

지금 저 화살표밑에
수십수백의 중대와 대대들이 엮드렸으리
거기 숲을 이룬 포신들은
구름바다우에서 적진을 쏘아보고
그끝이 향한 종심깊은곳으로
대포위섬멸의 울가미를 조이며
우회대, 습격대들이 달리고있으리

흘러가리라, 흘러가리라
저 붉은 화살을 따라
원썩들의 정수리에 퍼담아부를
무서운 평음을 만재하고
땅크들, 장갑차들, 수송차 대렬이...
수령님 것처럼 당부하시였기에
탄약상자와 함께 어김없이 가닿을
가마마차 행렬도...
야전우편차들의 말방울소리도...

아, 그 철의 흐름, 불의 흐름
사랑의 흐름이 합쳐질 계선
그 시간의 분과 초를 내다보시며
우리 수령님
서늘한 시선을 창밖에 옮기실제
어느새 찾아들었던가

신록이 짙어가는 정원의 숲사이로
밀물처럼 차오르는 새날의 푸르름!
위대한 품을 찾아
위대한 승리의 날이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고있었어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경축하여

이에후싸 고평 모리스

자유로운 조선의 용감하고 슬기로운 아들이시여
인민들은 당신을 높이 우러러 따릅니다
당신은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싸우시는 투사
당신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계시여라

당신은
세인이 부러워하는
조선의 찬란한 미래- 떠받드는 억센 기둥이
시기에
인민들 당신을 높이 우러러모시고있어라

끝없는 희열과 행복 환희에 넘쳐
우리는 당신의 탄생일들 기념하나니

오, 숭고한 충성심을 지니신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몸가까이에서
뜨거운 열정과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지니시고
빛나는 활동을 벌려가시여라
수령님께서 어떤 심려도 모르게 하시기 위해
수령님의 위업을 만대에 빛내이시기 위해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기 위해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
형제적조선인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당신의 탄생일을 축하하노라
당신의 만년장수를 축원하노라

(필자는 베닌 꼬또누 체육씨클홀 서기장임)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아벨리노 에쓰꼬르씨아 즈니가

김정일 당신은
친근한 동지
결출한 위인
자주세계는
당신의 탄생일을 축하하노라

당신은 정력적인 활동으로
빛나는 로정을 수놓으시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꽃피우시는분
당신은 조선인민의

빛나는 향도성
공산주의의 태양
청춘의 심장들에 광명을 주시고
영원한 힘을 주시여라

전세계혁명가들의 구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당신을 위해
오늘 높은 산들과 바위들
활짝 핀 꽃들과 호수들

수정같이 맑은 샘물은
아름답게 단장하고
위대한 투사이신 당신의 행복
당신의 위대성을 노래하고있어라
조선인민의 간절한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당신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추대되시
였나니
당신을 열렬히 축하하노라

위대한 혁명의 지도자이시며
새시대의 개척자이신
당신은 천리마조선을
주체의 광활한 길도 이끌어나아가시여라

오, 위대한 지도자이시여
당신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이
민족재생의 빛발로 뿌려질 때 탄생하시였나니
당신은
조국광복의 새아침을 알리는

혁명적대사변의 포성을 들으시며
만민의 축복속에 첫걸음마를 떼시였고
새 조국 건설의 창조의 노래를 들으시며
위대한 령도자로 성장하시였어라

가사

어머니당의 품

홍수련

동해천리 물결만리 이 몸을 부르시여
파사로이 안아주는 어머니당의 품
이역살이 고달파도 아니 흘린 눈물이
못참아 쏟아지네 행복에 흐느끼네
어머니당 젖줄기로 이 몸은 자랐건만
못다한 일 많고많아 몸돌바 모르는데
이역에서 고생했다 한가슴에 안아주니

주체조선의 력사는
싸우는 오늘의 현시대와
공산주의 미래를 대표하고계시는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향도자
당신의 로고로 아로새겨진 승리의 력사여라

김정일동지이시여
인류는 축하하노라
당신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을
전세계 청년들과 인민들
심장으로 맹세하노라
자주세계의 빛나는 승리 위해
당신의 향도따라
결전장의 불꽃되어
전진 또 전진하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 위하여
당신께서 바쳐가시는 무한한 헌신성을 우러르며
당신의 존함 온 세상에 노래하노라

(필자는 니까라과 작가)

옷깃을 적시네 사랑에 겨워 우네
칠십만의 우리 동포 자나깨나 우러르는
그 품에 안긴 영예 천만년 못잊으리
하늘같은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며
조국통일 한길에서 이 한몸 바치리

어머니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흙모와 충성의 서정

리동수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으로 받들어올리는
어머당-조선로동당.

《E. C》의 언덕에서 닦을 올리고 풍랑사나운
파도를 헤가르며 반세기. 주체의 혈통을 자랑스
럽게 이어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가장 순결한 사상의 유일성을 자랑스럽게 확립
하고 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온 세상에 긍지
높이 선포하며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주체형
의 당! 우리는 이 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다심
한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영원히 당과 함께 운
명을 같이하는 전사들이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
짝이는 땅우의 위성들이다.

당을 떠나 살수 없고 당과 헤어져 잠시도 우리
의 삶의 생각할수 없기에 사람들은 당을 어머니
라 부르며 그 품속에 운명을 의탁하고 한생을 당
을 위해 바쳐감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는것이
다.

그러기에 이 땅에 태어난 시인들은 한갓 사명
감에서만인 아닌 의지의 충동으로 당에 대한 인
민의 드팀없는 신념을 노래에 담아 심장으로 부
르고 또 부른다.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존을 담보하는
온갖 환경을 마련해준다.

사람들은 자연이 베푼 이《혜택》을 마다하지 않
으며 그것을 다스려 더 좋은 생존조건을 끊임없
이 창조해나간다.

그러나 자연이 줄수 없는 생명, 그것없이인 인
간생존의 보람도 삶의 가치도 무의미한 가장 고
귀한 생명을 주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으니 사람
들은 그를 불러 어머니당이라 칭송한다.

비유의 능수인 시인들은 일찌기 우리 당의 크
나큰 사랑의 품, 당의 은덕과 고마움을 태양에
비겨 노래하였으며 생명의 젖줄기로 다심한 어머
니의 인자한 모습에 비겨 노래불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의 행복과 영예가 있으며 래
일의 보다 큰 희망과 찬란한 미래가 있는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한 이 불
변의 진리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을 따라 영원

히 한길을 길을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
있다.

서정시 《언제나 우리 당과 함께》(리백), 《어
머니》(김철), 《당에 대한 생각》(박세옥)을 비롯
한 여러 시편들은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숭고
한 감정을 생활적인 정서로 절절하게 노래하고있
다.

아, 우리의 영광스러운 당이여
그대 있어
이 나라 어머니들의 얼굴에
그윽한 어머니들의 얼굴에
그대 있어
태어나고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도
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나는것 아닌가

하늘처럼 맑고
바다처럼 마를줄 모르는
깨끗한 마음과 마음들이
높이 받들어올린 당
민족의 수천년 력사우에 받들어올리고
주체의 우리 시대가 떠받든 당.

당이여
세기의 영광을 지닌 우리 당이여
그대의 전사로
노을이 피어나는 혁명의 언덕길을
우리 걸어가는
행복의 그 끝은 어디냐

(시 《언제나 우리 당과 함께》)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희망의 상징인 영
광스러운 당. 이처럼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미소어린 얼굴과 태어나 꽃처럼 피어나는 어린것
들의 성장의 갈피마다에 어려있기에 사람들은 충
성의 대하가 되어 당을 받들어올리고 당의 전사
된 한없는 긍지로 가슴부풀어있는것이다.

시인은 우리 인민 모두가 실생활을 통하여 현
실로 체험한 눈부신 창조와 기적과 양양한 미래
가 우리 당에 의하여 마련되고 헤아릴수 없는 그
위대한 업적의 높이가 당에 의하여 이룩되었음
을 긍지 높이 노래하고있다.

또한 시들에서는 영원한 향도의 해발 우리의 삶도 운명도 모두다 당에 맡긴 우리 인민의 그 순결한 마음을 깊은 정서적체험으로 펼쳐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가수이며 전초병인 시인들은 노래하고 있다.

요람속에 안아키워주고 어려운 고비도 넘게 하여주며 영광의 대오속에 새워준 당의 은혜, 당의 고마움을...

그 파사롭고 부드러우며 엄하고도 다심한 모든 자애와 사랑의 대명사로 우리 당을 어머니로 노래한다.

시 《당에 대한 생각》은 파사롭고 은혜로운 당의 품에 안겨사는 행복의 크기를 감동깊이 노래하고 있다.

시에서는 당을 어머니라 부르는 전사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과 가장 성스럽고 위대하고 존엄높은 당을 받들어 살아가도 죽어도 당의 품에 영생하려는 절절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대 품에 안겨
한생을 살며
그대의 은혜로운
그대의 따라로운
그대의 고마움을
다 알고간이 이 세상에 있었던가.

당이어
아아, 당이어
가장 성스럽고 위대하고
존엄높은 그대를 불러
다른 말로 더는 말할수 없어

우리 말하고싶고
우리 바치고싶은
그 마음
그 모두를 담아
우리는 부르노라
다만 하나의 말로
당이라고 어머니당이라고-

한없이 은혜로운 당의 품이 있어 혁명의 길에 몸바친 전사의 심장에 죽어서도 영생하는 가장 값높은 삶이 안겨지고 현대의학이 죽음을 선고한 불치의 병에서 소생의 기적이 창조되며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그 무엇과도 바뀌어질수 없는 절대적인것으로 옹호되는 우리의 현실, 참으로 그것은 우리의 생활을 심장으로 체험한 사람들만이 가질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은 당원들의 어머니와 같고 당원들은 당조직의 아들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씹니까. ... 어머니는 아들이 배를 곯지 않는가, 추워하지 않는가를 늘 보살피며 아들이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리 일깨워줄뿐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면 가슴아파하고 엄하게 다스리며 교양합니다.》

아버이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은 우리 어머니이며 당을 받들고 따르는 우리는 당의 아들들이다.

어머니는 아들들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며 극진히 보살피준다.

어머니가 아들들을 떼어놓고 마음 편할수 없듯이 아들 또한 어머니없이 잠시도 살아갈수 없다.

육체만이 아닌 뜨거운 의지의 혈맥으로 이어져 뽕을래야 뽕을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는 그대는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의 상징, 행복과 영예의 드림없는 보루!

시 《어머니》에서는 바로 우리 인민 모두가 이처럼 절절하게 목놓아 부르는 어머니, 어머니없이 살수 없는 우리모두의 뜨거운 심장의 호소를 절절하게 노래부르고있다.

이제는 귀밀머리 희여진 다 자란 사람들도 아이적 목소리 그대로 빼없이 찾는 어머니. 시인은 기쁠 때도 피로울 때도 달려가 안기며 가슴속 숨긴 사연도 다 털어놓은 그런 어머니를 모신 행복감에 취해 시의 첫머리를 뗌다.

이것은 진정 생활속에서 우리나라의 진심의 토로이며 심장으로 체득하지 않고서는 꾸며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순정의 호소이다.

잠결에도 정겨운 시선 밤새도록 머리위에 맺어있고 살뜰한 손길 날밤도록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어머니이다.

시인은 피도 숨결도 운명도 다 말아안아주는 어머니당, 인민을 위해 마음 기울인 그 모든 낮과 밤을 한가슴에 안고 어머니품을 떠나 견딜수 없고 어머니 없이 또 살수도 없는 아들의 그 순결하고 절절한 마음을 뜨거운 격정에 담아노래하고있다.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그대 숭엄하고 존엄높은 모습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드릴수 있다면
내 불붙는 석탄이 되어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
그대의 은정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 할수만 있다면
내 한줌 거름이 되어

어린 모 한포기를 살지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어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려
라...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시대, 위대한 어머니의 품
에서 인간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높이에서 지
니고 이 세상 누릴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안고
자랐다.

하기에 시인은 한몸이 재가 되어 흩어지고 한
줄흩이 되어 땅에 묻혔다가도 기어이 어머니 그
대품에 돌아와 안기고야말 그대의 아들이라고 격
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체험의 폭과 깊이, 시적환상이 없이 발혀낼수
없는 시인의 이 열정에 넘친 호소는 당이 지닌
존엄과 은덕의 높이,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두
터운 신뢰와 고결한 충성심에 기초하고있는것으
로 하여 그렇듯 절절하고 진실한 감정으로 안겨
오는것이다.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이 짙막한 시줄에 함축되어있는 웅심깊은 사상
은 시인의 모든 체험과 사색과 열정을 불태워 고
르고 골라진 심오한 정서의 핵으로 된다.

이 뜻깊은 생활의 사상적알맹이가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고 향기가 되어 당의 품에 운명을 맡
기고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으려는 철석
같은 신념을 감동깊게 밝혀주고있다.

시 《당을 생각하는 마음》(김석주), 《영원히 당
을 우러러》(유성옥), 《당이어, 언제나 그대 위해》
(석광희)에서는 당이 배운 은덕에 목메이며 백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영원히 당을 받들어나가
려는 전사의 불타는 맹세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
다.

그렇다 정녕
위대한신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해 바치는
백두천지의 맑은 물같이
깨끗한 충성심
이는 우리의
영원한 삶의 노래

우리 마음의 창문인
그대가 비쳐주는
하나의 해발밖엔 없어

그대 향해서 열린 밝은 일생을
보람찬 혁명의 한길에서만
살고싶은 마음뿐이어라.
(시 《영원히 당을 우러러》)

시에선 천지의 맑고 푸른 물처럼 청신한 그 빛
으로 눈속에서도 끄떡없는 만병초와 같이 백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당을 위해 한몸 바칠 필생
의 결의가 힘있게 솟구쳐오르고있다.

시는 사색이 낳는다

시는 사색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깊이 사색하고 진지하게 탐구하여 새로운 뜻을
밝혀내는 작품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강한 여운을
안겨준다.

시에서 사색의 빈곤은 곧 철학의 빈곤을 가져
온다.

아무리 류창하게 흘러가는 실이지라도 철학적
사색이 빈곤하고 탐구하나 자취가 느껴지지 않으
면 바닥을 드러나보이는 열은 내와 같이 뻘드름
하여 읊을 재미도 없게 된다. 웅심깊고 여운있는

시는 마치 깊이를 가늠할수 없는 잔잔한 호수처
럼 읊을수록 감미로운 시행속에 새로운 뜻을 안
겨주며 사람들을 감명깊은 세계에 이끌어간다.

당을 노래한 우리 시편들은 공통적으로 찾아
볼수 있는 주요한 특징은 모든 시편들에 시인의
사색이 력력하다는 그 점이다.

시는 곧 사색이 낳는다. 시를 쓰는 과정은 련속
되는 사색의 과정이며 사색의 깊이는 곧 시의 깊
이를 담보한다.

창작적사색은 작가의 정치적식견과 기량에 의
존하므로 말재주를 부려 시를 꾸며내려 하지 말
아야 하며 높은 차원에서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진지하게 탐구하는 창작적관습을 붙여야 한다.

서정시 《어머니》를 다시 읊어보라! 그러면 어
느덧 가슴은 숭엄해지고 다심한 어머니품처럼 포
근한 시의 정서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된다.
읊으면 읊을수록 시의 갈피마다에서 배어나오는
깊은 뜻이 더욱 새롭게 느껴진다.

시인은 정겨운 시선으로 밤새도록 쓰다듬어주
고 자애깊은 모습으로 머리맡을 지켜주는 바로
그러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수천만 아들딸들을
한몸에 안아 혁명가로 키워주는 위대한 어머니였
음을 새로운 눈으로 발견한다.

많은 시인들이 사람들에게 새생명을 주고 참된
삶을 안겨준 우리 당을-어머니에 비겨 노래하
였다.

그러나 시 《어머니》에서 시인은 새로운 시점
에서 한결음 더 깊이 들어가 섬세하고 분석적인 감

각으로 존엄 높은 어머니당을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비겨 노래할수 없다는것을 깨닫는다.

바로 여기에 이 시의 새것이 있으며 발견이 있다.

시인은 높은 정책적아목으로 사색을 집중하고 심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속에 간직하고있는 소박한 생각을 그렇듯 특색있고 생활적인 감정으로 절절하게 노래부를수 있었다.

그 시선 한번 강토에 비끼면
황량하던 폐허에도 온갖 꽃이 만발하고
거인의 그손길 한번 창공을 가리키면
천리마 네굽을 안고 나는
아 이런 어머니를 내 지금껏
아이적 목소리로 불러왔던가
이런 어머니의 크나큰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 지켜주고있었던가

송그스러워라 이 어머니를
나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던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한다는것은
그러나 어이하리
당이며 조선로동당이며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이 세상 어느 어머니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거니...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불러 공산주의 찬란한 미래에로 향도하는 위대한 당을 어찌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놓을수 있으랴!

시인은 무엇이랴 말할수 없이 민망하고 송구스런 감정에 휩싸이며 한없이 숭고한 어머니란 말보다 더 어울리는 말이 없다는것을 뜨겁게 느끼는것이다.

참으로 크나큰 사랑의 한품에 인민을 안아 더 높은곳으로 떠밀어주고 인도하여주는 우리 당의 크나큰 품을 시골아낙네의 이름에 비겨야 하는 그 송구스러운 감정을 것처럼 절절히 노래한 시인의 의도에는 얼마나 솔직하고 대범하며 웅심깊은 사색이 깃들어 있는가.

이것은 바로 시인의 진지한 탐구와 철학적인 사색이 축적될 때만이 기성의 틀을 마스고 새로운 시의 세계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하여주고있다.

시인의 심오한 사색은 또한 사상을 직선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풍부한 정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시적정서를 돋구어주는 역할을 한다. 당을 노래한 시편들은 한결같이 시의 정서를 추상화하지 않고 풍부한 체험에 기초하여

가장 구체적이고도 심오한 감정으로 일반화함으로써 당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가장 친근하고 은혜로운 어머니품이라는 사상을 생동하게 밝혀낼수 있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예술에는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와 결합된 사상만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있다. 시의 사상은 풍부한 정서로 안받침되어야 하며 정서는 또한 노래하러는 대상에 대한 김정적인 체험, 시적인 과악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감동깊게 안겨올수 있다.

시 《당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인민들이 우러러 받들고 따르는 위대하고 존엄있는 우리 당은 언제나 애무의 정에 넘쳐 쳐다보는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 그대로이며 숨은 사연도 터놓고싶고 꾸지람할 때조차 그 음성 다심하고 정다운 그런 어머니여서 무엇이랴 다 이야기할수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가장 위대한것이라고 가슴헤쳐 노래하고있다.

당을 불러 어머니라 칭송하는 시인의 감정이야말로 얼마나 섬세하고 예리하며 감성적인가!

비길수도
헤아릴수도 없어라
우리모두의 운명도
조국의 오늘과 래일도
그 품이 다 안고있기에
시작도 끝도 없는
그렇듯 위대한것 아니던가

백두에서 안아온
노을빛 기폭에 싸여
우리모두 첫 삶을 받아안았고
그대의 마음을 닮고
그대의 숨결을 지닌
영원한 당의 아들
.....

시인의 감각은 이렇듯 예리하면서 정서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이어야 하며 생활적이면서도 정책적인 시점속에 통일되어있어야한다.

주체형의 당을 높이 받들어 기쁨도 시련도 함께 나누며 영원히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을 걷고 걸으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목청껏 노래하는것은 우리 시대 시인들이 지닌 크나큰 영예이며 행복이다.

시인들은 어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권위 있고 존엄있는 어머니당의 위대하고 숭고한 모습과 부드럽고 자애로운 숨결을 뜨거운 심장으로부터 마음껏 노래불러야 할것이다.

우리 문학에 그려진 혁명적동지애의 숭고한 화폭

명일식

혁명적동지애는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랑가운데서 가장 값높고 귀중한 사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자간의 사랑, 모자간의 사랑도 있으며 형제간의 사랑, 친구들사이의 사랑, 동지들사이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사랑가운데서 가장 값있고 귀중한 사랑이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입니다. 부자간의 사랑이나 모자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 동지적인 사랑과 결합될 때 그것은 더 깊은 사랑으로 될것입니다.》

친혈육의 사랑이나 친구들사이의 사랑은 아무리 깊다고 하여도 그것은 단순한 혈연적인 관계나 도덕률리적인리로 맺어져있는 인간들호상간의 사랑이다.

그러나 혁명적동지애는 준엄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한길에서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사이에만 있을수 있는 사랑으로서 친부모의 사랑에도 비할수 없는 한없이 귀중한 혁명적사랑이다.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인 사랑은 자기자신이나 개별적인간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그런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혁명적동지애는 오로지 집단을 위하여, 당과 혁명, 수령을 위하여 자신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 사람들만이 지닐수 있는 그런 숭고한 사랑이다.

혁명적동지애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그 자세와 립장에서 표현된다.

수령이 없는 혁명을 생각할수 없듯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혁명적동지애도 또한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모시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어떻게 한생을 바쳐나가는가 하는것은 그것이 참된 혁명적동지애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을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된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동지애는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향도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나가는데서 처음으로 싹트고 자라났으며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높이 발휘되고 더욱 공고화되였다.

우리는 그러한 생동한 실례들을 영광스러운 당

중앙의 지도밑에 창작된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에서 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예술적화폭에 옮긴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인 《준엄한 전구》, 《백두산기슭》,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근거지의 봄》 등 작품들에서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속에서 혁명적동지애가 생겨나고 형성공고화되는 과정을 참으로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이 장편소설들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동지애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한없는 믿음이다.

인간에 대한 믿음은 위대한 사랑과 고결한 혁명적의리를 낳는 혁명적동지애의 기초로 된다.

인간을 믿지 못하고서는 인간을 사랑할수 없으며 믿음이 없는 사랑은 있다가도 없어질수 있고 때에 따라 변할수도 있다.

혁명적동지애는 바로 인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음으로 더 두터워지며 믿음으로 공고화되고 영원해진다.

혁명전사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으로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안겨주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와 《두만강지구》에서 한때 혁명의 길에서 엄중한 파고를 범하여 혁명에 손실까지 끼친 리성림과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에서 주영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민생단》의 혐의를 받았던 리경준, 최선금부부와 장기령, 윤칠녀어머니, 고명창등에 대한 믿음에서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리성림은 한때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지 못하고 혁명적단련이 부족한 탓으로 하여 일시나마 후방밀영에 기여들었던 반혁명분자 려정호의 강박과 고문에 못이겨 거짓 자백서까지 쓴 엄중한 정치적파고를 범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일부 지휘원들은 금천동정치공작에 성립이를 내보내는 문제를 놓고 망설이였으며 그 누구도 선뜻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휘원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이 무거운 임무가 성립에게 힘겨운 부담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더 마음을 쓰시였

다.

그러시고는 그를 믿을만한 담보가 없다고 하면서 망설이고있는 지휘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검열도 소용이 없습니다.그에게는 여전히 믿지 못할 구석이 남아있게 될것입니다.이러한 관점에 선다면 우리 혁명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혁명을 오직 사람을 믿고 시작했기때문입니다.사실에 있어서 사람들은 여태까지 이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담보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우리 혁명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담보를 주자는것입니다.그것은 신임입니다.리성림동무에게는 든든한 담보가 있습니다.그것은 리성림동무에 대한 우리 혁명의 신임입니다.》

이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크나큰 믿으심인가!

리성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믿으심은 그가 적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도 변함이 없으시였고 더욱더 뜨거워지시였다.

그가 놈들의 손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휘원들은 일치하게 사령부의 위치를 옮길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성립이를 굳게 믿으시고 성립동무는 비록 놈들에게 붙잡혔지만 그렇게 혁명의 비밀을 쉽게 내놓을 동무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만일 동무들의 이런 모양을 성립동무가 본다면 그가 무슨 힘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겠는가고 준철히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이것은 오로지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시고 인민의 마음과 힘을 믿고 천만가지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지니실수있는 뜨거운 믿음이고 신임인것이다.

리성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보는바와 같이 성립이가 부상을 입고 사경에 처하여 유능한 명의인 최인관이마저도 신심을 잃고 돌아섰을 때에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성립을 어떤 일이 있어도 소생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성립이가 위대한 수령님의 이 믿음을 받아안고 죽음을 이겨냈을 때에는 그가 혁명대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에게 또다시 총을 안겨주시는것이다.

이처럼 성립은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한없는 사랑속에서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났고 그이의 혁명전사로 영원히 혁명대오에 서게 되였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믿

으심은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민생단》으로 물리였던 리경준, 최선금부부와 윤철녀, 장기령, 고병창 등 100여명의 대원들을 구원하여주시는 장면에서 더욱 감명깊은 화폭으로 재현되였다.

《민생단》의 루명을 쓰고 근거지에서 쫓겨나서도 엄동설한에 두아이들까지 데리고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찾아 떠나는 리경준, 최선금부부와 고사리같은 손으로 언땅을 헤쳐 풀뿌리를 캐어먹으면서도 기어이 장군님께로 걷고 걸어온 한남실이 이끄는 아동단원들, 그리고 장기령, 윤철녀. 그들이 사생결단하고 장설덮인 천리수해를 헤치며 사선을 넘어 사령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린것은 역시 《민생단》의 혐의였다.

이들과 함께 《민생단》의 혐의를 받은 100여명의 대원들은 생사의 위기에 빠져있었다.

진정 그들을 구원할 힘은 이 세상에 더는 없는 듯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좌경기회주의자들의 강박에 못이겨 신념마저 잃어버렸고 지어 고병창을 비롯한 일부 대원들은 자기자신마저도 믿지 못하여 거짓자백서까지 쓰고 처분만을 기다리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들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그들을 크나큰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것은 한없이 위대하고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저주로운 인간불신의 증서 《민생단》문서보따리를 그들앞에서 불태워버리시였다.

《동무들은 오늘 누가 《민생단》이고 누가 《민생단》이 아니라고 결론하기는 곤란합니다.왜냐하면 그것을 누구도 증명할수 없기때문입니다.그러나 내가 동무들에게 오늘 선포할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민생단》은 한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그것은 동무들자신이 다 《민생단》이 아니라고 하기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임이 어디에 있겠는가.

진정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보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지니실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다.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숭고하고 위대한 믿음을 지니고계시기에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간고한 시기에 도 작전지도보다 먼저 대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여기에서 승리의 비결, 힘의 원천을 찾으시였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믿으심이 있었기에 혁명전사들은 놈들의 모진 고문과 교수대도 이겨내었으며 사선을 헤치고 굽으먼

서도, 쓰러지면서도 혁명의 절개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의 구감으로 보여주신 혁명적동지애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이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을 태양의 따사로움이나 산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에 비긴다.

그러나 태양의 따사로움에는 구석진곳이 있고 산의 높이나 바다의 깊이에도 끝이 있지만 혁명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는 구석진 곳도 끝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중흡련대장에게 돌려주시는 눈물없는 읽을수 없는 뜨거운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7련대장 오중흡은 소부대를 구출하는 전투에서 자신이 직접 기관총을 잡고 싸우다가 그만 손바닥에 화상을 입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에 대하여 묻지 않으셨으나 그의 손을 오래도록 잡으시고 얼굴과 몸을 여겨보시는것이였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병원에 있는 리성림에게 문병보내시는데 사실은 그를 단 일주일간만이라도 입원시켜주시려 하는것이였다.

뒤늦게야 이것을 알아차린 오중흡은 급변하는 정세가 걱정되어 단숨에 사령부로 돌아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오중흡에게 급변하는 정세보다 그 《소아병》이 더 걱정된다고 심려하시며 친부모도 다할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신다.

오중흡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그가 룡파송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되었을 때 더 뜨겁게 안겨온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오중흡에 대한 비보를 받으시고 단숨에 달려오시여 아프신 가슴으로 그의 눈을 감겨주신다.

그러시고는 하많은 이야기를 담은 3도백대전투에서 터진 옷소매를 잡으신채 그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으시고 움직이지 못하시며 조국땅도 아닌 북만의 얼음땅밑에 널한장 깔아주지 못하고 묻으셔야 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자신의 따뜻한 체온이 스며있는 외투를 벗으시여 중훈에게 덮어주시는것이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뜨겁고 위대한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는가.

오중흡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그가 희생된후에도 변함이 없으셨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중흡이 곁을 떠난지도 보름이 넘었지만 차마 수저를 들지 못하시며 애끓는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을 잡았다 해도 오중흡이와는 바꿀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혁명전사들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이 위대한 사랑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있기에 대밀림의 흑한과 눈보라속에서 굶주림도 추위도 이겨낼수 있었으며 강도일제와 싸워 이길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의 구감으로 보여주신 혁명적동지애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숭고한 혁명적의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현하신 숭고한 혁명적의리는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바다와 같이 끝간데 없고 웅심깊은 혁명적동지애를 낳은 원천의 하나로 된다.

누구나 안기고싶고 한번 안기면 영원히 혁명전사로 삶을 빛내이는 한없이 은혜로운 품, 그래서 혁명전사들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사는것을 최상의 행복으로 영광으로 여기며 죽어서도 영원한 삶을 빛내인다.

우리는 그것을 혁명의 길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혁명전사들과 그 후대들에게까지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시며 심려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로고에서 잘알수 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오중흡련대장은 소설의 중간부분에서 전사한다.

그는 비록 전사하였지만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하여 작품의 마감까지 살아있으며 강한 견인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인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오중흡이까지 잃고보니 이제는 초창기부터 함께 싸운 전우들이라곤 몇이...남지 않았습니다. 손갈을 들어도, 잠자리에 누워도 그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유골이나마 조국땅의 흙을 덮어주고 광복된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게 해주기전에야 제 어찌 발편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처럼 그들이 목숨으로 지키고 간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는 때에 제가 우리 혁명을 승리의 언덕에까지 갖다대이는것은 먼저 간 동지들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의리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혁명적의리에 넘치는 뜨거운 말씀인가!

바로 이러한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고계시

기에 혁명이란 말조차 모르고 살아오던 최인판이
도 그의 혁명전사로 세상에 두번다시 새로 태
어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현하신 이러한 혁명적의
리는 장편소설 《두만강지구》에서 이미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된 한태혁의 누이동생 필네를 늘 생
각하고 계시다가 풍산으로 떠나는 장경수정찰조
원들에게 부탁하여 기어이 데려오게 하시는 감동
적인 장면에서 더 뜨겁게 안겨온다.

사실 이 문제는 한태혁을 그처럼 사랑하였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를 잊지 않고있는 금속이까지
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태혁의 누이동
생까지 데려다 오빠의 뒤를 이어 주체형의 혁명
가로 자라나도록 하신다. 이것은 오직 혁명전사
들에 대한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현하고계시는 한
없이 깊고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의하여 혁명전사
들은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간직하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영원한 삶을 빛내일
수 있었다.

참으로 총서중의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
께서 혁명전사들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 혁명적
의리에서 그처럼 위대한 혁명적동지애가 싹트고
형성되었으며 가장 공고하게 완성되었다는것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혁명적동지애를 깊이있게 그리자면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맺어진 혁
명전사들사이의 동지애를 잘 그려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은 혁명적동지애의 핵을 이루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
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으며 이 충실성에 기
초해서 혁명동지로 굳게 결합되어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리성림과 춘옥이
사이에서 발휘된 감격의 눈물이 없이는 볼수 없
는 혁명적동지애가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리성림과 춘옥은 서로 사랑하고있는 사이이다.
그들은 부상당한 몸인데다 사령부와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성림은 자기자신도 운신할수 없는 몸이
지만 자기보다 더 심한 부상을 입은 춘옥이를 꼭
발구우에 앉히고 사령부를 향해 험산준령을 넘어
길도 없는 눈보라를 헤치며 한걸음한걸음 움직
여 간다.

이들의 걸음걸음마다에는 심한 추위와 굶주림

이 무겁게 매달리고있었으며 뒤에서 따르는 적과
싸워 따돌리면 또 다른 적들이 앞을 막아섰다.

과연 이들이 무슨 힘으로 이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고 적들의 총탄을 막아낼수 있으며 눈보라
치는 천리험산준령을 넘어갈수 있겠는가?

춘옥은 자기때문에 걸음이 지체된다는것을 알
고 벌써 여러 차례나 자기를 여기 남겨두고 먼저
사령부를 찾아 떠나라고 성림에게 애원하듯 졸
랐다.

진정 이들앞에 막아선 이 어렵고도 큰 난관을
이겨내기엔 사랑의 힘만으로는 너무도 약하였다.

그러면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낸 그 힘, 그 비
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성림이가 춘옥에게 기운을 내라
고 고무하며 하는 다음의 말에서 알수 있다.

《칠성령을 넘어 후방밀영 20명 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사령관동지앞에 가기전에는 우리는 죽을
래도 죽을수가 없지 않소? 춘옥동무, 그이께서
두팔 벌리시고 웃으며 다가오시는 모습을 그려보
우. 그리구 기운을 내란말이요, 응!...》

위대한 수령님의 품만을 그리며 서로 굳게 믿
고 의지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인간의 상상을 초
월하는 곤난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있으며 비
결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을
가슴속에 변함없이 간직하고있었기때문에 이들
은 불사신과 같은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신념을
가질수 있었고 천리험산준령도 굴함없이 넘어 그
처럼 안기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기게
되었으며 천금같이 귀중한 혁명적동지애와 결합
된 그들의 사랑도 꽃피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원을 열어주시고 몸소 빛
나는 구감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동지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서만 맺어지는 동
지적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인간전형인 주
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만이 지닐수 있는 천금
보다 더 귀중한 혁명적동지애인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주체의 혁명문학에서 혁
명적동지애를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꽃피워주신 혁명적
동지애의 숭고한 모범을 더욱 깊이있게 그림으로
써만 위대한 력사에 수놓아진 의의깊은 사건들과
생활들을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진실하게 보여줄
수있다.

우리 문학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정
신적풍모에서 발현되고있는 혁명적동지애의 아름
다운 화폭을 더욱 빛나게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그날의 맹세

김희봉

설화

《조국해방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우리 인민들은 재더미를
헤치고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섰다.
전쟁도 판가리싸움이었지만 전후복구건설 또한
치열한 계급투쟁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전후복구는 넘려마시라고 한 그날의 맹세를 지켜
모든 곤난을 이겨나가고있었다...》
설화와 함께...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산언덕으로 오르고있다.
밤하늘에 터져오르는 축포.
환희에 넘쳐 걷고있는 당원들의 얼굴에 굳은
신념과 의지로 빛나는 우리의 주인공 정순의
얼굴에 축포의 빛발이 명멸한다.
먼 하늘가를 더듬는 정순.
그의 생각이 깊어진다.
복구와 건설의 어려운 과업이 앞에 있다.
참혹한 파괴앞에서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 서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이다.
그러나 해내야 한다.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정순을 중심으로 언덕우에 올라서는 10명 당원
들의 튼튼한 모습우에 제명이 새겨진다.

그날의 맹세

(《언제나 한마음》 제2부)

공장구내

폐허속으로 화물자동차가 달려와 멎어선다.
적재함에서 뛰어내린 생산지도원 기태가 운전
칸문을 열고 지배인의 가방을 받아든다.
《지배인동지.》
《예.》
지배인이 차에서 내려 공장구내를 바라본다.
무너져내린 벽체며 휘여든 철골들.
옛모습을 찾아볼길 없는 무거운 파괴의 흔적.
지배인과 함께 도착한 가공직장장 덕만이가 격
분을 참지 못해한다.
《에익, 개같은놈들!》
막막해하는 지배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듯
기태가 한마디 한다.
《공장형편이 말이 아니군요.》
지배인이 꺼짓듯 한숨을 쉰다.
문득 어데선가 손풍금에 맞추어 부르는 처녀들
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저으기 놀란 지배인이 고개를 돌린다.
노래소리를 따라가보면...

정순의 집

소박하게 차려진 잔치상.
정식이와 영혜가 나란히 앉아 큰상을 받았다.
공장처녀들이 손풍금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오솔길 덩불에 치마폭 찢겨도
쳐너는 춤추듯 집으로 달리네
김매던 호미자루 집어던지고
달려가는 처녀마음 아무도 몰라

돌다리 건느다 내물에 빠져도
부끄럼 모르고 집으로 달리네
전선에서 찾아온 한장의 편지를
쳐너가 받은줄 아무도 몰라

풀먹던 송아지 놀라서 뛰고
우물가의 할머니도 영문을 모른다네
총각이 써보낸 살뜰한 편지를
쳐너가 받은줄 아무도 몰라

상도가 흐뭇해서 정식이와 영혜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다.
그옆에서 관일리와 용하가 흥이 나서 장단을
치고있다.
조무래기들이 창문에 매달려 신랑신부를 보겠
다고 싱갱이질 한다.
지금 부엌에서는 정순이가 음식준비에 바쁘다.
원녀가 정순의 팔을 잡아끌며 방안을 눈짓해보
인다.
정식이가 영혜가 부어준 술잔을 상도에게 권하
고있는것이 보인다.
세포위원장 송관일이
《자 사둔님, 어서 쪽-드시우.》 하더니 이번에는
부엌에 대고 소리친다.
《다음은 정순동무차례야. 정순동무, 빨리 들어
와서 영혜동무의 잔을 받구레.》
《아니, 나야 뭘, 아이구 어서 드세요.》
정순이가 사양하는데 병수가 느슨히 웃음을 담
고 말한다.
《그래두 법은 법대루 해야지...》
원녀가 정순의 등을 떠민다.
《어서 올라가라구.》
《아이 옷두 못갈아입었는데.》
정순이 주춤거리는데 용하가 방안에서 팔을 잡
아끈다.
《우리도 일하던 차림대로 왔는데 뭐라우.》

방안에 올라온 정순이가 잔을 받아든다.
생각깊이 바라보는 상도.
관일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한마디 한다.

《자. 영혜때문에 속쓰던게 쑥 내려가게 꼭 마시라고요 하하하.》

망설이던 정순이가 용기를 내어 잔을 비운다.
박수소리, 《잘하는구만.》하는 환성소리.

정순이를 지켜보던 영혜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다.

결혼식장이 더욱 흥성이는데 시엽이가 양은으로 만든 쟁반을 안고 들어온다.

《자, 축하하네, 정식이...》

《아니 이젠 뭘...》

정순이가 고맙게 받는데 시엽이가 방안을 둘러본다.

《가만, 내 한가지 소식을 전하겠수다.소재지에서 지배인동무랑 도착했수다.》

《그래요?》

《예 오는 날이 장날이라구 가공직장장 덕만동무두 함께 왔습니다.》

그 소리에 덕만의 안해 원녀가 시엽에게 톡담조로 말한다.

《그런 말을 안해두 시엽동무 뭇은 따로 내왔으니 어서 앉기나 하라고요.》

누구보다 정순이가 그 소식에 반가와한다.

《금철이 아버지가 오셨다는게 정말이예요?》

《아, 그런 거짓말두 하나요?》

《그럼 빨리 가서 모셔와요.》

《에이구, 모시러 가지 않은들 원... 아이구 다들 오십니다.》

마당

지배인이 덕만이, 기태와 함께 마당에 들어서고있다.

정순이와 관일. 병수가 그들을 반겨 맞이한다.
부엌에서 한 녀인이 원녀를 재촉한다.

《아, 어서 나가봐요.》

녀인에게 떠밀리어 부엌문을 나서던 원녀가 덕만을 보자 손에 들고있던 접시를 떨구어 박살낸다.

덕만이가 눈을 찔 흘리며 혀를 찬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즐겁게 웃는다

지배인이 정순에게 인사삼아 말한다.

《정순동무의 심장이 보통이 아니구만.다 마신 판에 이렇게 잔치부터 벌려놓은걸 보니...》

《그럼 울어야겠나요 뭐...》

《허허 락관하는게야 좋은 일이지. 자 그럼 잔치나 치뤄놓군 나와 같이 평남관개건설장으로 한이틀동안 출장을 갔다옵시다.》

덕만이가 참지 못해 한마디 한다.

《지배인동무, 출장은 출장이구 들어갑시다.이거야 목이 말라 견디겠나요.》

그들이 웃고 떠들며 방안으로 들어간다.

평남관개건설장

새벽전등이 별무리처럼 반짝이는 속에 수천명의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수로작업을 하고있다.
그속으로 달려들어오는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천막앞

당중앙위원회 부장이 기술일군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에게 설계도면을 넘겨준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부장동지.》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수고하십시오.》

《예.》

기술일군들을 보내고 천막안으로 들어서려던 부장이 자동차경적소리에 돌아선다.

승용차에서 내린 부상과 지배인이 부장에게로 마주오고있다.

부장이 그들을 맞이한다.

《수고했습니다.부상동무 기다리던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배인의 인사에 부장이 그와 인사한다.

《수고했소.》

지배인이 화물차에서 내린 정순, 관일, 병수를 당중앙위원회 부장에게 인사시킨다.

《인사들하오. 당중앙위원회 부장동지요...》

《부지배인동무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주철직장 세포위원장아바입니다.》

《먼길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구 주철직장장동무입니다.》

부장이 무등 반가와한다.

《아, 리정순동무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보긴 처음이군요.이제 여기에서 진행된 정치위원회에서도 수령님께서는 동무에 대해 감회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우뚝 굳어지는 정순.

그의 얼굴이 승엄한 감동에 휩싸인다.

이윽히 정순이를 지켜보던 부장이 뜨겁게 말을 잇는다.

《...수령님께서는 그날 폭격에 신의주가 채더미로 되는걸 보시고 몹시 속이 좋지 않았는데 동무의 락관적인 말을 듣고 큰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들어오면서도 내내 동무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으며 그런 강의한 의지를 가진 로동계급이 있기때문에 원썬놈들이 아무리 마사놓아두 다시 일어설수 있는 신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순이가 벽차오르는 걱정을 누르며 눈굽을 찢

는다.

관일, 병수의 눈에도 물기가 어린다.

잠시 동안을 두었던 부장이 그들을 부르게 된 사연을 이야기한다.

《수령님께서 동무들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논해보라고 말씀이 계셔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리로 갑시다.》

양수장안

부장이 대형양수기앞에 서있는 이들 세 당원에게 믿음어린 눈길을 주며 말한다.

《동무들, 이게 바로 수령님께서 친히 다른 나라 정부에 편지를 내시여 가져온 양수기입니다.》

《예?》

《자. 거기 적당히들 앉으십시오. 그래 어떻습니까. 좀 의논들을 해보고 오셨겠지요?》

부장의 물음에 부상이 다소 당황해하며 변명조로 말한다.

《공장에 내려가보니 말할 형편이 못돼서 지배인하구만 토론하고 왔습니다.》

《공장형편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채더미밖에 없습니다.》

《그래두 의논은 좀 해보셔야지요.》

부드럽게 오금을 박아 말한 부장이 이윽하여 수첩을 꺼내들고 일어선다.

《어제 여기에서 한 정치위원회에서 수령님께서 저 양수기문제와 관련해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몇대의 양수기를 만드는가 못만드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후 중공업을 앞세우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자고 하는 당의 기본로선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리화를 해야 농촌정리를 추켜세울수 있겠는데 그러자면 양수기가 결린다. 그렇다고 우리가 농업도 동시에 발전시키자고 하는 립장에서 물려서야하겠는가, 그럴수는 없다…》

정순, 관일, 병수가 긴장하여 듣고있다.

부장이 말을 계속한다.

《이것은 난관앞에서 후퇴하는것이며 남들보다 뒤떨어졌기때문에 더 빨리 나가자고 하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도 배치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락원의 당원들이 지금 하고있는 탑식기중기도 하면서 양수기까지 추가적으로 더 할수 있다면 우린 그 동무들을 믿고 수리화를 내밀수 있다고말입니다.》

부장이 자리에 앉으며 의논조로 묻는다.

《그래 동무들 생각엔 어떻습니까?》

부상과 지배인이 대답을 못한다.

무거운 침묵.

부장이 세 당원에게 시선을 돌린다.

《서슴지말고 얘기들을 하십시오.》

드디어 정순이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결심 비낀 눈길, 파제의 심각성과 책임성을 무

겁게 느끼는 표정이다.

《저… 우리가 하겠습니다.》

조용한 말마디가 천만근의 무게로 울렸다.

《아니, 그게 공장형편을 알면서 하는 소리요?》 지배인이 놀란 소리를 하는데 부상이 여유있게 제지한다.

《지배인동무, 의견이야 들어야지 그러면 되오. 직장장동문 무슨 타산이 있어 그러겠는데… 어서 말해보오.》

당중앙위원회 부장이 그들을 일별하고 정순이를 뚫어지게 마주본다.

정순의 목소리가 신심에 넘쳐 울린다.

《저도 특별히 타산해본건 없습니다. 그저 우리 당원동무들을 믿을뿐입니다. 해방후 복구건설할 때나 전쟁시기 수류탄을 만들 때두 형편은 지금 하구 같았지만 우리 당에서 하라는대로 하니 다했습니다.》

부상과 지배인이 놀라게 바라본다.

부장이 웃음을 담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축합니다. 동무들의 결의를 수령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장!》

관일이가 흥분하여 정순이를 부른다.

부장이 다가와 정순의 손을 굳게 잡아쥐고 《동무들을 믿습니다. 아바이!》

하더니 병수를 돌아본다.

《여러모로 봐서 부지배인동무가 공장에 남아있어야겠는데 부지배인동무는 성에 올라가서 사업하게 됐습니다.》

정순이와 관일이가 놀란다.

지배인의 의혹에 찬 시선이 부상에게 박힌다.

부상이 그 시선을 피하며 병수에게 다가간다.

《축하하오.》

역흡

출발을 앞둔 열차.

기관차가 증기를 울리고있다.

정순이와 10명 당원들이 소환되여가는 병수를 배웅나왔다.

《먼저 올라가요.》

병수가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해하며 말한다.

《어려운 과업을 맡았는데 돕지 못하고 떠나는게 죄스럽소.》

《안녕히 가십시오.》

용하, 관일, 시엽이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한마디씩 한다.

《이거 정말 우리두 기쁘우다.》

《편안히 가시우.》

《안녕히 가십시오.》

한편에서 기태에게서 손가방을 넘겨받은 부상이 어깨가 처져있는 지배인에게 충고하듯 말한다.

《신경을 쓰지 마오. 동무를 노상 그자리에 박

아두지 않을테니…》

《하여간 부상동지 건강하십시오.》

《내 또 오겠소.》

《예.》

부상이 렬차에 오르자 기태가 지배인의 눈치를 보며 가려운데를 긁어준다.

《하 거참… 지배인동무를 두고 부지배인을 국장자리에 앉힌다는게 말이 되나…》

《생산지도원동무, 그건 무슨 소리요?》

속생각을 감추며 기태에게 짐짓 엄하게 말하는 지배인.

기태가 어색하게 웃는다.

렬차가 서서히 움직인다.

지배인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있는속으로 지배인이 들어온다.

《다들 모였구만요. 자, 하루동안이면 충분히 생각들을 했겠는데 의견들이 있으면 얘기들하오. 어떻게 하면 양수기를 만들수 있겠는가.》

덕만이가 대뜸 불부은 소리를 한다.

《거 난 아무래도 모르겠수다. 용선로능력부리가 모두 두톤밖에 안되는데 다섯톤이 넘는 양수기를 어떻게 붓겠고 그러는지…》

《우리 걱정은 마시고 가공하구 조립이 어떻게겠는지 그것만 타산해보세요.》

정순이 웃으며 하는 말에 덕만은 한술 떠 뜬다.

《허, 그건 너무 기차서 말두 안나갑시다. 보령이 있길 하나, 수압시험기가 있나…》

기태가 반박한다.

《아.그래서 방도를 찾자는게 아닙니까?》

《방도를 찾는것두 웬만해야지 아 복구를 하면서 기증기를 생산하는것만두 대단한데 그것까지 한다는거야…》

잠자코 듣고있던 나이지긋한 동력직장장이 참지 못하고 내쫓는다.

《그만하오. 거 가공직장장동무는 주철직장장동무가 전쟁때 어떤 맹세를 올렸는지 모르는 사람 같구만…》

《내가 그걸 왜 모른단말이요?》

방안의 분위기를 살피던 지배인이 《알면서 그런말을 하면 되나…》 한다.

그런대로 덕만은 제 주장을 한대중으로 뻗친다.

《사정이 하두 박하니 하는 소리지요. 정 그럼 하겠다고 한 사람더러 다 하라지요.》

정순은 섭섭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웃는 낯을 보인다.

《직장장동무, 못한다구만 생각지 말구 용선로 같은건 소개지에서 갖다줄 생각을 해보자요.》

이번에는 기태가 눈이 둥그레진다.

《그건 안됩니다. 자동차루는 어림두 없구 또

철도지선은 전쟁때 폭격을 맞을 때마다 본선에서 뜯어다쓰구 없어서 할수 없이 내버리구 온걸 알면서도 그럼니까, 예?》

그 말에 어느 한 직장장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한다.

《하긴 철도가 복구되기전에는 힘들지…》

마침내 동력직장장이 참지 못하고 어성을 높인다.

《거 우는소리들을 좀 작작하시우. 전쟁때 정순동무네 내외가 내화벽돌을 끌어오듯 하면야 못하게 뒀겠소.》

지배인이 책상을 두드린다.

《됐소, 됐소! 그만들하오. 아 할수 있는것 해보아지 뭘들 그러우…》

정순이가 생각에 잠겨 앉아있다.

곤난은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덕만이까지 이렇게 나올줄은 몰랐다.

또 이제 무슨 난관이 앞을 막을것인가.

정순이가 저도 모르게 나직이 한숨을 쉰다.

주철직장부근

직장밖에 판가마를 걸어놓은 원녀가 분을 삭이지 못하며 앉아있다.

덕만이가 재촉한다.

《아 여보, 거 점심 좀 빨리 주오.》

《없어요.》

《없다니?》

《민는 나무 부러진다고 당에서 하라는 양수기는 못만들겠다면서 밥생각이 나요?》

《답답하군, 뭘 가지고 그 큰 양수기를 만든다구 그래, 뭘가지구? 게다가 해본 경험이 있길 하나…》

《배고프면 혼자 끓여잡수라구요.》

원녀가 내쫓고 hing 자리를 뜬다.

덕만은 덕만이대로 안해의 태도가 뜻밖이었다.

《응? 여보, 여보… 좋다 내 끓여먹는다.》

덕만이가 분한 마음을 삭이지 못하며 앓은걸음으로 아궁이앞에 다가가는데 마침 지나가던 정순이가 걸음을 멈춘다.

아궁이앞에 었디여 입풍구를 불던 덕만이가 안해가 뒤에 나타난줄 알고 버럭 소리치른다.

《혼자 끓여먹으라구 하구선 왜 기신기신 찾아와? 저 없다고 내가 못살가봐? 흥… 3년동안을 이렇게 살았다.》

정순이가 터지는 웃음을 간신히 참는다.

《아니, 뭐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불만하구만요.》

흠칫 놀란 덕만이가 그제야 정순이를 보고 저도 어이 없는듯…

《예, 그렇게 됐수다.》

하고는 다시 매운 연기가 쏘어나오는 아궁에 달라붙는다.

《그런데 원녀동문 어데 갔어요?》

《들어왔다가 밥두 안해놓구 나갔수다.》
《제가 할테니까 여기 앉아서 좀 쉬세요.》
《그만두시우.》
《사랑싸움이 너무 지나쳤구만요.》
정순이의 웃음어린 말에 덕만이가 부뚜막에 걸터앉으며 일장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내 우리 집사람 원칙이 강하다는걸 모르지 않소. 하지만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 소개해갈 때 저두 당원구실을 한다구 세포동무들하구 남아서 수류탄을 만들겠다고 내 3년동안을 홀애비노릇을 해주었다. 그랬으면 됐지 전쟁이 끝난 오늘에 두 이래야 옳소, 예?》
《아이, 그렇지만 원너동무가 왜 그랬겠는지 금철이 아버지두 좀 생각해보시라요.》
《모르겠수다. 당원이라구 어떻게 늘 전쟁할 때 처럼이야 살겠소… 에잇…》
덕만이가 툭 털고 일어서서 가버린다.
《아니… 금철이 아버지.》
정순이 굳어진다.
이때 원너가 온다.
《직장장, 아니… 직장장이 어떻게…》
《아니 점심대접을 안해서 남정네가 밥을 짓게 만들어요?》
《회의에서 한 말을 들으니 원 밍살스러워서…》
정순이 내색하지 않고 은근히 타이른다.
《좀 곱살꽃게 잘 대해주라구요. 원래 마음이야 얼마나 어진분이에요. 살아있을 때 잘 대해줘야지 난 지금두 후회되는게 많아요.》
그 말에 원너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직장장, 나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지 늘 그러는건 아니야.》
두 녀인이 마주보며 웃는다.

공장구내

치수며 몇몇 로동자들이 공구들을 실은 마차를 끌고 간다.
그들을 바래는 관일, 용하, 원너, 시엽.
뒤늦게 나타난 정순이가 마차를 따라가며 소리친다.
《치수동무…》
《예.》
치수에게 다가가면 정순이가 밥보자기를 내놓는다.
《가다가 요기나 하세요.》
《아니, 이걸 또 뭘…》
《그저 마음뿐이에요. 뭘 빠진건 없나요?》
치수가 장담한다.
《걱정마시우. 이만한 차비면 용선로가 아니라 용광로라도 뜯어오겠수다.》
관일이가 다시금 당부한다.
《치수동무, 빨리 서둘러야겠네. 강물이 얼어서 폐를 띄우지 못하면 야단이야.》
《걱정마시우.》

한 당원이 치수의 주머니에 담배를 넣어준다.
《자, 가면서 피우라구. 합금소재두 다 구해왔으니 문제는 용선로를 빨리 가져와야 하네.》
《예, 걱정마슈… 이랴!》
치수가 말을 몰고 떠난다.
사람들이 손저어 바래운다.
용하며 당원들이 소리친다.
《여기 일은 걱정말구 어서 떠나게.》
《수고하겠네.》
《들어들가시우.》
정순이가 손들어보이며 간절히 말한다.
《수고들하시겠어요.》
당원들이 멀어지는 치수일행을 뜨겁게 바래운다.

직장사무실

정순이와 관일, 시엽이가 한자리에 앉아 의논하고 있다.
《자, 그건 그렇구 목형이야기를 마저 하자구.》
관일의 말에 정순이가 속공리를 이야기한다.
《지금 형편에서 목형을 선행하자면 아무래두 영혜 아버님한테 부탁해야 할것 같아요.》
시엽이가 대변에 불끈 한다.
《아, 못하면 못했지 개인기업가한테야 어떻게 맡기겠소?》
《개인기업가가 어쨌단말인가. 일은 되도록 해야지.》
관일의 말에 대꾸없는 시엽.
여전히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상도의 집 사랑방

영혜의 숨씨인듯 색실로 곱게 수놓은 옷장보가 드리워져 있다.
옷장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정순이에게 영혜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한다.
《형님, 뭘 그렇게 찬찬히 봐요?》
《우리 영혜숨씨가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이런 재간은 언제 다 배웠니?》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영혜를 정겹게 바라보던 정순이가 정색한다.
《그런데 너 새살림 꾸리는데만 정신을 팔구 아버지 공대를 소홀히 하진 않니?》
《아이참…》
《부엌에 찬감이 변변한게 없길래 하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 음식을 가리시지 않아요.》
《그래두 나이든분의 식찬을 소홀히 하면 안된단다.》
《알겠어요.》
마당에서 《어험-》 하는 상도의 인기척소리.
정순이가 반색하며 일어선다.

마당

정순이가 상도에게서 도면을 받아든다.
 《벌써 도면을 다 보셨어요?》
 《예, 다 봤수다.》
 《그래 어때요? 할수 있겠지요?》
 정순의 기대어린 눈길.
 상도가 장담한다.
 《하구 말구요. 내 이래뵈두 목형엔 귀신이웨
 다...》

상도의 작업장

상도의 동업자가 선반작업을 하면서 마당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동냥을 하고있다.
 정순의 목소리
 《그럼 부탁하고 가겠어요.》

다시 마당

상도가 떠나려는 정순이를 만류한다.
 《아니.가시다니? 좀더 앉았다 가시지 않구...》
 《또 오겠는데요워...》
 《그럼 자주 들리시우.》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녀가시오.》
 정순이 인사를 하고 마당을 나선다.
 그뒤를 영혜가 따라선다,
 상도가 토방에 걸터앉아 도면을 펴드는데 작업
 장에서 나온 동업자가 슬며시 다가온다.
 《아니, 형님두 무슨 일처리를 그렇게 하시우?》
 《왜?》
 《국영기업소 고급기능공 월급이라는게 하루밤
 술값도 못되는데 그이상이야 더 주겠다고 하겠
 소?》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좀 보면 뭐라나...》
 상도가 한마디로 막아버리려는데 동업자가 더
 바싹 다가선다.
 《요새 경기를 잘 알면서두 그러십니까그러. 손
 해를 보겠으면 혼자나 보시우.》
 《됐네 됐어. 내 가산을 팔아서라두 임자한테는
 손해가 가지 않게 할테니 여러말 말게.》
 동업자가 상도의 턱밑으로 기여들며 목소리를
 낮춘다.
 《내 말은 그제 아니라 창고경비두 사위가 다
 말아하는데 하다 못해 못쓰게 된 전동기라두 몇
 대달라구 하면 어떤가 그 말이웨다.》
 그 말에는 상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덤덤히 앉아있다.

거리

정식이가 함께 가던 보위대원 청년의 팔소매를
 잡아끈다.
 《우리 집에 가자구.아주머니가 친정에 가서 없
 다면서 빈집에 가선 어찌겠나?》
 《내 걱정 말구 대장동무나 빨리 갔다오시우.》
 《자.어서...》

뒤따라오던 상도의 동업자가 그들의 말을 엿들
 고있다.

청년이 정식이의 청을 밀박는다.
 《난 시원한 국수나 한그릇 하구 제창 나가서
 교대해주겠수다.》
 《자, 그러지말구...》
 《내 랭면을 좋아해서 그러니 나뻘 생각지 마
 시우다. 허허허.》
 《여! ... 원 사람두...》
 청년이 국수집으로 들어가고 뒤따라 상도의 동
 업자가 국수집토방에 올라선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저 손님은 무얼 가져올가?》
 《시원한 랭면주시우.》
 동업자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가 국수집으로 들어간다.

상도의 집 사랑방

책상을 마주하고 기계부속을 손질하고있는 상
 도에게로 영혜가 물그릇을 들고 온다.
 《아버지.》
 물그릇을 받아들며 상도가 넋지시 묻는다.
 《영혜야. 네 새서방한테 전동기 애길 비쳐왔
 니?》
 《아이, 그런 말을 다시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
 겠대요.》
 《응? 그래...》
 상도가 자책에 잠긴다.
 《내가 공연한 소릴 했구나. 나두 평생을 장사
 루 늙어온다만 요즘처럼 장사속이 더럽다고 생각
 해보기는 처음이다.》
 영혜가 간절히 말한다.
 《그러게 다 그만두구 공장에 나가시자는데두
 요.》
 《내가 이 노릇을 하는것두 다 너희들때문인데
 너희들이 정 싫다면 생각을 고쳐하는수밖에 양말
 공장 주인하구 거래를 끝을 맺구서는 무슨 마련
 을 봐야 할가부다.》
 《아이, 그제 정말이예요?》
 《늙은이들은 생각없이 말하는 법이 없다.》
 영혜가 상도의 품에 안긴다.
 《아이, 아버지가 공장에 나가시는 날엔 우리
 둘이서 업고 나갈래요.아버지 좋지요?》
 상도가 껄껄 웃는다.

주철직장

영혜가 날듯이 달려들어온다.
 《형님...》
 무거운 쇠붙이를 다루던 정순이가 달려오는 영
 혜를 본다
 《형님.》
 《왜 그러니?》
 《어디 맞춰봐요?》

《글쎄...》

영혜가 생글거린다.

정순의 일을 거들어주던 처녀①이 앞질러 말한다.

《맞춰 보나마나 신희생활이 깨가 쏟아진다는거겠지요, 뭐...》

영혜의 얼굴이 앵두빛으로 물든다.

《앤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래두 말끝마다 새서방 말만 하더라.》

《너 정말 죽어보겠니...》

그들은 정순이를 가운데 두고 쫓고 쫓기우며 팔팔거린다.

《애 어지럽구나야. 그래 무슨 일이니?》

정순의 웃음담은 물음에 영혜의 얼굴이 환히 빛난다.

《우리 아버지도 공장에 나오시겠대요.》

《그래?》

이때 시엽의 소리가 다급히 들려온다.

《직장장동무...》

시엽이가 숨차하며 정순이에게 다가온다.

《정식이가 창고경비를 떨떨히 세웠다가 합금소재를 다 털리웠다고 막 야단법석이웨다.》

《예?》

정순이가 깜짝 놀라는데 《그것없이 양수기 메달을 못뱓겠는데 이거 정말...》 하며 시엽이가 등달아한다.

누구보다도 놀라고 실망한 영혜.

선자리에 굳어진 그가 입술을 깨물고 서있다.
들려오는 소리.

《합금소재를 잃었다구?》

《예...》

《정말, 야...》

정순의 얼굴에 착잡한 생각이 갈마든다.

창고안

정식이가 부스레기만 남은 합금소재를 움켜쥔다.

《에익! 이거 어떤놈의 새끼가...》

창고구석에 간밤 경비를 섰던 청년이 서리맛은 풀잎처럼 어깨가 처져서 서있다.

지배인과 기태를 선두로 관리일꾼들이 들이닥친다.

지배인이 버락같이 소리를 지른다.

《그래 술은 어디서 먹었소? 응?》

청년이 몸둘바를 몰라한다.

공무직장장이 눈에 불을 살군다.

《말을 해야 알지?》

《엇저녁 대장동무하구 가다가 국수집에 들렀는데 웬 장사군들이 한잔 같이 하자는바람에 그만...》

《대장두 같이 먹있단말이요?》

《아니 그런게 아니라 저...》

기태가 말뚱에 걸들며 다그어댄다.

《그 장사군들속에 아는 사람이 없었소?》

《철공소집하구 동업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지배인이 정식에게 성난 눈초리를 뻗 돌린다.

《대장이 틀렸단말이야. 어째서 술먹은 사람을 중요한 창고에 세워놓고 사고를 내게 하는가 말이야 응?》

《술 마신줄 몰랐습니다.》

기태가 사람들의 눈치를 슬슬 살피며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장사치들속에 철공소집하구 동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걸 보면 그 합금소재가 분명히 개인철공업자들에게 들어간것 같은데 철공소집하구 내통하는 사람이 없어야 그게 있는줄 어떻게 알구...》 정식이가 그만 억이 막혀 한다.

《아니, 그럼 내가...》

《나두 대장동무 립장이 딱하게 됐기에 그 원인을 똑똑히 밝히자구해서 하는 소리요.》

지배인이 소리친다.

《그만들하오... 자재과장동무, 이 합금소재를 또 구할수 없겠소?》

자재과장이 펄쩍 뿜다.

《안됩니다. 아 그걸 어떻게 구한거라구...》

지배인이 피발이 선 눈으로 사람들을 빙 둘러본다.

《보란말이요 응? 공장을 팔아서두 구하기 힘든 합금소재를 털리웠으니 이젠 뭘로 양수기 메달을 뱓겠소! 둘 다 철직이요.해명은 따로 하시오.》

지배인이 돌아서 나간다.

시엽이가 참지 못하고 정식의 팔 허벅을 잡아흔든다.

《정식이 어떻게 된거야? 량심이 깨끗하면 왜 말을 못해?》

《차, 이거...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이겠소? 에이...》

정식이가 가슴을 탕탕 친다.

창고밖

영혜가 눈물이 그렇게서 서있다.

정순이며 당원들이 나온다.

《형님.저...》

영혜가 정순이에게 무엇인가 말을 할듯하다가 눈물에 젖은 볼을 짜치고 달려간다.

애처로운 그 뒤모습을 이윽히 보며 정순이가 그린듯이 서있다.

관일이 분해한다.

《캐 봐야겠네. 어떤놈인지 첫시작부터 요진통에 손을 대는게 심상치 않아.》

정순이 말이 없다.

막막한 생각에 속을 태운다.

합금소재가 없으니 메달은 어떻게 분단말인가?

관일이 말대로 요진통에 손을 대는걸 보면 나쁜놈의 작간이 틀림없는데 당장은 해명할 길이 없다.

처벌받은 정식이며 영혜는 얼마나 마음이 쓰리라.

단란하던 그들에게 이런 찬서리가 쏟아질줄이야...

정순은 이윽도록 손맥이 풀려 서있다.

공장정문

후줄근해진 정식이라 청년이 정문으로 들어서는데 보조 선 대원이 말한다.

《대장동무. 누님이 와서 기다리고있습니다.》

정식이가 접수실로 들어간다.

보초가 청년에게 묻는다.

《어떻게 됐어?》

《에이, 정말...》

청년이 울적한채 고개만 가로짓는다.

접수실

시엽이가 정순이에게 속에 품었던 말을 한다.

《이제라도 정식이를 그 집에서 내와야 하지 않겠나요?》

《.....》

《정식이를 그 집에 들여보내지 않았으면 왜 이런 말썽이 생겼겠소?》

정순은 대답이 없다.

《좌우간 참작은 하시우.》

시엽이가 모자를 쓰고 나가려다 마침 들어서는 정식이를 보자 주춤 떴어선다.

《아, 저... 정식이가 왔수다.》

정순이가 기대를 가지고 정식에게 다가선다.

《그래 갔던 일은 어떻게 됐니? 무슨 단서는 못잡았니?》

《.....》

시엽이가 다그쳐 묻는다.

《아니. 그 술판에 끼여있던 동업자령감두 모른대?》

《자기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선심쓰는데, 끼여들었다가 립장이 딱하게 됐다지요 뭐...》

이윽고 정순이가 마음을 진정하고 차분한 어조로 말한다.

《어서 밥이나 먹어라. 영혜가 가져온 점심저녁이 그대로 있구나...》

《먹구싶은 생각 없어요.》

《그래두 먹구야 힘을 내서 그걸 찾을게 아니냐.》

이때 관일이아 들어선다.

《야, 여기 있었구만... 직장장, 용선로를 가지러 갔던 치수네가 빈손으로 돌아왔네.》

정순이 가슴이 철렁해서 마주본다.

《아니.무슨 일이 있었대요?》

《용선로를 싣구오던 떼가 여울목에 부딪쳐 마사지는 바람에 용선로를 물속에 처박구말았단우만...》

《네?! ... 빨리 가보시자요.》

정순이가 급히 문밖으로 나간다.

정문밖

뒤따라 나온 정식이가 불안한 심정으로 공장구내로 달려가는 정순이네를 지켜본다.

지배인실

정순이가 다소곳이 앉아있다.

성난 지배인의 목소리.

《동무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거요? 합금소재는 털리웠지, 그리고 철도지선이 복구된 다음에 가져와두 될 용선로를 물속에 처박아... 거 애당초 승산두 없는 일에 력량을 분산시키면서 어떻게 하자는건지 모르겠단말이요!》

한열의 안락의자에 부상이 비스듬히 앉아있다.

그가 점잖은 어조로 지배인을 타이른다.

《아, 됐소.됐소! 그건 따루 토론하구, 그동안 사업정형이나 보고하시오.》

지배인이 황황히 말머리를 돌린다.

《예, 기증기는 삼십일현재 계획한 량을 다 생산해 보냈습니다.》

《그건 성과구만.》

《그런데 일부 직장들에서 공장복구를 좀 늦추더라두 주력건설을 먼저 다그치라는 부상동지의 지시가 잘 집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어느 직장이 제일 떨어졌소?》

《저... 주철직장이 제일...》

《영? 주철직장장!》

《예.》

정순이가 공손히 일어선다.

부상이 거친 목소리로 따진다.

《아, 어떻게 할 작정이요?》

《인차 시작하기로 토론이 됐습니다. 낮에는 생산을 하구 밤에는 주력건설을 해서 둘다 밀기루...》

《아,거야 안하겠다는 소리지 피외시간에만 해서 되겠소?》

그 말에 은근한 위험이 풍긴다.

정순이가 립장을 밝힌다.

《우리 직장동무들하구 토론해봤는데 모두 공장복구를 죽이구 자기 살집부터 짓지 못하겠다는겁니다.》

지배인이 대뜸 목소리를 높인다.

《아니, 동문 부상동무의 지시를 흥정하자는게요?》

《공장을 복구해야 기계부터 만들게 아닙니까?》

지배인이 흥분하여 자리에서 일어선다.

《부상동지의 말씀따라나 기계나 만들면 거기서 집이 나오구 밥에 나오는줄 아오? 예?》

놀란듯 지배인을 찬찬히 바라보는 정순.

부상이 지배인을 제지시킨다.

《가만... 됐소, 됐소! 앉으라구 앉어.》

부상이 연설조로 말을 길게 뽑는다.

《동무들, 노동자들의 생활을 돌봐주는건 어느 부상 개인의 요구가 아니요. 이건 군중관점문제란말이요. 지금 우리 생활이 말이 아니거든.》

듣고있던 정순의 눈빛이 날카로와진다.

그가 자리를 차고 일어선다.

《우리의 생활이 어떻다는겁니까? 전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호강을 하구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만큼 사는것두 제 나라가 있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만이며 직장장들이 정순의 말을 듣고있다.

흥분한 정순이가 말을 잇는다.

《우리가 먹는걸 못먹습니까? 당장 한지에서 삽니까? 전쟁팬 이보다 몇배 더 어려웠어두 목숨을 내걸고 싸웠어요.》

부상의 랭랭한 목소리.

《너자가 그렇게 몰인정해서야 어디다 쓰겠소?》

정순이가 후드득 뛰는 가슴을 누르며 침착하게 말한다.

《전 당에서 하라는 일을 뒤편에 밀어놓고 집부터 지으라는 부상동무의 립장이 리해되지 않습니다.》

《중소.말은 잘하는데 어디 두고 봅시다.》

이윽히 부상을 쏘아보는 정순의 침착한 얼굴... 금시 한소나기 쏟아부을듯 검은 구름이 산발우에 무겁게 드리웠다.

직장사무실

한자리에 모여앉은 10명 당원들.

정순이가 말하고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두 하면서 집두 짓구 양수기를 만들 준비를 하자면 무슨 다른 방도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

용하가 답답한 소리를 한다.

《집짓는것쯤은 자재가 부족해두 몇채 짓겠는데 양수기는 열성만 가지구두 안될 일이니 참...》

이때 시엽이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듯 얼굴을 든다.

《가만, 이런 때 성에 올라간 국장동무를 찾아가 보면 어떻소?》

용하가 그 말에 귀가 번쩍 띄어한다.

《영, 우리가 그 생각을 왜 미처 못했을까, 용선로 만들 강재쪼이야 해결해주겠지요.》

정순이가 관일을 돌아본다.

관일기도 긍정한다.

《글쎄, 가면 모른다고야 안하겠지.》

시엽이가 정순에게 바짝 더 권고한다.

《저... 직장장동무, 지배인동무하구 토론을 좀 해보시우.가면야 오죽 반가워하겠나요.》

용하가 어깨를 들쭉인다.

《이게 바루 화가 복이라는거요. 기술있는 부지배인이 갔다구 괜히 섭섭해했다니까...》

모두들 마주보며 크게 웃는다.

부상의 숙소

부상이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있고 그앞에 지배인이 웅송그리고 앉아있다.

부상이 문건을 보며 코웃음을 친다.

《이제야 양수기를 만든다는게 힘들다는걸 인정했구만...》

《예. 그래서 성에 올라가서 강판이라든가 보링같은 설비들을 해결해보겠다는겁니다.》

《내 손에 권게 없는데 성에 가선 뭘해, 재털이...》

《예.》

지배인이 얼른 재털이를 가져다 받치며 말한다.

《글쎄말입니다. 거 병수동무를 찾아가자는거겠지요.》

《하여튼 내각에 제의서를 내서 우는 소리를 해보라구 하오.가만 거 지배인이 가는게 낫지 않아?》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 뭐 내가 데리구있던 사람앞에머리숙이기두 그렇구 해서... 허허.》

《음... 중도록 하라구.일을 벌려만 놓지 말구 주택건설에 집중하라구.》

《예. 주택문제는 누가 뭐라해도 부상동지 결심대로 내밀테니 여기 적혀있는 자재만 좀 해결해주신다면... 거 목재하구 벽돌만올...》

하며 지배인이 부상에게 명제를 내낸다.

부상이 명제를 훑어보는 사이 지배인이 응접탁 위의 보자기를 들춰본다.

다치지 않은대로 있는 고급식사.

고급과자며 카스테라 등...

지배인이 자못 걱정스러운듯

《아니.저녁도 얼마 드시지 않았는데 밤참을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다.

《커피를 먹었소.》

《아, 경리부장이 온종일 뛰었다는게 기껏해서 이 모양이니... 저 부상동지, 여기 적혀있는 자재만 해결해주신다면...》

《자재가 어디 있소?》

《아니 그럼 주택건설은?...》

부상의 눈길이 순간 표독스러워진다.

《주택? 할수 있는것 해보라는거요! 너무 신경쓰지 마오.》

지배인이 어리둥절하여 눈만 슬쩍인다.

중공업성

정순이가 병수의 방에 들어선다.

그가 놀란다.

전선부대 참모부를 련상케 하는 분위기. 정무원들과 출장은 지배인들이 석대의 전화기에 매달려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희천, 희천공작기계요? 오늘 실적을 보고하시오.》

《룡성, 내 말이 들리오? 나 지배인이요. 비료공

장 압축기축을 넘겼소? 뭐라구? 아니 아직도 착수 안하구 뭘했소? 예? 하, 이거참 답답한 동무들이구만...》

정순이가 한 일군의 안내를 받아 안방으로 들어간다.

정무원들과 산하기업소 일군들속에 둘러싸여있는 병수가 지금 전화를 받고있다.

《예, 저두 공장을 돌아보느라구 미처 돌보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어린다.

병수가 반색을 하며 정순에게 의자를 가리키고는 전화를 계속한다.

《예, 강재만 틀림없이 넣어주십시오.그럼 수고하십시오.》

병수가 수화기를 놓기 바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달려든다.

《국장동무, 우리 기업소문제부터 결속짓구 봅시다. 제의서야 아무래두 내야겠지요?》

《저... 국장동무, 우리 수입설비들은 언제 들어옵니까?》

《여, 해주! 동무는 네 다음인데 좀 가만있소!》

《허 이 사람이 정말...》

병수가 정순에게 허거픈 웃음을 보이더니 도로 주저앉는다.

《제의서를 가지고온 지배인동무들은 좀 앉으시오. 해주기사장동문 내각사무국에 가서 참사동무를 만나시오.동무네 강재는 다 풀렸소.》

《예, 감사합니다.》

병수가 지배인들을 돌려본다.

《제의서들을 내십시오.》

지배인들이 다투어 제의서를 내민다.

《이거 좀 봐주십시오.》

《자요...》

정순이도 제의서를 꺼내들고 일어서려는데 병수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렇지만 인차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지 말아주십시오.지금 강재 한톤, 세멘트 한톤을 수령님께서 친히 배정하시는 형편입니다.내각에 제의서를 낸다는것은 결국 수령님께 손을 내미는것과 같은것인데 수령님께서서는 사흘전에 있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지금이 전쟁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구 말씀하셨습니다.》

한 지배인이 뒤통리를 긁는다.

《국장동지, 그러니 어찌겠습니까? 복구두 해야지, 계획두 해야겠으니 하두 딱해서...》

병수의 저으기 갈린 목소리.

《채더미에서 일어서자니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시기 위하여 내각회의가 끝난 그 밤으로 강선에 나가셨다가 이제 새벽에야 돌아오셨습니다.》

제의서를 쥐고있는 정순의 손이 가늘게 떨린다.

자책이 밀물처럼 밀려든다.

이윽하여 정순이가 소리없이 방을 나선다.

청사밖

기다리던 영혜가 다가온다.

《형님, 만났어요?》

《응...》 하며 말끝을 흐리는 정순.

영혜가 놀란다.

《아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상처때문에 또 열이 나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병원에 가자요.》

《일없어. 어서 가자.》

영혜가 근심스러운 낯빛으로 정순이를 따라선다.

국장실

사람들속에 둘러싸여있던 병수가 그제야 정순이를 찾는다.

정순이가 앉았던 빈 의자만 그의 눈에 밝혀온다.

강변길

버드나무 가지들이 세찬 바람에 몸부림친다.

정순이가 랑심의 모대김에 쫓기우며 강변길을 걸어온다.

신열이 있는데다가 강한 정신적충격을 받은 그가 자주 헛발을 짚는다.

근심이 가득 실린 영혜가 정순이를 살핀다.

자책에 젖어 걷고있는 정순.

그의 마음을 담아 노래가 울린다.

찬바람 부는 길을 걸어도 그날을 못잊어
깊은 밤 꿈결에도 그 맹세 못잊어
언제나 그날의 맹세 가슴에 안고살리

지금 정순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세포총회에 모셨던 그날의 정형이 되살아난다.

눈앞에 안겨오는 당세포회의록.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맹세를 올리던 자신의 모습.

이 몸이 쓰러져 한줄 흠이 된다한들 어찌 그날의 맹세를 잊을수 있으랴! 노래가 계속된다.

불계만 피는 꽃이 되라고 안겨준 그 사랑에
한몸바쳐 보답하자고 불타는 이 마음
언제나 그날의 맹세 가슴에 안고살리

강변길을 걷는 정순이와 영혜의 모습이 멀어진 다.

직장사무실

10명 당원들이 모두 모였다.

정순이 자책과 후회를 담아 절절히 말한다.

《제의서를 내는 일이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건줄 모르고 갔었어요. 지금 강재 한톤, 세멘

트 한돈을 친히 수령님께서 배정하시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손을 내밀면 복구건설은 넘려말라고 맹세는 잘하더니 막상 곤난에 부닥치니 제일 먼저 주저앉았다고... 우리 수령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허전해하시겠어요.

사람이 죄중에두 맹세를 저버리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데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하구 갔었어요.》

정순이 목이 메여 더 말을 못한다.

당원들이 숨엄한 감동에 휩싸인다.

《...저두 제의서를 올려 비준을 받으면 일하기 험하다는걸 모르지 않아요. 그렇다구 저마다 맹세는 맹세대루 다 해놓구 막상 실천에서는 저마끔 저 하나 편안히 일할 궁리만 한다면 그 많은 제의서들을 일일이 봐주시구 하나하나 풀어주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언제한번 편히 주무시겠나요.》

눈물에 젖어든 관일이가 정순의 손을 뜨겁게 움켜쥔다.

《직장장, 우릴 옥하게, 우리 생각이 짧았네.》

《세포위원장아바이!》

당원들이 저마끔 자책에 젖어 부르짖는다.

《직장장동무...》

《직장장동무, 우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다.》

밤. 정순의 집

철옥이가 정순이에게 산수풀이학습장을 내보인다.

《엄마...》

《응. 어디 보자. 맞았다. 자. 이번엔 이 3번을 풀어봐라.》

연필을 다시 쥐던 철옥이가 모포를 뒤집어쓴다.

《출니?》

《아니... 엄마 우린 새집에 이사 안가나?》

《엄마넌 이제야 짓기 시작한단다. 그래, 이사가는 집이 부럽니?》

《아니, 난 엄마만 있으면 추워두 일없구 배고파두 일없어.》

정순이 마음이 금시 짙해진다.

정순이가 철옥이를 꼭 껴안는다.

《철옥아, 우리 좀 참자. 이제 엄마가 가서 용선로를 가져다가 쇠물을 광광 뽑으면 그땐 밥두 나오구, 집두 나오구 고운옷두 나온단다.》

《거짓말! 그건 옛말책에 나오는거지 뭐...》

《두고보지. 철옥이가 엄마만큼 크면 그때 가선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다 알게 된단다.》

《야, 빨리 컸으면...》

《철옥아, 이제 엄마가 갔다울 때까지 할아버지 말이랑 아지미말이랑 잘 듣구 공부 잘해라.》

《응.》

《우리 철옥이가 용치...》

배낭을 들고 일어서던 정순이가 상처의 아픔에 《음》 하고 신음한다.

창고앞

달구지에 목형자재를 싣고나오던 상도의 동업자가 걸음을 멈춘다.

정순이며 용하일행이 작업도구들을 가득 실은 마차를 끌고 가고있다.

관일이며 당원들이 바래운다.

《직장장, 몸조심 하라구...》

마차뒤에서 용하가 손을 내젓는다.

《자, 들어들가시우.》

동업자에게로 기레가 슬며시 다가선다.

《수고합니다.》

《예?!...》

《여기는 어떻게 오셨소?》

《안녕하십니까? 이거 목형감이 모자랄것 같아서요...》

《그래요...》

정순이네를 바라보는 동업자의 눈길에 사나와진다.

《흥, 극성스러운년이군...》

《그러게 그년이 없을 때 빨리 처리하란말이야. 거 합금소재를 상도령감한테 넘겨준다든건 어떻게했어?》

《예, 잡도리가 다 돼엿수다.》

《꼬리뵈히지 않게 잘했겠지?》

동업자가 선웃음을 친다.

기레와 동업자가 정순이네를 향해 눈총을 쏘고서있다.

강변

얼어붙은 강반에 용선로 로체가 머리끝을 끼우뚱 내밀었다.

용선로를 꺼내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강둔덕에서 농민들이 수동권양기를 돌리고있고 강변에서는 정순이 일행이 두터운 얼음을 도끼로 깨내고있다.

땀이 비오듯하는 정순의 얼굴.

도끼를 휘두르는 용하.

드디어 정순이가 말한다.

《자. 이제 걸자요.》

용하가 재빨리 쇠바줄을 용선로 동체에 얹어낸다.

정순이가 강변에 대고 소리친다.

《당기세요...》

《예.》

농민들이 권양기를 돌린다.

그들에게 달려온 정순이가 함께 권양기를 돌리며 진심으로 말한다.

《이렇게 도와주어서 고마워요.》

《원, 그런말 마시우다. 이게 다 우리 농민들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이제 소들이 오게 되면 철길로 끌어가는데 두 문제없수다.》

《정말 올가요?》

《ներմաւիւ.չկուի ասո ակ ւի ւնաւ.լաւ աւիւն տւրմ օււա.》

정순의 얼굴이 밝게 피어난다.

용선로가 얼음속에 서 끌려나온다.

철독

용선로가 무개차판에 실렸다.

무개차에 어깨를 들이밀고 힘주어 미는 당원들과 농민들.

정순의 얼굴에 땀발이 내뿜는다.

《그만...》

굴러오던 무개차륜이 레루끝에서 멈춰선다.

용하와 한 당원이 레루를 목도하여 메고온다.

다시 이어 지는 레루...

이런 역사가 언제면 끝날것인가.

길은 아직 멀고 사람들은 지치었다.

등판

덕만이와 치수 일행이 배낭을 지고 걸어온다.

문득 덕만이가 무엇을 보았는지 걸음을 멈춘다.

《아 저기로구만...》

힘겹게 레루를 목도하는 정순이네의 모습.

덕만의 측은한 눈길이 그들의 모습을 더듬는다.

《고생들하는구만... 갑시다.》

다시 철독

덕만이 일행이 나타난다.

《직장장동무...》

《용하동무...》

치수가 정순이에게 다가선다. 정순이가 반긴다.

《아니, 치수동무가 어떻게...》

《저 집사람이 촌에 갔다가 감자를 좀 얻어왔드라니...》

《애들두 많은데 식량보탬을 하시지 않구...》

《원, 별 소릴 다.》

이리로 덕만이가 다가온다

《직장장동무.》

《아니, 덕만직장장동무가 어떻게...》

《내 광산기계에 갔다오던 길에 치수동무를 만나서...》

이때 성난 용하가 달려들어 치수에게 따지듯이 묻는다.

《아, 그런데 소를 왜 돌려보냈소?》

《아, 그... 저...》

치수가 말을 못하고 얼버무리는데 덕만이가 설명한다.

《소는 내가 돌려보냈수다.》

《예?》

놀라는 정순.

덕만의 한숨.

《내 천덕광산기계에 대형보링이 있으면 임가공 이래두 말길가 하구 갖겠는데 거기에두 없두구만요. 그래서 아무래도 못할바에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구 했지요.》

그 말에 용하가 불끈 한다.

《그런 소리들이나 하자구 예까지 찾아왔소.》

《나두 애쓰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않소.》

용하가 정순이에게 돌아선다.

《직장장동무, 우리가 갔다오겠수다.》

《아니, 용하동무...》

분해하는 한 당원.

《동냥은 못취두 쪽박은 깨치지 말했다구... 가지요.》

그가 용하와 함께 돌아서간다.

덕만이가 정순이 립장을 굳이 돌려세우려 한다.

《직장장동무, 여기서 이러구있을 형편이 못되우다.》

치수가 인차 그 말을 받아

《저, 영혜가 집을 나갔수다.》 한다.

《예?》

놀라는 정순.

치수가 편지를 꺼내어 정순이에게 준다.

정순의 입술이 피기 없어진다.

모닥불이 타오른다.

정순이가 영혜의 편지를 읽고있다.

애절하게 울리는 영혜의 목소리.

《형님, 추위는 점점 더해가는데 고생이 많으리라구 생각해요. 형님이 떠난후 여기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듣구 가슴아파할 형님을 생각하니 차마 쓸수 없구 그냥 떠나자니 가슴이 터질것만 같아요...》

영혜의 편지사연이 화면으로 펼쳐진다.

주택진설장

시엽이가 정식이에게로 다가온다.

《저 없어졌던 합금소재가 자네 장인네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정식이가 펄쩍 뿔듯이 놀란다.

《아니, 건 또 무슨 소리요?》

《생산지도원이 목형보러 갔다가 합금소재를 그 집에서 봤다는데 바른대로 말 좀 해보게나.》

《뭐요? 아니 그럼 아저씨까지 날 믿지 못해서 하는 소리요? 예?》

《아니, 믿어. 그까짓 수작질에 넘어갈 내가 아니야.》

《그럼 뭘니까?》

《내 말이 섭섭했으면 용서하라구. 하지만 나두 솔직한 말 좀 해야겠어.》

《어서 다 하십시오, 다...》

《자네가 영혜하구 인연을 맺은걸 탓하는건 아니야. 하지만 상도령감하구야 똑똑한 계선을 그어야 할게 아닌가. 무엇보다 때문에 데릴사위노릇까지 하면서 직장장까지 말밥에 오르게 하나, 응?...》

《좋수다. 나때문에 집안이 소란한데 당장 결판을 내겠수다. 당장...》

《이사람 정식이...》

정식은 시업이가 불들 사이도 없이 삽을 획내던지고 달려간다.

상도의 집

트렁크를 든 정식이 마당에 나선다.

때마침 외출했던 영혜가 들어온다.

정식의 거친 목소리.

《어딜 갔댔소?》

《내무서에 갔댔어요.》

《그래 해명했소?》

《못했어요. 양말공장 주인아저씨를 찾아가니 물건을 가져온게 낯선사람이 돼서 공민증을 보구 샀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무서에 같이 가보이니 근처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군요.》

《잘됐소!》

정식이 울분을 삭이지 못해하며 토방에 주저앉는다.

《그 문제가 해명되기전엔 다시는 이 집에 발길을 안할테요.》

정식이 벌떡 일어선다. 영혜가 그앞을 막아선다.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는게 처음이예요 뭐...》

순간 정식이 복받치는련민의 정에 영혜를 똑바로 보지 못한다. 이윽히 진정 못하고있던 정식이 《자, 오늘 찾았소!》 하고 사진을 영혜의 손에 쥐여고는 대문을 나선다.

《아니...》

뒤따라 대문으로 달려나온 영혜의 눈에 눈물이 방물방울 맺힌다.

그의 손에 쥐여진 결혼식 사진

눈물에 젖어드는 애처로운 얼굴.

여기에 영혜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형님, 저를 용서해요. 떠나기전에 형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형님을 만나면 저의 결심이 흔들릴가봐 그대로 떠나갑시다. 정식동무에 대한 저의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고 당에서 믿어준다는걸 몰라서 그러는건 더욱더 아니예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는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이 길밖에 없어요. 후날 이 땅에 사회주의가 건설되고 사람들이 모두 형님처럼 되는 그때에는 저도 다시 형님의 품으로 돌아오겠어요. 그때가 과연 언제일는지? 부디 앓지 말고 몸성히 계세요...》

편지를 읽은 정순이가 먼 산발너머를 바라본다.

한겨울 뭉툭 바람이 눈보라를 몰아온다.

덕만이와 치수가 철쭉으로 나란히 걸어온다.

덕만이가 치수에게 당부한다.

《치수동무가 좀 잘 돌봐주어야겠어.》

《예.》

정순이에게 다가오는 덕만.

《직장장동무, 내 아무래두 먼저 가봐야겠수다.》

정순이가 어수선한 마음을 강잉히 누르며 웃어 보인다.

《여기 걱정은 마시구 어서 가보세요.》

《저 내 생각에는 직장장동무가 생각을 잘못된 것갈수다. 국장한테 갔을 때 제의서를 내지 않래두 용선로를 세울 강판하구 보령같은거나 좀 달래왔으면 이런 고생을 안할게아니요. 내말를 더 안하겠는데 잘 생각해보구 뒤따라오우.》

이윽고 덕만이가 떠난다.

밤이 깊어 ...

정순이가 우등불앞에서 감자를 깎고있다.

치수가 무겁게 한숨을 쉰다.

《직장장동무, 우리 고쳐 생각합시다. 이렇게 가셔야 한달이 걸릴지 두달이 걸릴지 막연하지 않소?》

《한발자국을 가드래두 가야 해요.》

《직장장동무, 내 너무 가슴아픈 일이 돼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 공장형편이 험악합니다. 부상이 내려와서 직장장동무가 말을 듣지 않구 일을 망쳐놓구 돌아간다고 하면서 당장 철직시키겠다는겁니다. 래일아침엔 돌아갑시다. 예?》

타오르는 모닥불.

정순의 생각에 잠긴 수척한 얼굴에 불빛이 비끼였다.

밤바람이 세차지고 눈보라가 자욱히 날린다.

문득 정순의 눈앞에 남편의 모습이 떠오른다.

믿음과 못다준 사랑을 담아 뜨겁게 울리던 남편의 마지막 말이 되살아난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하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장군님만 받들어모시구 살아가요.》

정순이가 피가 진 입술을 강물며 일어선다.

순간 상처의 동통으로 《음-》 하고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지르는 정순.

치수가 놀란다.

정순은 초인간적인 의지로 우뚝 일어선다.

비장한 각오가 번뜩이는 그의 얼굴.

정순이가 무개차에 등을 들이민다.

황황히 달려온 치수가 정순의 팔을 붙잡는다.

《제발 이러지 마오. 이 몸으로 어찌자는거요? 이러다간 직장장동무가 견디어내지 못하오. 자 어서요.》

정순의 눈에서 불꽃이 된다.

그가 치수를 이윽히 바라본다.

《우리가 주저앉으면 나라가 허리를 못펴요. 수령님께 올린 맹세를 지키지 못해요!》

마침내 치수가 오열을 씹으며 정순이와 나란히
무개차에 등을 낸다.

한치한치...

차륜이 레우루로 굴러간다.

그들의 마음을 담아 노래가 울린다.

그날의 맹세 변치 말자고 심장은 고동치네
한생을 빛나게 살자고 이 길을 우리 가네
이 길에서 목숨은 버려도 맹세는 못버려

농민들이 바줄을 메고 무개차를 끌고있다.
밀다가는 쓰러지고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서
는 정순의 불굴의 모습.
넙마를 감고 새끼로 칭칭 얹어맨 투박한 발들
이 침묵을 하나하나 넘어간다.노래가 계속된다.

당이 준 심장 하나이기에 맹세도 오직 하나
뜻이 같고 마음도 같기에 가는 길 오직 하나
이 길에서 목숨은 버려도 맹세는 못버려

정순이가 농민들에게 다가간다.
《힘들지요? 좀 쉬다 갈까요?》
《뭘요. 그런데 이렇게 가긴 가면서두 언제나
끝을 보겠는지...》
《왜요? ... 이렇게 한걸음이 열걸음이 되구 열
걸음이 백걸음 천걸음이 되지요 뭐.그래서 양수
기가 나오구 이 벌판에 물이 철철 넘치게 되면
그 댐 고생한 보람이 있겠지요.》
수염이 덩수룩한 농민이 회한해한다.
《거, 아주머니 말을 듣구보니 회한한게 내 발
걸음이 다 가벼워지는것 같수다. 허허허.》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그를 정순이가 부축한
다.

《호. 좋아하다가 넘어지진 마세요.》

《허허, 자 갑시다.》

농민들이 한결 밝아진 얼굴로 화차를 떠민다.

어둠에 잠긴 광막한 대지.

저 멀리 수평선에 태양이 솟아오른다.

누리에 찬연한 빛발속으로 우리의 주인공들이
무개화차를 끌고 밀고 역세계 가고있다.

휴게실

당원들이 모여앉았다.

치수가 가슴을 친다.

《세로위원장동무, 저를 왜 가만히 둥니까? 비
판해주시우.어서 비판해주시우.》

용하가 분을 참지 못해한다..

《에익, 무슨 소리 할 하오? 그래 비판이나 받으면
속이 편할것 같소? 그런 입치레루 믿음을 저버
린 죄를 용서받을것 같은가말이요?》

관일이가 가슴아픈 심정으로 치수를 보고있다
가 무겁게 말한다.

《그게 다 직장장이 수령님께 올린 맹세를 직장

장 혼자서 한 맹세루만 생각한 탓이야.》

치수가 얼굴을 번쩍 든다.

불을 적시는 사나이의 뜨거운 눈물.

《웁수다. 날 처벌해주시우. 정말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가슴에 못쳐 돌아가는게 도무지 내
려갈것 같지 않수다.》

관일이가 낮으나 엄하게 말한다.

《치수동무. 그만 앉으라구. 회의나 열구 빈말루
자꾸 맹세만 하면 뭘해. 우리가 언제까지 회의
때마다 맹세는 맹세대루 하구 돌아앉아서는 후회
만하는 그런 당원으로 남아있어야겠나?》

잠시 침묵이 흐른다.

침묵속에 치수가 팔소매로 눈굽을 닦는다.

정순의 집

정식이가 마음의 안정을 잃고 우두커니 앉아있
다.

정순이가 들어서며 말한다.

《어서 가자!》

《어텔 간다구 그래요?》

《어디긴 어디겠니? 네 집이지...》

《내가 이제 무슨 낫을 들구 그 집엘 가요?》

정순이가 엄하게 타이른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널 보낼 때 그저 그 집에
일손이 모자라서 보내진 않았어.》

정순이가 트렁크를 집어든다.

정식이가 중얼거린다.

《가더라두 당장은 안갈래요.》

《뭘라구? 잔말말구 일어서라. 난 철옥이 아버
지가 온실의 꽃이 싫으면 들판에 옮겨심으라던게
영혜 한사람을 두구 한말이 아니라구 생각한
다.》

정순이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쉰다.

상도의 집

기래가 앞질러 와있다.

외출복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은 상도에게 기래
가 속에 없는 위로의 말을 던진다.

《요샌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많겠습니다.》

《생각해주어 고맙소.》

문득 기래가 한숨을 뿜는다.

《나두 이 집 일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수다.
집의 딸이 집을 나간걸 보면 이 집안에 검은 내
속이 있는게 틀림없다고 하면서 아 글썽 날보구
자꾸만 해명하라니...》

그 말에 그만 불끈한 상도가 벌떡 일어서서 창
고문을 활짝 열어제킨다.

《자, 뒤져볼테면 뒤져보시우.》

《어이구, 이러지 마시우. 난 이 집 일이 걱정이
돼서 알고나 계시라구 귀찮하러 찾아왔는데...》

《나야 입을 가지구두 말 못할 죄인인데 문초를
하겠으면 하구 법에 넘길테면 넘기구 마음대루
하시우, 마음대루...》

《아, 그러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허참, 공연한 오해를 해가지구, 허참...》

기태가 당황해하다가 꿈무늬를 사린다.

지금까지 잠자코있던 동업자가 상도의 눈치를 살피며 슬며시 다가든다.

《형님, 아 그래두 목형을 그냥 하시겠소? 예?》
《.....》

《내 손해볼셈치구 형님가산을 팔란 소리는 안 할테니 당장 이 도끼루 빼앗으시우.》

동업자가 도끼를 상도의 손에 쥐여준다.

상도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벌떡 일어난다.

《에익, 이 도끼루 임자의 골통을 까부시기전에 썩 물러가게.》

《아니, 차 이런... 이 형님이 환장을 했나, 이거 정말...》

동업자가 비실비실 뒤걸음치며 쫓겨간다.

용선로앞

설계도면을 받아온 상도가 두리번거리다가 직장장실쪽으로 간다.

관일이가 그가 온 까닭을 짐작하며 뒤따라간다.

직장장실

상도가 직장장실 문을 여니 정순이는 보이지 않는다.

상도가 자리를 뜨려는데 관일이가 뒤따라 들어온다.

《안녕하시우?》

《그래, 이 방 주인은 어데 갔소?》

《덕에 가겠다고 갔는데 만나지 못했나요? 하여간 여기 앉으시우.》

상도가 관일이가 내여주는 의자를 외면한다.

《앉아서 뭘하겠소. 자, 이거나 말아두슈.》

상도가 책상위에 목형도면을 던진다.

웅진 그 마음을 헤아린 관일이가 너그럽게 웃는다.

《허허, 저 나하구두 사둔이라면 사둔인데 모처럼 왔다 그냥 가시겠소? 자, 담배라두 한대 나습시다요.》

《생각 없수다.》

관일이가 담배를 말며 부드럽게 말한다.

《령감이나 내나 이젠 살만큼 살았는데 그만한 일에 노역을 사셔야 되겠소?》

《노역이 아니요. 당신들 눈으루 볼적에야 나는 나라일을 휘방한 인물인데 저런 중한 일을 그냥 맡겨서야 되겠소?》

《이러지 마시우. 령감마음이 괴로우면 우리 직장장 마음두 그만큼 괴롭다는걸 알아야지요. 우리 직장장하구 하루이를 지내봤소? 내색은 안해두 속에는 재가 까맣게 앉았을거웨다. 그러나 전쟁때나 지금이나 나쁜놈들이 벌짓을 다해두 당을

받들겠다는 한마음밖에 모르구 사는 녀인이요.》
절절한 그 말이 가슴을 찔렀는지 상도가 대꾸를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관일이가 말을 잇는다.

《나두 나이값을 못해서 잘 도와주지 못하는데 사둔님까지 뻔히 아는 주정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소? 내 도면을 가져왔더라는 말은 입밖에 두 내지 앓을테니 제발 도로 가져가시우.》

상도가 긴숨을 내쉰다.

어느덧 주름잡힌 눈가에 이슬이 맺혀든다.

상도의 집

상도가 생각이 많아서 걸어온다.

집앞에 이른 그는 불이 켜져있는것은 보고 의아해하며 걸을 멈춘다.

한참 서있던 그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부엌문으로 조용히 다가간다.

문을 열고 말없이 안을 들여다본다.

저녁밥을 짓던 정순이가 인기척에 머리를 든다.

《아이 ... 어서 들어가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정다웁건만 상도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내 그 마음을 모르는바는 아니요. 허지만 내 집에 발길을 해서 리로울게 없으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시우.》

그러나 정순은 웃는 얼굴로 대하며 밥을 짓는다.

이윽도록 바라보던 상도가 말없이 방안으로 들어간다.

벽시계가 10점을 친다.

상도가 자리에 앉아 줄담배를 피운다.

시계종소리에 머리를 돌리는 상도.

그의 마음은 착잡하다.

정순이가 밥상을 차려들고 와서 상도에게 권한다.

《아이, 저녁이 너무 늦어졌구만요. 어서 드세요.》

했으나 상도는 덤덤히 마주볼뿐이다.

《사둔님, 너무 걱정 마세요. 영헨 곧 돌아올거예요.》

아버님이 공장에 나오시면 저두 당에 들수 있다구 그렇게두 기뻐하던걸...》

정순의 목소리가 갈리는것을 보고 마침내 상도가 입을 연다.

《내 한가지 묻겠소. 사둔님은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강쇠처럼 됐소? 혼자 살면서두 설움을 모르구... 당원들은 다 그렇소?》

그 소리에 정순이 머리를 들고 상도를 바라보다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며 말한다.

《저두 괴로울 때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부닥쳐도 먼저 일어서야 하는게 우리 당원들이 아니겠어요. 그렇기때문에 수령님

께서는 우리 당원들을 믿으시구 어려운 일을 맡겨주시고 우린 수령님께서 믿어주시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한가지 생각만을 안고 살아가는거예요.》

정순이의 말마디가 모래에 스며드는 물처럼 상도의 가슴을 적신다. 커다란 충동을 안은 상도의 눈이 뜨거움에 젖어 빛난다.

검은 구름장을 헤치며 둥근달이 헤엄쳐나온다.

언덕길

정순이 눈덮인 언덕길을 넘어오고있다.

정식이와 철옥이가 마주온다.

먼발치에서도 그들은 정순이를 알아본다.

정식이가 《누님이요?》 하며 걸음을 재우치자 철옥이가 《엄마!》 하고 소리친다.

그들은 손목을 잡고 마주 달려온다.

《아, 어데 갔었어요?》

《자지 앓구 이렇게 나왔니?》 하는 정순의 목소리는 부드럽다.

정식이가 벅글거린다.

《국장동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국장동무한테서?》

《영혜가 평양에 가있다는구만요.》

《뭐?!》

《락원을 잊지 못해서 우리가 만든 기증기를 운전하면서 신문에까지 냈다나 뭐.》

《정말?!》

정순이가 어리둥절하여 정식이를 쳐다본다.

정식이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여준다.

정순은 편지봉투를 뜯으려다 도로 접는다.

그 순간 상도가 생각났던것이다.

《아니, 그럼 아버지한테 먼저 알려야겠구나.》

《예.》 하며 정식이가 뒤더수기를 굽는다.

《빨리 가자!》

《엄마 나두!》 하며 철옥이가 어머니의 치마폭을 잡는다.

《오, 뭐자!》

오던 길로 급히 돌아서는 정순이와 일행.

주철직장앞

손달구지에 목형을 싣고 공장에 나온 상도를 둘러싸고 모두들 즐겁게 웃는다.

그중에서도 관일이 더욱 기쁘듯

《정말 잘 생각했수다. 정식이하구 영혜가 얼마나 기뻐하겠소. 하하...》 하고 사람들을 둘러본다.

함께 즐겁게 웃던 정순이 목형을 목도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좀 쉬세요.》 하며 목도채를 잡는 정순.

《어이구, 그만두시우.》

《영혜아버님이 만든건데 제가 좀...》

《예. 그렇다면 한번 메보시우. 하하...》

정순이 시엽이와 함께 목형을 메고 기쁜 마음으로 걸음을 땀다.

한참 걸어가던 시엽이가 《직장장동무!》 하고 건너다본다.

《예.》

정순이 그를 마주본다.

《내, 영혜 아버지에게 대해서 잘못 생각했었수다.》

《시엽동무두 참...》

잘못을 뉘우친 시엽이를 바라보는 정순이의 가슴은 뜨겁다.

이때 《직장장동무!》 하고 찾는 소리.

《예.》

《수고하웨다.》

덕만이가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온다.

목형을 내려놓은 정순이 이마의 땀을 훔친다.

《아니, 가공직장장동무가 어떻게?...》

《우리 손으로 보링을 만들게 했수다.》

《보링을 만들다니요?》

《내 지금껏 주철동무들이 수령님께 올린 맹세를 우리모두의 맹세라구 말은 하면서두 실천에 옮기지 못했었수다.》

내 그 이야기를 우리 동무들에게 했더니 주철 직장동무들이 용선로를 끌어오는 식으로 해보자고 의논하던 끝에 (같이 온 조립공한테서 설계도면을 넘겨받으며) 이렇게 양수기치수에 맞게 단능설비를 만들어낼수 있다는 타산을 세웠수다.》

정순이 기뻐한다.

《정말 고마워요.》

《거 정말 멋진 생각을 했수다.》

시엽의 말에 덕만이가 성수나 한다.

《해봅시다. 주축합하구 가공부분을 우리가 맡을테니 주철에서는 벳트만 부으시우.》

《그건 우리가 해요.》

정순의 활기띤 대답에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흥성거린다.

덕만이가 웃기는 말을 한다.

《예, 이렇게 쉽게 풀리는걸 공연히 고민하면서 너편네한테 구박받던 일을 생각하면 하하...》

마주보던 원너가 밋지 않게 눈을 흘기자 또다시 웃음판이 터진다.

정순이가 노동자들에게 호소한다.

《자, 동무들, 오늘은 기쁜 날인데 일찍 식사를 하구 나와서 출선작업을 하자요.》

《예.》 하며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호응해나선다.

주형장

관일이 쇠물바가지를 운전해가고있다.

당원들의 뜨거운 마음인양 쏟아지는 쇠물폭포. 힘찬 노래가 울린다.

세찬 눈보라 천리길을
결심품고 헤쳐왔네
불보라도 뜨거운 마음
불은 쇠를 끓여가네

천만번 쓰러져도 언제나 한마음
당이 바라는 한길로 우리는 가리라

노래를 타고 화면이 흐른다.
-당원들이 쇠물을 받아 주형틀에 붓는다.
-힘있게 쇠장대들 놀리는 용하, 시엽.
-다짐작업에 여념이 없는 노동자들.
-당원들의 희열에 찬 모습.

이 땅에 포성 멎어도
행군길은 험난하네
가야 할 길 천만리라도
우리 심장 붉게 타네
천만번 쓰러져도 언제나 한마음
당이 바라는 한길로 우리는 가리라

-노동자들과 함께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정순.
-양수기주형틀에 쇠물이 쏟아진다.
-이글거리는 쇠물바가지.

사락장

용하와 사락공들이 사면에서 진동기로 양수기체의 모래를 털고있다.

정순이와 관일이 긴장하여 지켜본다.
덕만이와 가공직장노동자들도 와있다.

기대공이 《용케 주물했는데.》 하며 다른 기대공을 바라본다.

《역시 주철이 제끼긴 제깍니다.》 하며 다른 기대공이 덕만이를 본다.

덕만이가 웃음짓는다.

상도와 정식기도 흐뭇해서 바라본다.

이때 지배인의 뒤를 따라 관리일군들과 직장장들이 들어선다.

즐겁게 맞이하는 사람들.

뽀얀 먼지와 귀청을 때리는 진동기의 소음속에 양수기체가 점점 형체를 드러낸다.

기대들 안고 가슴을 조이는 정순.

진동기를 휘두르던 용하의 눈이 둥그레진다.

《가만, 기포가?!...》

기태가 다가가더니 보라는듯이 지배인에게 낮을 돌린다.

《기포라니?》

하며 지배인이 기대여 용하를 마주본다.

놀랍게 바라보는 용하, 시엽, 정순.

《아니 어떻게 된거야?》 하며 시엽이가 실망한다.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정순이가 다가가며 용하에게 묻는다.

기태가 무엇을 발견한듯 허리를 낮춘다.

《여기두 기포가 생겼구만요.》

《예?!》

커다랗게 뚫린 기포구멍이 정순이의 시야에 안

겨온다.

어찌할바를 모르고 굳어지는 정순.

지배인도 실망해서 바라본다.

《기포가 생기다니?...》 하며 덕만이도 맥을 놓는다.

까딱않고 지켜보던 지배인의 얼굴에 쓴웃음이 스쳐지나간다.

《내 이렇게 될줄 알았소. 하필이면 부상동지가 내려와있을 때 오작을 낼건 뭐람. 후- 갈수록 험산이라더니... 직장장동무, 거 관계자들을 다 데리구 내 방으로 오시오.》

쌍 가버리는 지배인.

기태가 따라서며 한마디 더 한다.

《처음하는 일이니까 골치거리가 한두가지 아니군요.》

용하가 주먹으로 양수기체를 친다.

《에익, 분통이 터져서...》

사락장에 모여 흥성이던 사람들이 하나 둘 헤쳐진다.

지배인실

정순이가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앉아있다.

부상이 관대한 표정으로 지배인에게 말한다.

《하찮은 일을 가지구 너무 신경쓰지 마오.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실수에 있는게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공업수준과 관계되는게요. 난 이 길루 내각에 올라가서 진상을 그대로 보고하겠소...》

정순이며 당원들이 말없이 듣고있다.

《...동무들두 진정으루 나라의 시책을 받드는 립장이라면 이제라도 당이 옳바른 결심을 할수 있도록 잘 도와야 할것ियो. 알겠소?》

침묵이 흐른다.

커다란 자책에 잠겨있던 정순이가 조용히 일어선다.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그렇지만...》

《직장장!》

부상의 성난 목소리가 정순의 말을 작두날처럼 잘라버린다.

노려보는 부상의 적의에 찬 눈빛.

《동문 고집이 보통이 아니구만.글쎄 자책하는 것은 좋은데 스스로 자기자신을 죄인으로 만들 필요는 없소.》

부상은 서둘러 가방을 쥐고 문가로 간다.

《의견있습니다.》

그 소리에 부상이 《뭐요?》하며 자리에서 일어선 시엽이를 노려본다.

《아, 됐소. 부상동지가 떠난 뒤 또 토론합시다. 부상동지! ...》 하며 지배인이 어쩔줄 몰라한다.

《저 차시간이...》

《음, 서둘러야겠구만... 그럼 잘 토론하시오.》

부상이 나가는데 기태가 짝듯이 인사한다.

씨근거리고있는 시엽의 옆에서 생각깊이 서있는 정순.

사라장

오작난 양수기체 주변을 정돈하고있는 정순에게 지배인이 다가온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순동무, 저 나 좀 봅시다.》

《네.》

지배인이 느슨한 웃음을 띠운다.

《부상이 관대하게 봐줄 때 하자는대로 합시다.》

정순이 의아하게 쳐다보며 《뭘말입니까?》 한다.

《지금 형편에서 우리의 힘으루 양수기를 만들수 없다는 제의서를 제출하라는게요. 관계자들의 수표를 첨부해서...》

《네?》

정순은 그제야 부상의 진속을 알고 어처구니없어 한다.

《어찌겠나 응? 그렇게 하는수밖에...》

《지배인동무!》

《다 듣구 말하오. 억지공사로 주물해가지구 오작을 내놓구는 무슨 할 말이 있소?》

《오작원인이 다른데 있는것 같은데 한번 더 해 봐야겠어요.》

정순이의 눈빛이 하나의 결심으로 빛난다.

《아, 거 고집하지 마오. 영?》

단호히 말하는 정순.

《고집이 아니예요. 우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양수기를 만들테니 못한다는 제의서는 제발 내지않게 해주세요.》

《되지두 앓을걸 가지구 나 참... 하여간 잘 생각해보오.》

지배인이 피하듯 자리를 뜬다.

용선로앞

제의서문제를 놓고 말이 있던듯 관일이 용하를 바라보며 말한다.

《지배인이야 부상한테 붙어사니 그럴수밖에.》

《정 그러면 우린 우리 식대로 냅다밀구 나갑시다.》

용하와 원녀 등 당원들도 공감하는 표정이다.

이때 《수고들하십니다.》하며 기태가 다가온다.

《아이구, 여기들 계시는걸...》

기태가 들고 온 문서장을 작업대우에 놓으며 《자, 어서 읽어보구 수표들이나 하십시오.》 한다.

《그게 뭐요?》

용하 다가간다.

큼직한 공인이 찍힌 제의서가 용하의 눈에 확 안겨온다.

《제의서?...》

당원들이 서로 마주본다.

정순은 심각히 바라보고 섰다.

《아, 거 뭐 오래 생각할게 있습니까?》하고 기태가 당원들을 둘러보며 독촉한다.

《옳수다. 오래 생각할게 없소.》

용하 제의서를 땅바닥에 떨구고 쇠장대를 박는다.

기태가 억이 막혀 소리친다.

《아니, 이사람이, 저 저 이 사람이?!》

순식간에 불타버리는 제의서.

기태가 기세등등해서 웨친다.

《법이 무섭지 않소? 그래 국가공문서를 모독하구 편안할줄 아오?》

《여보, 법보다는 주먹이 더 가까운게요.당신까지 로에 처넣기전에 당장 물러가는게 좋겠소.》

용하가 기태를 보며 으름장을 놓는다.

옆에 있던 당원이

《여보, 우리가 언제 양수기를 못만들겠다고 했소?》하며 쏘아본다.

기가 꺾이며 중얼대는 기태.

《이 동무들이...》

《여보!》

당원들이 무섭게 쏘아보자 분위기를 감촉하고 벌벌는 기태.

《아니. 이거 왜들 이러시우? 아, 나야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무슨 죄가 있다구...》

뒤걸음치던 기태가 철관에 걸려 벌렁 나자빠진다.

당원들이 통쾌하게 웃는다.

기태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줄행랑을 놓는다.

더욱 높아지는 웃음소리.

그러나 정순은 생각이 깊어진다.

저리

출근길에 오른 정순에게 원녀가 달려온다.

《직장장!》

숨이 차서 말하는 원녀.

《지배인이 끝내 생산지도원한테 제의서를 쥐여 올려보냈다는만,》

《누가 그래요?》

《우리 애 아버지가 그러는데 방금전에 역전으로 가는걸 봤대.》

《네? 아니...》

초조한 정순의 마음에 키질하며 기적소리가 들려온다.

역홈

증기를 뿜으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관차.

려객렬차가 구내를 벗어난다.

두주먹을 쥐고 달려오던 정순이 못박힌듯 서버린다.

멀리 사라지는 렬객렬차.

역앞

맥이 풀려 일어나오던 정순이 길게 울리는 기적소리에 돌아서며 피로움에 모태긴다.

지배인실

지배인앞에 온 정순이 안타까이 말한다.
《지배인동무, 정말 너무하십니다.》
《뭐가 너무하다는거요?》
《이제라두 전화를 걸어 제의서를 취소하게 해주세요.》
《그건 안되오. 부상의 지신데.》
정순이 한발 다가선다.
《지배인동무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지배인동무도 수령님의 안녕을 바란다고 하지요?》
정순의 눈총에 지배인도 마주 일어선다.
말을 잇는 정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누구나 다 지배인동무처럼 어려운 일에 부닥치기만 하면 제의서를 올려 일을 험하게 할 생각만 한다면 그제 진심으로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립장일가요?》
《그래 제의서를 내지 않으면 당장 양수기를 만들 방도가 있소. 방도가?》
《우린 방도를 찾았어요.》
그러나 지배인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는다.
《단능설비말이요? 그래 그걸루 이 재더미에서 양수기가 나올것 같아서 그러요? 양수기가?》
신심에 넘쳐 말하는 정순.
《나와요.우리를 믿으세요.》
지배인이 정순을 외면하고 돌아선다.
《흥, 믿는것두 정도가 있지. 물에 빠진 사람은 질오래기를 잡는다는데 그래 우리한테 그거나마 있소? 예? 말해보요.》
지배인의 련속공격에도 침착성을 잃지 않는 정순.
《그렇지만 우린 비판하지 않아요, 우린 일제놈들이 마사놓은것두 복구해보구 미국놈들하고두 맞서 싸워보구 원썌놈들이 아무리 마사놓았어두 수령님만 계시면 된다는 신심을 얻었어요.》
지배인이 말머리를 돌린다.
《하여간 부상동지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전 부상동무가 어떻든간에 상관 안하겠어요. 수령님께 제의서만은 못올려요.》
《안되오!》
하는 지배인의 목소리가 정순이의 가슴에 아프게 박힌다.
정순은 결심한듯 전화기앞으로 다가선다.
《여보세요!》
황황히 달려와 수화기를 나꿔채는 지배인.
《정신있소?》
지배인이 전화기 절단기를 급히 누른다.
《지배인동무!》
정순이가 수화기를 놓지 않은채 안타까이 부르

짚는다.

구내길

눈보라가 일기 시작한다.
눈가루를 날리는 구내길로 걸어가는 정순.
그의 심정을 담아 노래가 울린다.

따뜻한 햇빛안고 피어난 한떨기 꽃송이
비바람 눈속에 묻혀도 그 햇빛 따르네
언제나 그날의 맹세 가슴에 안고살리

노래를 타고 흐르는 화면

-생각깊이 걸어오는 정순.
-정순의 앞길을 휩쓰는 눈보라.
-숫눈에 찍힌 정순의 발자국.
선전실창가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
-전쟁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세포회의를 하던 그 자리에 까딱않고 앉아있는 정순의 뒤모습.
정순은 자책에 잠겨 회의록을 펼쳐간다.

다시 울리는 노래

붉게만 피는 꽃이 되라고 안겨준 그 사랑에
한몸바쳐 보답하자고 불타는 이 마음
언제나 그날의 맹세 가슴에 안고살리

노래를 타고 흐르는 화면

-세포회의록.
-정순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
-말없이 들어서는 당원들.
-정순이가 인기척에 눈굽을 닦는다.
-정순의 심정을 헤아린 당원들의 눈에도 물기가 어린다.

선전실마당

승용차가 서서히 벗어선다.
영혜가 차에서 내린다.
뒤따라 내리는 국장 병수.
영혜가 《고맙습니다.》 하고 앞자리에 앉은 당중앙위원회 부장에게 인사하자 《예.》 하며 부장이 인사 받는다.
병수가 부장을 바라보며
《우리 동무들을 만나보구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한다.
《그렇게 하시오.》
밥보자기를 들고 문앞에 서있던 철옥이가 달려와 영혜에게 안긴다.
《철옥아!》
《아지미!》

선전실안
병수가 방에 들어선다.

정순이와 관일을 비롯한 당원들이 병수가 나타난 것을 보고 꿈이 아닌가 싶어 멍청히 마주본다.

《동무들!》

《국장동지!》 하며 시엽이가 다가간다.

《보고싶었습니다.》

용하의 목소리가 갈려나온다.

관일이 젖어드는 눈을 습벅거리다.

병수가

《아바이!》 하고 다정하게 부른다.

《사람두, 올려거든 좀 더 일찍 오지 못하구…》

《용서하시우. 중요한 문제가 돼서 결론두 받구 당중앙위원회 부장동무하구 같이 떠나오느라 구…》

《그래!》

《예. 정순동무!》

병수가 정순의 손을 꼭-그런친다.

《얼마나 고생들을 했소.》

《어떻게… 갑자기 오셨나요?》

《좀 일이 있어서》

정순이 눈길을 떨군다.

《수령님께서 제의서를 보시구, 걱정하셨지?》

그 어느 한순간인들 잊을수 있었던가.

꿈결에도 마음에 걸려 몸부림쳐온 정순이었다.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는 그 깨끗한 마음이 정순이의 그 한마디 물음에 모두 담겨 있었다.

뜨거운것을 삼키는 병수.

《정순동무, 그 제의서는 보류시키구 올리지 않았소.》

《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순에게는 그 말이 꿈결에서처럼 울렸다.

제의서를 올리지 않았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히야- 됐구나!》

시엽이가 감격하여 소리친다.

기쁨으로 설레이는 당원들.

모두의 시선이 병수에게 쏠렸다.

《사실은 영혜동무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지요.

<건설신문>에 사진이 난걸 보구 이게 웬일인가 해서 한번 가보려던 참에 먼저 찾아왔더군요.》

관일이가 병수에게 자리를 권한다.

자리에 앉으며 말을 잇는 병수.

《그래서 영혜동무한테서 전번에 직장장동무가 성에 올라왔다가 내려온 일이랑 또 공장에 좋지 못한 움직임이 있다는 사연을 죄다 알게 됐지요.》

미덥게 바라보는 관일이의 눈길.

《그래 이번엔 생산지도원이 가져온 제의서를 가지구 당중앙에 들어가서 다 보고드렸소.》

《음…》

하며 관일이 만족하여 병수를 바라본다.

마침내 정순은 만시름을 다 잊은듯 기쁨의 눈물을 머금는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깨끗한 량심의 눈물이었다.

《우린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같이 고생한 국장동무가 다르군요. 국장동무는 지금도 락원의 당원이예요.》

기쁨을 금치 못해하는 정순이를 보고 병수도 젖은 눈을 습벅거리다.

당원들의 얼굴에 떨기떨기 피어나는 행복의 웃음꽃.

《됐수다.하하…》 하며 용하가 동무들을 둘러본다.

《됐네 됐어!》 하며 치수도 맞장구를 친다.

《시엽동무!》

시엽이도 가슴속 진정을 터놓는다.

《예, 이젠 정말 한시름 앓수다. 하하…》

병수가 생각난듯 출입문쪽을 바라본다.

《참, 영혜동무두 같이 왔소.》

《영혜가?》

하는 관일의 말에 정순이가 출입문쪽을 바라보며 《예?!》 하고 놀란다.

영혜가 철육의 손목을 잡고 들어선다.

당원들의 뜨거운 눈길에 영혜를 애무한다.

노래가 울린다.

시련의 날에도 서로 한마음

행복한 날에도 서로 한마음

수령님 받들어 기쁨드리며

참다운 동지로 우리는 사네

노래를 타고 흐르는 화면

-영혜를 반겨맞는 당원들.

-영혜가 정순의 품에 안긴다.

-뜨겁게 바라보는 관일과 병수.

-정순의 얼굴에 떠도는 행복의 미소!

백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이

천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이

수령님 뜻으로 사는 이 마음

참다운 동지로 우리는 사네

아-아-

노래를 타고 흐르는 화면

-나무가지에 곱게 핀 눈꽃.

-마당으로 당원들이 걸어나온다.

-장쾌한 해돋이가 시작된다.

-아침해살을 받으며 활기있게 걸어가는 당원들
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영혜.

-구내길로 다정하게 걷는 당원들.

강기슭

정식이와 영혜가 눈덮인 강가로 미끄러져내린다.

그들의 순결한 마음인양 아직은 그 누구의 발

자옥도 새겨지지 않은 강변으로 정식이와 영혜가 걸어간다.

얼음지치기를 하던 정식이가 얼음판우에 넘어진다.

달려가 일으키던 영혜도 함께 넘어진다.

그러나 그들은 얼른 일어설 생각을 안한다.

온 세상 천지가 모두 자기들의것인듯.

유쾌하게 웃는 정식이와 영혜.

먼저 일어난 정식이가 영혜의 손을 잡는다.

정식이가 웃으며 영혜의 손을 잡고 돌린다.

얼음우에 미끄러져 돌아가는 영혜.

《아이, 누가 보겠어요.》

꼭게 흘기는 영혜.

《허… 보면 뭐라고? 자 가세요.》

정식이 성큼 걷는다.

깔깔 웃으며 따라가는 영혜.

그들이 손목을 잡고 둔덕에 올라선다.

가슴뿌듯하여 대지를 둘러보는 정식이와 영혜.

그 어디든 소리치며 달려가고싶은 마음이다.

《여보, 생각나오? 내가 집의 선반기를 내오라고 하던 일이… 엉?》

영혜가 정찬 눈길로 바라보며

《온실의 꽃이 아니라 세찬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들꽃이 되라고 하던 때 일 말이지요?》한다.

《그런데 이젠 아버지까지 로동계급이 되구…》

감회깊은 정식이의 목소리.

《그새 날 몹시 원망했지?》

《아니요. 제 앞길 하나도 제힘으로 개척할 생각을 못한 제 잘못이었지요 뭐… 참. 저 합금소재는 찾았나요?》

《다른데서 구했소. 합금소재사건두 그렇구, 어떻게 해서나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을 찾아내야 해.》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그 생산지도원이란 사람이 어딘가 좀 수상하대요.》

《응?… 눈을 밝히자구. 우리의 행복두 계급투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소.》

그들은 생각깊이 걸어간다.

행복에 대하여, 투쟁에 대하여, 앞날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지배인실

지배인파 로임부장, 기태 등 관리일꾼들이 모였다.

병수와 함께 앉은 당중앙위원회 부장이 지배인을 엄하게 쏘아본다.

《지난날의 종파적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양봉음위하던 부상은 철직됐습니다. 출세욕과 패배주의에 물젖어 개인의 권력에 굴종한 지배인동무의 죄행도 용서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에서는 여기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뉘우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로동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파오를 씻으시오.》

지배인이 천천히 일어선다.

그러나 뗏뗏치 못한 지난날로 하여 그는 얼굴을 들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고목나무

세상을 다 산 고목.

봄이 온들 비가 온들 어찌 움트기를 바라랴.

나무밑에서 만난 기태와 동업자.

동업자가 기태에게 말한다.

《그래 떠나시켰소?》

《그 양수기를 하늘에 날려보내군 인차 떠나야지.》

《그쯤이래두 해야 그년의 총에 잘못된 처남두 눈을 감을겁니다.》

《내가 실패하구 죽는 한이 있어두 너만은 불지 않을테니 끝까지 남아서 그 양수기를 못나가게 해야 해!》

동업자가 기태를 빠끔히 쳐다본다.

말을 잇는 기태.

《그게 나가는 날이면 네가 바라는 세상보다 공산주의사회가 더 빨리 온단말이야.》

《예.》

독기서린 기태의 눈동자.

《너도 상도령감을 따르는 척하구 공장에 깊숙이 배겨라.》

《알겠습니다.》

양수기조립장

정식이와 조립공들이 총조립전투를 벌렸다.

연마기가 양수기 본체를 보기 좋게 다듬어가고 있다.

힘있게 지레대질 하는 정식.

휴식종소리가 울린다.

《아바이! 식사를 하구 합시다.》

덕만이가 관일에게 말한다.

일손을 놓는 관일.

덕만이가 아직 알고있는 정식이를 재촉한다.

《여, 정식이! 식사를 하구 하자.》

《예.》

정식이 일손을 놓고 자리를 뜨는데

《저… 이거 보라요.》하며 기중기운전실에서 영혜가 밥박을 내민다.

《오, 가지고내려오라.》

정식이 손씻는 시늉을 해보이자 영혜가 머리를 끄덕인다.

그가 밥박을 들고 계단을 내려온다.

영혜가 손을 씻고있는 정식에게 조용히 다가와 밥박을 내민다.

《수고했어요.》

《응, 거기다 놓아.》

《저… 생산지도원이란 사람이 할 일이 없이 양수기주변을 살피다가군 하는게 아무래두 수상해요.》

《응?》 하며 돌아보는 정식.
 《춤전에 두 왔다갔어요.》
 《그래?》
 《단단히 눈을 밝히는게 좋겠어요.》
 《여보. 거... 저녁에 올 때 술하구 안주를 가지구 나와!》
 그 소리에 영혜 놀란 눈길로 바라본다.
 《아니, 조심하라는데 술은 또 뭐예요?》
 정식이 우정 엄하게 말한다.
 《가져오라는데!...》

주철직장

정식이 술병과 안주찌꺼기들을 널어놓고 양수기결에서 자는척하고있다.
 -이윽고 뒤에서 기래가 나타나더니 정식에게 살금살금 다가와서 코로 냄새를 맡는다.
 더 크게 코를 고는 정식.
 바라보던 기래가 살그머니 다가앉으며 정식의 어깨를 흔들어본다.
 《정식이!》
 대답이 없자 기래는 마음놓고 가슴에 품고 온 시한탄을 꺼내 양수기에 넣는다.
 순간 정식이 벌떡 일어나며 벼락같이 달려들어 주먹을 안긴다.
 불의의 타격에 나가 넘어진 기래가 인차 자기를 수습하며 달려든다.
 《개새끼!...》
 드센 주먹을 안기는 정식.
 《합금소재두 네놈의 새끼 작간이지?》
 《그렇다. 개새끼!》 하며 기래가 가슴에 품었던 칼을 꺼내들고 다가온다.
 긴장한 순간이 흐른다.
 이때 영혜, 정순, 안전원들이 달려온다.
 《꼭잡 말앗!》
 안전원들의 벽력같은 소리에 넋을 잃은 기래.
 그가 독기를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쥐였던 칼로 제 배를 찌르고 신음하며 넘어진다.
 증오에 찬 눈길로 바라보는 정순이와 정식, 영혜.
 정순이 정식을 바라보며 말한다.
 《이놈이 우리가 싸죽인 안대식의 매부란다.》
 《그래요? 이놈의 새끼들을!...》
 정식이 이를 간다.

양수기시험장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환성을 올리는 당원들과 로동자들.
 마주잡고 돌아가는 시업이와 덕만.

설화

《간고한 겨울이었다. 이 겨울에 우리의 주인공들은 그 한결음한결음에 피어린 자옥을 남기며 재더미우에서 마침내 첫 양수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투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렬안에 깊이 숨은 계급적원썬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

진에 장애를 조성하고있었다.》

설화를 타고 흐르는 화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정순이와 당원들.
 -좋아하는 사람들속에는 독기를 품고 바라보는 동업자의 얼굴도 보인다.
 -넘쳐나는 물줄기.

선전실안

창문으로 살구꽃이 핀 공장구내가 보인다.
 정색하여 앉아있는 당원들의 모습.
 그들은 지금 당회의를 하고있는것이다.
 관일이 회의를 지도하고있다.
 《그럼 첫째문제 토의는 그만 그치구 두번째문제로 넘어갑시다. 다른 의견들이 없소?》
 관일이 당원들을 둘러본다.
 《없습니다.》
 당원들이 한결같이 대답한다.
 《다음 문제는 오영혜동무의 입당심의요.》
 당원들이 기쁨에 넘쳐 서로 마주본다.
 《원녀동무, 나가서 영혜동무를 데려오시오.》
 원녀 《예.》 하며 조용히 문쪽으로 나간다.

선전실밖

영혜가 아버지와 함께 서있다.
 다가오는 원녀.
 그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난다.
 《영혜, 들어 가자구.》
 《예...》 하며 영혜가 아버지쪽에 눈길을 준다.
 《어서!》
 상도 대견하여 딸을 본다.

선전실안

영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선다.
 문건을 꺼내던 관일이 《영혜동무!》 하고 부른다.
 당원들의 미더운 눈길을 받으며 영혜가 관일이에게로 다가간다.
 《입당청원서를 읽으시오.》
 《네.》
 영혜가 감격에 목메인다.
 얼마나 서고싶던 영광의 자리인가.
 얼마나 지니고싶던 당원의 칭호인가.
 나의 모든 운명을 당에 의탁하고 한생을 빛나게 살리라.
 영혜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입당청원서를 읽지 못한다.
 《어서 읽어라.》
 《입당... 청원서 저는...》
 이때 문기척소리.
 한 처녀가 출입문을 조용히 열며 관일에게 소곤거린다.
 《관개건설장에서 직장장동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관계건설장에서?》

《네.》

관일이 정순을 바라보며 《직장장동무, 전화를 받으시오.》 한다.

정순이 일어서 나간다.

《토의를 계속합니다.》

관일이 당원들을 둘러본다.

직장장실

전화를 받는 정순.

《네? 통수식을 해야겠는데 양수기가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시운전을 하구 보냈습니다. 예. 끝하겠습니다.》

들길

화물자동차가 전속으로 달려온다.

운전칸과 적재함에 갈라앉은 정순이와 10명 당원들의 초조한 모습.

덕만이와 상도도 함께 탔다.

통수식장밖

수천명의 관계건설자들과 농민들이 양수장에 모여들었다.

여기로 화물자동차가 다가와 급정거한다.

적재함에서 뛰어내려 급히 걸어오는 정순이와 10명 당원들.

《직장장동무, 빨리.》 하고 관일이가 정순이를 보며 서두른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준다.

양수장안

양수장안에 들어서던 정순이와 당원들이 굳어진다.

해체해놓은 양수기가 그들을 마중하였던 것이다.

간부들과 기술일꾼들이 말없이 서있다.

당중앙위원회 부장이 정순이들에게 묻는다.

《국장동무는 암해책동이 있는것으로 보는데 동무들 생각엔 어떨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혹시...》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린다.

정순은 말하다 말고 그쪽을 바라본다.

교환수가 부장에게 알린다.

《부장동지, 정부교환에서 찾습니다.》

부장이 옷매무시를 바로하며 다가와 전화를 받는다.

《네.》

전화기에서 울려나오는 우렁우렁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

《아, 부장동무요?》

《네, 박철산이 전화받습니다.》

긴장하게 바라보는 당원들.

《그래 무슨 일이 생겼소?》

부장이 송수화기를 든채 말씀드리지 못하고 망설인다.

《내게 숨길 생각 말구 다 말하오.》

《공장에서 시험조작까지 해보구 온 양수기가 여기 와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음- 있을수 있는 일이지. 그래 동무들 견해는 어떨소?》

《암해책동이 있는것 같습니다. 일부 다른 견해들두 있긴 합니다만...》

팽팽하게 긴장된 분위기.

병수가 가까이 다가선다.

수령님의 말씀.

《다른 견해라는건 어떤 견해요?》

부장이 대답올린다.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시기상조라... 우리가 아직. 그런걸 만들기에 는 이르다 그 소리겠지?...》

당원들이 천천히 전화기앞으로 다가온다.

계속되는 수령님의 말씀.

《물론 전쟁의 상처도 채 가지지 못한 우리의 공업수준이 아직 어린것만은 사실이요. 그렇다구 우리 당이 로동계급의 강직한 의지를 믿구 농업두 동시에 밀고나가자구 결심한것이 잘못이겠는가,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송수화기를 받쳐든채 긴장하게 서있는 부장.

《거기 락원에서 온 당원동무들이 있소?》

당원들이 긴장하여 서로 마주본다.

《네, 있습니다.》

《바꾸시오.》

《알겠습니다.》

부장이 천천히 수화기를 내리며 정순을 바라본다.

《직장장동무, 어서 받으시오.》

승엄한 감정에 싸인 정순이 천천히 전화기앞으로 다가선다.

송수화기를 잡은 그의 손이 떨린다.

《직장장 리정순이 말씀 받습니다.》

수령님의 말씀.

《아, 정순동무로구만, 목소리가 귀에 익소. 전쟁때 세포회의에서 내게 큰힘을 주던 그 목소리가 틀림없구만. 하하하...》

《수령님!》

수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름없는 한 전사의 목소리까지 잊지 않고 계시다니.

수령님께서 아셔야 할 이름이 천이던가 만이던가.

걱정에 휩싸인 정순이와 당원들.

수령님의 말씀.

《그래 동무들 생각에는 어떨소? 내가 동무들을 믿구 수리화를 하자구 결심한것이 잘못이 아니겠지요?》

정순이 정중히 대답올린다.

《수령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린 누가 뭐라구 하더라도 양수기를 꼭 고쳐놓겠습니다. 당의 로선을 지키겠습니다.》

《좋소. 통수식을 제시시간내에 보장할수 있단말이지.》

《네,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하겠습니다.》

《고맙소. 난 동무들이 꼭 성공하리라고 확신하오!...》

정순의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마구 흘러내린다.

이보다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이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수령님의 말씀.

《그때 우리 같이 세포회의를 하던 동무들이 다 왔소?》

《네, 다... 왔습니다.》

당원들의 얼굴에 감격의 파도가인다.

《다 왔다?... 동무들이 수고했소. 큰일을 했소. 난 오늘 동무들에 대한 얘기를 듣구 또다시 전쟁을 이긴것만큼이나 큰힘을 얻었소. 오늘은 우리가 비록 남들보다 뒤떨어졌지만 그들보다 앞서 공산주의문어구에 들어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소...》

조용한 장내에 수령님의 말씀이 뜨겁게 울려온다.

《정순동무, 동무가 아직두 전쟁때 몸에 박힌 파편을 그대로 가지고있다는데 몸을 돌보면서 일을 하오. 그렇게 애쓰다가 이 땅에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날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누구보다두 네가 더 가슴이 아플게요.》

《수령님 일...없습니다.》

《내 한번 동무네 공장에 꼭 가겠소.》

《저희들두... 수령님을 뵈고싶었습니다.》

감격에 목메이는 정순.

정순이며 당원들의 마음담아 노래가 울린다.

수령님 마음속엔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속엔 수령님 계시네
태양의 두리에 별무리같이
수령님 우러러 인민은 사네

노래를 타고 흐르는 화면

-서로 불안고 어깨를 들먹이는 당원들.
-원녀와 영혜가 정순에게 다가와 안긴다.
-상도와 정식의 얼굴에 눈물이 난다.

수령님 높은 뜻을 인민이 받들고
인민의 소원을 수령님 푸시네
은혜론 품속에 안아주시는
수령님 우러러 인민은 사네

-부장과 국장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당원들이 작업준비를 서두른다.
-힘있게 메질하는 용하.

정대를 잡은 관일의 어깨가 흥분으로 하여 들먹거린다.

-덕만이가 조립공들과 함께 분해작업을 하고 있다.

-연마작업을 하고있는 정순이와 원녀, 영혜.
-당원들의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

수령님 받드는 끝없는 충성
인민을 아끼시는 한없는 사랑
세월은 흘러도 변함이 없이
수령님 우러러 인민은 사네
아-아-
수령님 우러러 인민은 사네

노래를 타고 계속 흐르는 화면

-육중한 양수기를 조립하는 조립공들과 덕만.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부장.
-정순이 스위치를 넣는다.
-당원들의 얼굴에 넘쳐나는 환희의 물결.
-전압계에 만부하가 걸렸다.관을 타고 오르는 물소리.
-뱉아지는 정순의 얼굴.
-부장을 따라 밖으로 달려나가는 간부들과 기술일군들.

통수식장밖

-커다란 관을 메우며 삼단같은 물이 솟구쳐오른다.
-농민들이 좋아서 춤을 추며 돌아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신 통수식장에 감격의 파도가 번져져간다.
-기쁨에 찬 상도와 정식의 얼굴.
-기술일군들의 감동된 얼굴.
-사랑의 생명수를 바라보는 당원들의 기쁨어린 얼굴.
-햇빛에 반짝이며 흘러가는 물.
-정순은 끝없는 행복에 잠겨 오래도록 바라본다.
이 화면들우에 설화가 울린다.

설화

《이것이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그후 이야기의 한토막이다. 전쟁과 복구건설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당원들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우리의 주인공들은 그 어떤 명예도 보수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과 삶의 참된 의의는 후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우리 당 력사에 뚜렷이 기록되었으며 그들이 남긴 그날의 맹세는 락원의 당원들의 영원한 맹세로 되어 그 후대들에게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정순을 비롯한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씩씩한 모습이 화면을 채운다.

(끝)

락원의 10명 당원들처럼

권대봉

나는 학창시절을 거쳐 철이 들면서 군복을 입었다. 풀냄새 물씬한 축축한 땅에 가슴을 맞대고 무수한 잠복의 밤을 보내면서 나의 가슴속에는 뿌듯이 차오르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누구나 흔히 차레질수 없는 수호자라는 값높은 임무를 지닌 그것만로는 결코 아니었다.

대를 물리며 모진 수난과 인간천대의 진흙탕속에서 불품없이 발길에 채우던 나의 부모들과 친척들, 마을의 정든 사람들에게 참된 인간의 삶을 누리게 해준 그 고마움, 너무도 큰 사랑과 은혜가 나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지고있음을 눈으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내가 말아선 한치의 땅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알았을 때 나의 가슴은 용선로의 도가니처럼 달아올랐다. 하지만 어찌 이것으로서 나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 사랑의 끝을 다 헤아릴수 있었으랴.

어디에도 비할수 없는 그 사랑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었다. 어버이수령님에 의하여 나의 운명은 파란곡절을 모르고 곧바른 길로 활보하게 되었고 가슴속엔 그 어떤 불바람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도 모르는 마음의 기둥이 억척같이 뿌리를 내리게 된것이다. 그 품속에서 나의 행복도 후손들의 미래도 창창히 열리어 있음을 알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신의 힘으로 해내리라는 맹세가 났었다. 그 맹세는 병사시절을 마치고 벽창로동속에 뛰어들면서 깨뜨릴수 없는것으로 강철같이 굳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할 가장 적절한곳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택한곳은 북방의 어느 한 대기계공업기지의 주물직장이었다. 이글거리는 쇠물을 목격한 쇠바가지에 퍼담고 형타며, 부속이며, 각종 기계류들을 부어 낼 때의 희열은 자못 컸다.하지만 이런 일들은 모두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마련해주신 신성한 로동조건에서 하는 일이었다.

나는 무엇인가 더 새로운것을 자신의 힘으로 창조하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가 없었다.특히 최근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단 얼마만이라도 보답을 드리는 일을 하자면 순탄한 길을 평범하게 걸어서는 도저히 할수 없다는것을 가슴 통절하게 느끼게 되었다.

어느날 나와 함께 일하는 주물공들이 15톤의 무게가 넘는 프레스본체를 뽑아낼 때의 일이었다. 사실 우리는 3톤로에서 알맞는 기계류밖에 부어

내지 못했었다. 그러니 3톤로에서 15톤프레스본체를 뽑아낸다는것은 사실상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15톤프레스본체를 뽑아내라고 딱히 생산과제로 찍어내려온것도 아닌 이상 하면 좋고 못해도 무방한 일이었다. 하지만 공장전반의 실정을 놓고보면 15톤프레스본체를 뽑아내는것은 시각을 다투는 일이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뽑아내어 프레스화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거의 배나 되는 생산능률을 낼수 있었기때문이었다.

뿐만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 함흥전원회의에서 간곡하게 가르쳐주신 프레스화를 실현하는데 적지않게 기여할수가 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입니다.》

주물공들은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자고 들고 일어났다. 기능공들과 기술자들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자면 로를 개조할 방도부터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도면을 덧쌓으며 점과 선들을 이어갔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끝절도 아닌 정량보다 다섯배나 되는 무게의 프레스본체를 뽑아낸다는것은 허무한 망상이라고까지 했다.

따지고보면 그런 말도 전혀 일리가 없다고는 볼수 없었다.왜냐 하면 이 시험은 첫번이자 마지막으로 되는 시험인것이였다. 단번에 시험이 성공해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로가 영영 못쓰게 될뿐아니라 아차하면 터질 위험이 있었던것이다.

이런 관계로 일부 일꾼들은 일이란 한도가 있기 마련인데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말라고 했다.

발벗고 나서던 일부 기술일꾼들도 자리를 피하고 몇몇 주물공들은 맡겨진 일이나 손색없이 하자고 했다. 이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날 저녁이였다.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 우리 주물공들을 부른다는것이였다.나는 그때 해마다 사고도 없이 계획을 해냈고 때로는 크게 며칠 자랑거리가 못되나 얼마만한 기술혁신도 했기때문에 축하모임을 조직한것으로만 생각했다. 아닌게 아니라 공장문화회관에 들어서니 공장초급당일꾼들이 우리 주물공들의 손목을 잡으면서 초대석으로 이끄는것이였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일이 없어 병병해지기까지 했다.

잠시후 관람석 불이 꺼지고 무대 앞면을 거의 다 차지한 광폭막에 영화화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마음을 뜨겁게 끄는 선물이 흐르면서 《언제나 한마음》이라는 글자가 두눈 가득히 안겨왔다.

1부가 끝나고 련속 《그날의 맹세》라는 글자가 펼쳐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두눈이 뿌옇게 흐려지는것을 느꼈다. 영화가 끝난후 내가 달려간곳은 쇠물이 끓는 로앞이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뽀박질하듯 솟구쳐오르는 희붉은 쇠물을 보는 나의 눈앞에는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전시생산을 위해 몸바쳐 일하던 정순의 남편이 원쑤놈의 흉탄에 맞아 숨지는 순간에 안해에게 하던 말이 나의 가슴을 쿵쿵 때렸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하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장군님만 받들어 모시구 살아가오.》

주체형의 혁명전사들만이 지닐수 있는 남편의 굳은 혁명적신념을 심장깊이 받아안은 정순.

원쑤놈들의 시한폭탄들이 로옆에 떨어졌을 때의 10명 당원들의 희생적인 투쟁모습.

그 육중한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누가 알랴. 그 무서운 폭탄이 폭발되면 죽음도 피치못한다는것을 그들인들 왜 몰랐겠는가. 하지만 락원의 10명 당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떠들며 생산을 못하는것은 제가 책임지겠다는 요란한 소리에도 끄덕없이 불사신이 되어 시한폭탄을 해체하고야만다.

전쟁만 이기면 전후복구건설을 해내겠다는 주인공의 심장의 호소는 그대로 10명 당원들의 충성의 맹세였고 고난속에서도 드팀없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을 수행하리라는 실천의 힘있는 첫걸음이었다.

나는 락원의 10명 당원들 앞에서 준렬한 비판을 받는것만 같았다. 가슴에는 이글거리는 쇠물을 다루면서도 아직 흘려보지 못한 더운것이 맺혀내렸다.

나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끝까지 해내고야 말리라는 맹세를 지니지 않았는가. 벌써 애어린 병사시절에 그 맹세를 굳혔고 오늘도 그날의 군복을 그대로 입은 자세로 일하고있노라고 자부해온 내가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내가 한것이 무엇인가.

락원의 10명 당원들을 보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간직하고, 맹세를 저버리는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그런 자각을 갖고 재무지속에서 맨손으로 대형양수기까지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그야말로 그들은 맨손으로 기적을 펼친 불굴의 정신을 지닌 로동당원들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혁명가들이다.

그런데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일하던 때와는

대비도 안되는 현대적인 일터에서 당이 것처럼 바라고있는 15톤무게의 프레스본체를 부어내지 못한다말인가.내 병사시절에 자각했고 다진 맹세를 이런 때에 빛내지 못한다면 어찌 당원이라고 하랴.

3톤로에서 15톤무게의 프레스본체를 뽑아내자면 락원의 10명 당원들처럼 무엇이든지 제힘으로 해내고야말겠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어야 한다.

자력갱생!

바로 여기에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있고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지닐수 있는 것처럼 숭고한 충성심이 있는게 아닌가.

나는 더는 못박힌듯 서있을수가 없었다.어서빨리 15톤 무게의 프레스본체를 뽑아내고싶은 충격이 불길이 되어 가슴속에 타올랐다.현실속에서 창작의 붓을 달리는 나로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았다.만약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한몸이 식는다 해도 절대도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굳은 마음을 되새기었다. 우리 주물공들은 결사대를 뚫고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이 어버이수령님과 당이 바라는 프레스화를 실현할 맹세로 가슴이 불탔다.

이리하여 기술자들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쏟으며 현장에서 침식을 이어가며 우리는 막혔던 고리를 풀게 되었다.

찾아내고보니 웃음이 날 정도로 간단한것 같았다.

로안에다 특수내화벽돌로 이중벽을 쌓고 시간차레로 15톤까지 쇠물을 끓여 프레스본체를 뽑으면 됐던것이다.

참으로 새 기술이란 막혀있을 때는 적막강산같이 여겨지다가도 진작 찾아내고보면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것을 어찌 웃음으로 스쳐보낼수 있으랴. 우리가 락원의 10명 당원들처럼 맹세를 지키는것을 가장 신성한 법칙의무로 자각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3톤로에서 15톤무게의 프레스본체를 뽑아내는 일은 공담으로만 남아있을것이다.

웁다.

락원의 10명 당원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다진 맹세는 무조건 제힘으로 해내고야말겠다는 높은 충성심을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한다면 이세상 못할것이 없는것이다.

나는 주물공으로서 창작수업을 하는 긍지감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이 바라시는것이라면 락원의 10명 당원들처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야말것을 나는 굳게 맹세한다.

그리고 그 어떤 불소나기가 쏟아지고 시련많은 절벽이 점점 막아선대도 끄떡없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뚫고 나가 만사람이 보아도 웃으며 불항기질은 꽃들을 피우리라는것을 약속한다!

예술영화 《월미도》에 구현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

한류숙

세상에 널리 알려진 월미도해안포병들의 영웅적위훈을 보여주는 예술영화 《월미도》는 사상에 술적으로 우수한 걸작으로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커다란 감동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는 문학, 연출, 연기, 촬영, 음악 등 영화형상전반에 걸쳐 새로운 경지를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우리 주체적영화예술의 위력을 다시금 온세상에 힘있게 시위하였다.

영화가 달성한 특출한 성과의 하나는 주체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심오하게 구현한데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근본 문제의 하나로서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는데서 우리 문학예술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미학적문제에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영웅성은 몇몇 병사들의 영웅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대중적영웅주의에 있습니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월미도방위자들이 발휘한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불요불굴의 강의한 의지, 혁명적동지애와 숭고한 자기 희생성, 불타는 조국애와 혁명적관주의정신을 통하여 참다운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 주체의 관점에서 이에 심오한 미학적해답을 주고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주체형의 인간들이 지닌 참다운 인생관, 주체의 인생관에 대한 철학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으로서 우리 주체적영화예술사에 또하나의 자랑찬 기록을 남길수 있게 하였다.

그러면 이 영화에 구현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고있는가.

영화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은 무엇보다도 수령과 조국을 위하여 목숨바치는 전사에게는 죽음이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는 주인공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에서 찾아볼수 있다.

월미도방위자들이 바위돌마저 타서 가루가 되어 날리는 그 불바다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여 싸울수 있는것은 그들의 머리속에 조국은 곧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이시

며 조국을 지키는것이 다름아닌 장군님을 보위하는것으로 된다는 숭고한 사상이 지배하였기때문이었다.

월미도방위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미 피할수없는것으로 되었다. 방파제마저 파괴되어 복지와 완전히 두절된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그들은 5만대군의 미제침략군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한개 중대의 인원이 단 4문의 포로써 1000여대의 비행기와 수백척의 군함을 상대로 격전을 벌려야 하는 이 엄혹한 정황속에서 월미도방위자들은 누구도 자신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후를 각오하는 그들의 가슴속에 순결하게 간직된 생각은 오직 하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안녕이었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조국의 찬란한 미래였다.

영화는 나얼린 무전수 영옥이의 노래를 들으며 난생처음 생활의 보람을 마음껏 향유하던 고향의 전경을 그려보는 장면에서 이러한 감정을 더욱 승화시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열렬하고 조국의 고마움이 사무치게 느껴질수록 그것은 주인공들의 가슴속에 월미도를 끝까지 지켜 내 조국, 내 고향과 잇닿은 길,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려는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더욱 돈구어준다. 이러한 진리를 체득하였기에 리태운중대장도 처음에는 영옥이의 노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면 그 다음에는 무전실에서 들려오는 영옥이의 노래소리에 이끌리어 혁명적량만의 감정으로 가슴설레이게 되며 첫날 전투에서 동지들을 잃고 부상입은 몸으로 잠못이루는 전우들앞에서 영옥이의 노래를 들려주어 용기를 북돋아주게 하는가 하면 영옥이가 전사했을 때 비분을 안고 몸부림치는 전우들앞에서 그 노래를 상기하면서 복수를 다짐하였고 나중에는 그 노래를 안고 최후격전장으로 달려나가는것이다.

수령님의 안녕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받아나가며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는 주인공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특히 결사전을 앞둔 전우들을 두고 혼자서는 섬을 떠날수 없다고 하는 영옥에게 《누가 죽는다고 했소? 누가? 이 월미도에는 그걸 바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소. 우리는 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싸운단말이요!》라고 웨치는 중대장 태운의 대사에서 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수령과 조국을 위해 목숨바치는 전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불같은 신념! 값높은 삶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죽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주인공 태운의 이 격동적인 대사에서 우리는 월미도방위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받아나갈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비록 육체는 죽는다 해도 수령과 조국에 바치는 생명, 사회정치적생명은 영생하며 그러한 신념을 심장속에 깊이 간직한 인간만이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고 죽음도 웃으면서 맞이할수 있다는 심오한 철학을 보여준 여기에 이 영화가 주체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깊이있게 해명한 성과의 하나가 있다.

영화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은 다음으로 월미도방위자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을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강하게 안겨주는데서 찾아보게 된다.

착취계급과 시정배들, 혁명의 배신자들은 인민대중의 원수로서 영원히 박인되지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에 바친 혁명가들의 고귀한 삶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혁명전우들과 인민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그들의 위훈은 근로대중의 혁명투쟁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게 된다.

중상을 입고 후송되었다가 다시 중대로 돌아온 당분조장 민국은 태운에게 그의 애인인 너군의를 만난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대장동무를 일생토록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어제나 오늘이나 가슴속에는 항상 중대장동무생각뿐이라고 하면서 만약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령과 조국을 위해 목숨바쳐 충성다한 전사의 넋은 전우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안겨주는 이 대사는 작품의 철학성을 더욱 강조해준다.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불바다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운다는 중대장의 참모습을 그려보며 일생토록 기다리겠다고 하는 너군의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사랑의 언약속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세계가 깃들어있는가. 그것은 단순히 애인의 언약만이 아닌 조국의 마음이었고 량심이였다.

하기에 월미도방위자들은 조국에 대한 표상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영옥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고향에 두고온 어머니와 안해와 어린 동생들을 그려보게 되었고 영옥이의 눈부신 웃음과 맑은 눈을 거울삼아 자신을 비쳐보면서 부모처자들앞에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 더 용감하려고 애를 쓰는것이다.

영화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은 또한 행복을 누리는것보다도 그 행복을 이룩하는데 바쳐진 생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주인공들의 순결한 사상정신적풍모에서 더욱 숭엄하게 안겨온다.

행복을 누리는것보다도 그 행복을 지키며 창조하는데 바쳐진 생을 더 귀중히 여기며 그 길에서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인간의 최고의 미로,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새로운 관점이다. 주체의 인생관이 부르조아인생관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부르조아실존주의인생관은 사람을 《죽음으로 가는 존재》로 설교하고 생활은 곧 죽음이며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생활의 일정한 목적이 따로 없다고 주장하면서 생활의 리상을 버리고 현재를 마음대로 즐기는는 향락주의와 그렇게 할수 있는 극단한 개인의 《자유》를 고취한다.

또한 종교적인생관은 생활의 리상을 이른바 《래세》의 《천당》으로 규정함으로써 생활의 현실적목표를 거부하고 숙명론과 무의미한 죽음만을 강요한다.

주체의 인생관을 지닌 공산주의자들은 죽음을 리상으로 바꾸며 그 리상속에서 인간의 자주성을 쟁취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바친 자신의 고귀한 삶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영화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히었다.

월미도의 방위자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조국의 안녕과 행복을 지켰다는 긍지를 느끼며 승리자로서의 기쁨과 희열을 마음껏 즐긴다.

최후의 격전을 앞두고 주인공 태운이와 당분조장 민국이 마지막 담배를 나누어 피우며 하는 말은 영화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대목이다.

태운-아바이, 전 생을 떠난다고 해도 아쉬운것이 없습니다. 행복을 누리는것보다 그 행복을 이룩하는데 바쳐진 생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국-옳은 말입니다.

태운-그래서 난 유감스러운것이 없습니다. 그 래야 조국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할수 있거든요. 영옥이의 노래가 생각되는군요....

...아바이, 우린 결국 이기지 않았습니까?

민국-이겼지요. 이기구 말구요, 50년동안 전쟁에서 이겼다는 5성장군 맥아더가 인민군한중위에게 3일동안 되게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두뺨이 얼얼할겁니다.

이렇게 말하고나서 둘은 통쾌하게 웃는다.

얼마나 긍지높은 생에 대한 총화이며 자신들의 투쟁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에 넘치는 말인

가.

혁명가들의 죽음에 대한 값높은 정신세계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빛나는 법이다. 그것은 그들이 생의 마지막 결속을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 참되고 보람있는 영원한 인생의 길을 걸었는가 아니면 수렁과 당 앞에, 조국과 혁명동지들앞에 력사와 후대들앞에 씻을수 없는 최악의 길을 걸었는가 하는것이 결정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있기때문이다.

월미도의 방위자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높은 지성을 지니였기에 영생하는 삶과 잇닿은 값높은 최후를 위하여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을 맞받아 나갔던것이다.

영화에서 월미도방위자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표면되는 정신도덕적우월성은 포로된 미군장교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으로 발광하는 정신적취약성과 예리한 대조를 이루면서 더욱 숭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영화는 시종일관 자신의 운명을 수렁과 조국의 안녕과 결부시켜 생각하며 수렁과 조국을 위해 목숨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는 월미도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감명깊게 그려냄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주고있다.

예술영화 《월미도》가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깊이있게 형상할수 있는것은 창작적시험문제를 옹게 해결한데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주인공들이 희생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라는 의미에서 일정한 특성을 띠고있다. 따라서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희생되는 문제가 기본 초점으로 설정되어있다. 이 영화에서 시점문제란 주인공들의 희생을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이다.

혁명하는 과정에는 희생이 있기 마련이므로 혁명투쟁을 반영한 작품에서도 혁명가들이 희생되는 이야기를 그리는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가들이 투쟁하는 과정에 희생되는 이야기를 그리는것을 될수록 피하려고 하거나 설사 그리는 경우에도 도식적으로 무난하게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될것이다. 전쟁주제를 비롯하여 준엄한 계급투쟁을 반영한 작품창작에서 혁명가들의 희생을 일반적으로 참혹하고 비참하게 그리면서 전쟁공포증과 염전사상을 주입하려고 피하는 수정주의적경향에 강한 타격을 주어야 하는 우리 문학예술의 임무로부터 혁명가들의 죽음에 대한 형상문제는 더욱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창작적시험문제를 옹게 해결함으로써 혁명가들의 죽음을 어떻게 형상해야 하는가 하는 미학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을 살리는가 희생시키는가 하는데 문제를 둔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우다 희생되었는가 하는데 기본 모를 박고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작품에서 이러한 시점설정은 첫째로, 주인공들의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깊이 있게 그려낼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으며 둘째로, 월미도전투에서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줄수 있게 하였으며 셋째로, 월미도방위자들이 세운 영웅적위훈과 그들의 비극적종말에 대한 옳바른 태도와 관점을 가질수 있게 하였다.

작가는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높은 정치사상적각오와 혁명적신념에서 삶과 죽음의 철학을 찾아내었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풀어어나가기 위한 방향에서 구성의 대를 세워나갔던것이다. 따라서 이 영화의 창작경험은 구성에서 시점문제를 정확히 설정하고 옹게 해결하는것이 작품의 정치사상성과 예술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 혁명적비극의 참다운 본모기를 마련하여놓았다.

비극에 대한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비극적주인공의 성격에 대한 문제이며 비극적정황과 갈등, 정서적색갈에 대한 문제이다.

영화에서는 월미도방위자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를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시대 비극에서는 비극적성격이 아니라 영웅적성격을 창조하여야 하며 이것이 혁명적비극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혁명적비극에서 창조되는 영웅적성격의 사회계급적바탕에 대한 정확한 미학적인식을 가질수 있게 하였다.

영화는 또한 월미도방위자들의 비극적희생과 영웅적최후에 대하여 보여주면서도 슬프게 그리지 않았으며 작품 전반에 걸쳐 혁명적량만으로 충만된 정서적색갈을 일관시켜나갔다. 이것은 혁명적비극에서는 혁명적비장성과 함께 락천적인 기백과 정서가 결합되어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영화에서는 특히 주인공들의 비극적운명과 성격과멸에서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는 해결되어도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채 력사의 과제로 남겨두며 주인공들의 리상이 실현되리라는 기대만을 안겨주는 그러한 비극과는 달리 육체는 죽어도 사상은 승리할뿐아니라 주인공들의 리상이 현실화된다는 갈등해결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미학적해명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

예술로서의 혁명적비극의 특성을 훌륭히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구현함으로써 부르조아반동문학에서 내세우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의 반동성과 추악성을 폭로비판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혁명적순결성을 고수해나갈수 있는 본보기를 마련하였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주체의 인생관과 그의 사회계급적기초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리해를 주

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바치는데서 가장 값 높은 삶과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을 안겨준다. 바로 여기에 이 영화의 거대한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예술영화 《월미도》가 달성한 높은 사상예술적성과와 영화에 형상된 주체의 인생관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학습함으로써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보다 새로운 양양을 이룩해야할것이다.

소중한 마음

최치영

한해농사 곱절이나 넘쳐
풍년분배도 이미 끝난 밤
집집마다 쌀가마니 무득히 쌓아놓고
그 많은 분배몫 헤아려보던 마음들
깊이 잠든 밤

저 느티나무아래
불밝은 소조원실 창문가
한장 두장 농산일지 번저가며
잠 못드는 처녀가 있네

조용히 한장 넘기면
밖에선 눈보라가 사나워도
하얀 방막아래 한알두알...
파릇이 버모들이 자라던
그 모습 그려보는듯
조용히 웃어보이고

또 한장 넘기면
지난해 밭길 적었던 술개골
시들던 강냉이를 두고
밤새워 굴포를 파던
그 밤의 우등불이 눈앞에 안겨오고

모내기철 그 넓은 벌
해지는 저녁무렵 동쪽길로 돌아올 때
떠있는 한포기의 모
제한일에 잘못이 있는듯
논벌에 들어서던 소조원의 마음
그 마음 알아서인가
가을엔 포기마다 알찬 이삭고개 숙이고

아, 한해농사 풍년분배장엔
농장원들 맨 앞자리에 내세우고

그리도 손벽치며 기뻐하더니
어이하여 이 밤에도 소조원처녀
농사일기 번저가며 잠 못드는것이나

번저가는 일지마다
샘솟는 기쁨
뜨거운 생각에 젖어
새겨보고 또 새겨보나니

초겨울 진눈까비 눈보라
이른봄 찬서리 눈비바람
온 여름 왕가물 무더기 비...
그 어디에나 농산일지 갈피마다
일년내 어느 하루도 비여 있었던가

수령님의 높으신 그 뜻으로
당중앙의 크나큰 그 믿음 안고
소중한 그 마음이
지난해 농산일지 갈피마다
끝없이 끝없이 꽃피났거니

아, 이 밤 소조원처녀는
마음속에 다지네
밤은 깊어도 농산일지 펼쳐가며
또 한해농사에서 장혼을 부를
뜨거운 맹세를

올해보다 더 많은 분배몫 안고
농장원들 행복에 넘쳐
홍성이는 가을날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릴
가을날의 황금파도가 눈앞에 설레였네
소조원의 기쁨실고
끝없이 설레였네

봄밤

김수남

깊어가는 밤도 잊었나봐
풍년씨앗 알알이 싹틔우는 기쁨에
처녀들 웃음도 송이송이
창가의 봄눈도 송이송이...

아늑한 봄밤 새싹트는 밤
아이 요게 감쪽해 귀엽기도 하지
노오랗게 알알이 싹터난게
접시마다 파릇파릇 자라난게

가슴에도 풍년씩 가득히 트나봐
간석지논엔 새 품종 심자는 이야기
올해는 청년분조 처녀총각들
통신수업 마치여 농산기수 다 된다지

꿈도 많아 설레이는 봄밤
마음은 벌써 황금벌에 가 있네
마음은 벌써 미래에 가 사네
만풍년날가리 쫓아보는 그 마음

아, 새싹만 움트랴 기쁨만 설레랴
깊어가는 봄밤은 행복도 무르익어
해마다 만풍년 어김없이 안겨주는
아버이사랑이 더더욱 뜨거워...

열두밤을 새워도 좋아라
가슴속은 한낫처럼 밝아지는 밤
처녀들 웃음도 송이송이
창가의 봄눈도 송이송이

웃자!

허창일

혼자서도 웃고
모여서도 웃는구나
설참,
모내는기계 나란히 두렁밑에 세워놓고
또 웃음판을 벌린 처녀들아

봄바람에 춤을 추는 댕상모가 좋아서나
해빛타고 내리꽃는 청제비가 고와서나
아니면 저기
자루 긴 삽을 총처럼 메고가는
양수장총각보고 야단이나

부럽다
부럽구나

웃는 열여덟살
웃는 스무살

우리라고 그 나이를 몰랐겠냐만
우리네 열여덟은 울던 열여덟
스무살엔 벌써 종살이에 단풍들어
꽃시절을 모르고 잎이 떨어졌다

아, 나이가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구나
웃을 나이여서 웃는 웃음이 아니구나
벌을 보아도 즐겁고
하늘을 보아도 기쁘고
사는것이 그대로 웃음이여서
웃음에 묻혀사는 우리 세상

웃어라 처녀들아
해도 웃는다
웃자 처녀들아
너희들과 함께 우리들도

천년쑥발 이 더기도 새논이 되어 출렁이고
달구지군 저 령감도 트랙포르 타고 되 젊어지는
이 세월이 좋아서

살기가 좋아서
모뜨는 기계 타고앉아 우리들도 웃으니

아, 덧없이 가버린 우리네 스무살이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만, 자꾸만
웃음타고 기쁨타고
가슴치며 찾아오는구나!

이 땅의 삶이 좋아

오정로

밤은 깊어깊어도
별을 떠날수 없어
한배미 또 한배미
물을 대주고대주며
푸르른 논벌을 가꾸어가는 내앞에서
달과 별도 내려와 끝없이 아름이고있구나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날이여
너도 비단같은 빛발을 풀어풀어
포기포기 벼포기를 어루만지누나
은빛 금빛 아깁도 없이
별이여, 너도 반짝이는 보석이 되어
아롱아롱 물위에 꽃수를 놓으며
벼포기를 품어주고있구나
진주구슬 뿌리며뿌리며

우썩우썩 벼포기 자라는 소리
풍년작황이 하도 좋아

내가 웃으니
달이 웃고
별이 웃어라

달과 별과 함께 사는곳
달과 별과 함께 웃는곳
예가 정녕 내 사는 별이로구나
아, 한낮에도 이 별을 찾으시고
한밤에도 이 별을 걸으시며
어버이수령님 가꾸어주신 내 고향별이여!

내가 안기고
달이여
별이여, 네가 안기고
온 우주가 다 안겨 행복의 웃음을 짓고있구나
이 땅의 삶이 좋아
천지조화에도 끄떡않는
이 별이 좋아
아, 환희에 넘친 내 고향별!

별들이 찬란한 밤

김승도

1

굴진막장이었다. 쉬임없이 들려오던 압축기 소리도 둔중하게 울려오던 발파소리도 숨을 죽인 듯 갭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암반속에 절삭날을 틀어박은채 숨을 멈춘 《고속도종합굴진기》 앞에는 두사람이 묵묵히 서있었다.

광산설비기사 장태호와 3대혁명소조원 박성규였다. 그들은 서로 눈길을 마주보지 않고 서있었다.

두달걸려 제작한 《고속도종합굴진기》였다.

시운전은 잘되어나가는듯했었다.

그러나 굳은 암질에 부닥치자 《고속도종합굴진기》는 덜컥 숨을 멈추고말았다.

그와 함께 갭안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여버린 듯했다.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모두 침묵한채 두 사람은 번갈아보기만 했다.

장태호는 《고속도종합굴진기》옆에 두손을 축 내려뜨리고 서있었다.

성규는 보다못하여 다른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냈다.이리하여 둘이만 남았다.

인제는 한결 말하기가 쉬워진것 같았다. 성규는 지난날처럼 스스럼없이 말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그렇게 맥을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

《자, 힘을 내십시오.》

장태호는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나?》

성규는 말없이 시무룩이 웃어버렸다. 한것은 소조원의 거듭되는 완강한 권고로 이미 포기했던

《고속도종합굴진기》를 다시 붙잡고 모대기여왔지만 별수없이 또다시 쓰라린 실패의 마당에 서게 되었다는 원망의 속대사를 장태호에게서 감득했기때문이었다. 두 사람사이에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하여 태호는 자기의 말이 지나쳤다고 여겼던지 아니면 스스로 분발할 의욕이 생겼던지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 않은채 시뭏 해서 말했다.

《하긴 대책이 전혀 없는것은 아닐세…》

성규는 그 말이 반가웠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고속도종합굴진기>는 아무래두 우리 실정에서는 몇한데 좀 개량한 보통굴진기로 완성하는것이 어떻겠나?》

《그러니 역시 그전처럼 또다시 뒤걸음을 치자

는겁니까?》

《…………》

성규는 실망했다.아니 화가 났다. 중도반단하고 웨버린 《고속도종합굴진기》창안연구를 다시금 계속하도록 그를 부여잡고 얼마나 씨름했던가?! 거듭되는 권고에 마지못해 응해나선 첫단계에서 또 개량한 보통굴진기로 완성하자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는것이였다. 그러니 모처럼 분발해서 뚫은 연구목표를 내세웠다가 부닥친 실패에 기가 꺾이여 그만 제도루메기로 돌아가자라는 속심인가?!

《보통굴진기라니요?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고속도종합굴진기>이기때문에 이렇게 힘을 기울여온것이 아닙니까? 단번에 만들어낼수 있다면야 새로운 창안이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맨처음 발기한대로 멋진 굴진기를 만들어봅시다.》

다소 격했던 성규의 말씨는 어느결에 은근하고 침착한 어조로 바뀌여졌다. 태호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난 이젠 신물이 나네.자네가 오기전엔 내가 이놈과 씨름한것이 얼마인지 아나? 1년일세. 꼬박 1년 1개월일세. 정말이지 이제는 진절머리가 처지네. <고속도종합굴진기>란 말만 들어도 무슨 죄를 지은것만 같네. 나도 량심이 있고 체면이 있는것이 아니겠나?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가 막 두렵네…》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구만요.당의 방침을 받들어나가는 사업인데 그 무슨 량심이나 체면을 운운할게 있어요.그리고 당에서 그토록 지지하고 떠밀어주지 않습니까.》

열망에 찬 성규의 목소리는 절절하게 울렸다. 했건만 장태호는 그를 쳐다보다가 외면해버렸다. 그리고는 허거프게 중얼거렸다.

《넌들 왜 그럴 열망이 없었겠나? 돌이켜보면… 차라리 엄두나 안냈더라면 이처럼 모진 번민은 안했을게 아닌가.아무래도 골장인것 같구만.그만 기대에 어긋나게 됐소. 기술문제란 역시 열망만 가지고 해결되는게 아니요. 소조원동무!》

그는 꺾 돌아서더니 막장에서 나가버렸다. 성규는 멍하니 서있었다.

장태호가 이렇게 나을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를 놀래운것은 장태호의 행동이 아니라 《소조원동무》라는 깁듯한 부름이였다.

이제까지 장태호는 그와 단둘이 있을 때는 이름으로 불렀고 《하계》조의 말투를 썼다.

오늘의 《소조원동무》라는 부름은 두사람 사이에 기사와 소조원이라는 관계밖에는 더 없다고 강조하려는것인듯했다.

사실 그들은 한고향마을, 앞뒤집에서 자란 사이였다.

손아래동생이 없었던 장태호는 앞집에 살던 성규를 동생처럼 사랑했었다.

성규에게는 형처럼 너그러웠고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주려고 애썼다.

그 시절의 추억속에는 성규에게서 일어난 《고무총사건》도 있었다.

그것은 학교청사둘레를 따라 서있는 백양나무에서 소란스럽게 재잘대던 참새떼들로 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때 성규는 인민반학생이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말쑥말쑥한 빨간 고무줄로 새로 만든 고무총이 들어 있었다.

실새없이 재잘대는 참새들의 함창은 그더러 고무총을 어서 한번 시험해보라고 열심히 꼬드기는 것 같았다.

그는 지체없이 주머니에서 고무총을 꺼내들었다. 당콩알만한 돌을 고무총에 채워서 나무가지에 얹은 새를 겨냥하였다.

《쌩-》

돌은 바람을 일으키며 공중으로 날아갔다. 그런데 돌맹이는 참새무리들을 피하기라도 하듯이 나무잎들사이로 새여 거침없이 교실창문으로 날아갔다.

뒤이어 《쟁강-》 하는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

성규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찌할바를 모르고 서있었다.

《야- 너 유리를 깬구나!》하고 어데선가 나타난 태호가 놀란 소리를 쳤을 때에야 그는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장태호는 중등반이었다.

급해맞은 성규는 앞뒤를 가려볼 사이도 없이 학교정원술숙으로 숨어 버렸다.

그는 두려움에 싸여 마당을 내다보았다. 교장선생님 이 마당으로 나왔다.

교장선생님은 이리저리 살피더니 그때까지 마당에 서있는 장태호를 불러가지고 교장실로 들어갔다. 성규는 불안과 공포에 질려 가슴이 왈랑거렸다. 이제는 죄다 들켜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제 곧 교장선생님이 마당으로 나와 《성규학생!》하고 소리쳐부를것이라는 공포심에 눈을 꼭 감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이윽하도록 노여움에 찬 교장선생님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이상야릇한 일이 었다.

그런데 다음날 학생들속에서 태호가 학교유리창을 깨고 교장선생님한테 툭툭히 말을 들었다는 소문이 짝 퍼졌다. 동네어른들도 혀를 차며 태호를 나무람했다. 성규는 태호를 만나기 죄스럽

고 거북스러워 앞뒤집이면서도 한동안 피해다녔다. 그런데 어느날 교실청소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던 동쪽길에서 그는 태호와 정면으로 맞닥들었다. 성규는 가슴이 철렁했다. 분풀이를 할텐데... 그런데 뜻밖에도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가 그의 귀전에 울려왔다.

《학교에서 이제 오니?》

《네.》

성규의 기여드는 목소리였다.

《너 고무총장난을 아무데서나 하면 되니? 다시는 그러지 말어라.》

...바로 이런 사이였기에 성규가 3대혁명소조원으로 광산에 파견되어오던 날 눈물이 글썽하여 성규를 얼싸안은 장태호였다.

《이게 몇년만이야... 내가 대학에 갈 때 신발짝을 벗어두고 정거장으로 따라오던 그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대학공부를 하고 소조원으로 왔구만...》

그날 장태호는 성규가 광산일군들과 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그를 자기 집으로 끌고갔다. 성규는 사진에서만 보아온 그 순박하고 어리무던한 태호의 안해와 처음으로 인사했다.

《여보, 이사람이 내가 늘 말하던 성규요. 우리 광산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왔소.》

장태호는 기름냄새를 풍기며 부엌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자기 안해에게 성규를 이렇게 소개했다.

그리고는 장난에 팔려 돌아다니다가 곤하게 자고있는 두 아들에게로 말머리를 돌렸다.

《저기 책을 끼고 자고있는놈은 맏이인데 인민학교 2학년생이야. 이름은 영수구... 크면 학자가 되겠다는군. 이쪽놈은 유치원생인데 인민군대가 되겠다는 녀석이야.》

그날밤 그들은 어린시절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주고받았다.

추억과 회상은 세월을 따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야기들이 끝났을 때 장태호는 이렇게 말했다.

《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몰라... 성규가 소조원으로 왔으니깐, 많이 도와달라구.》

그 말에 성규는 광산으로 오면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던 속보가 떠올랐다. 속보판에는 《<고속도종합출진기>가 마지막단계에 들어 섰다!》라는 제목으로 장태호의 기술혁신안이 요란하게 소개되었던것이다.

그러니 성규가 광산에 와서 제일먼저 상봉한 사람이 장태호인셈이었다.

활달한 필체로 씌여진 회고 붉은 글자들이 유리판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당기고있었다.

성규는 더 말할수 없이 기뻐다.

속보판앞에 그는 한참이나 서있었다. 장태호가 이 광산에 있다는것은 이미 알고 왔으나 혁명소조원으로 오는 첫걸음에서 그의 기술혁신성과를

기쁜마음으로 받아안게 되니 절로 가슴이 뿌듯해졌다.

장태호가 광산에서 손꼽히는 기술자라는 남다른 자랑이 가슴을 벅차게 했다. 했건만 성규의 기쁨은 곧 가서지고 의문으로 가슴이 가득차게 되었다. 어데선가 나타난 숙보원청년이 유리판우에 쓴 글들을 말끔히 지워버리기 시작한것이다.

《동무, 그건 왜 그러오.》

성규는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예, 이젠 유효기간이 지났거든요.》

《뭐요? 벌써 그 기계가 생산에 도입됐단말이요?》

《웬걸요... 그 기계가 갱에까지 들어가자면 몇삼년 더 걸려야 할겁니다.》

숙보원청년은 싱긋이 웃으며 붓에다 유화구를 꼭꼭 찍었다....

《참 굉장한 기술혁신을 한 모양이 더군요.》

성규는 기대에 찬 눈길로 장태호를 바라보았다. 장태호는 웬일인지 거북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후에야 내키지 않는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우리 광산능력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제...》

성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럼 포기 했단말입니까?》

장태호는 그 말에 대답하기를 피하려는듯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되면야 얼마나 좋겠냐?》

성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속이 달아올랐다.

《아니, 하자구 마음먹어서 안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쇠돌을 캐내여 주체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하여 것처럼 격정하시고계시지 않습니까? 야, <고속도종합굴진기>라...

참, 그러면 지금보다 굴뚝기속도를 몇배나 더 올릴수 있겠지요?》

성규는 방금 눈앞에서 쇠물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광경을 보는듯 기뻐 환성을 올렸다.

장태호의 집에서 나오면서 성규는 그의 설계안을 광산기술과에 다시 제시하고 결심했다. 그러나 광산기술과에서는 《고속도종합굴진기》에 이미 많은 자재와 로력을 낭비했고 더우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씨원하게 접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규는 이 설계가 광산실정에 적절한 창안이라는것을 완강하게 주장해나섰다. 성규는 끝내 장태호의 《고속도종합굴진기》를 기술합평회에 붙이였다. 기술합평회에서 일부 기사들은 《고속도종합굴진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가치있는 창안이라고 지지해나섰다. 그런데 생각밖에 이 창안의 발기자이고 담당자인 장태호자신이 자기의 설계를 실현할 자신이 없다는 견해를 토론하는것이였다.

《우리 광산의 설비와 기술력량을 가지고서는

아무래두 이 방대한 굴진설비를 만들어낼수 있겠는지 오늘에 와서는 의문입니다...》

장태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참고들을수 없다는듯 공무직장에서 온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째서 우리 광산능력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우리가 하자고 결심해서 못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규는 그의 말을 지지했다.

참으로 그렇다.우리가 하자고 결심하여 못한일이 있는가.

담배연기가 뽀얀 방 안에서 묵묵히 남들의 토론을 듣는 장태호는 더는 자신없는 소리를 할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동의해서인지 더는 말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광산에서는 장태호의 설계안을 재검토하고 《고속도종합굴진기》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혁신돌격대를 무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시험의 나날은 빨리도 흘러갔다. 장태호는 성규와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을 받아안고 밤에 낮을 이어 꾸준히 노력하여 《고속도종합굴진기》를 다시 만들어냈다. 그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성규를 반드시 《소조원동무》라고 불렀으나 둘이만있을 때는 지난날처럼 형님다운 믿음을 담아 그의 이름을 불려왔었다.그런데 오늘 그는 《소조원동무》라고 돌연히 불려온것이다.

갱속에서 나온 성규는 천천히 구내길에 걸음을 옮겼다. 방금 갱에서 나온 광부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광산마을로 찾아들어오도 성규는 속소로 가는 길을 잊은듯 깊은 생각에 잠겨 끊임없이 한길만 오갔다.

실패에 모대기던 장태호가 또 새로운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피로우랴...

이때 성규의 눈앞에는 국가의 자재를 많이 낭비한것때문에 피로와하던 그의 이그러진 얼굴이 방불히 떠올랐다.

(소조원으로 온 나를 이처럼 반겨맞던 그에게 방조는커녕 피로움만 더해주었으니 그는 얼마나 안타까우랴...) 성규는 태호를 잘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정말 기술력량문제인가? 그렇다면 아예 그의 말대로 자금이라도 좀 처량한 보통굴진기를 만드는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면 그의 고충도 여기에서 결속짓고 다시 새로운 기계의 설계에 몰두하느라하면 마음속의 상처도 아물게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한 성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글썽 어디 자기 욕망대로만 되는 일이 있는가...

성규는 후-하고 긴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들었다.

《모두다 <80년대속도>창조여로!》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

어느덧 광산마을과 갱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에 이르렀다.길가에는 어디서나 보이게 높이 세워진

구호관이 눈부신 불빛에 싸여 한눈에 안겨왔다. 성규는 이 장엄한 시대에 대한 걱정이 가슴뜨겁게 북받쳐올랐다. 문득 성규의 눈앞에 그 구호관을 배경으로 하여 19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참다운 모습들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은 티없이 맑은 혁명적의리로 위대한 수령님께 한없이 충직했으며 바로 그 의리를 지켜 혁명의 한길에서 목숨바쳐 투쟁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또 동지를 끝까지 믿고 도와주며 사랑했었다. 그런데 나는... 성규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니 안된다.그만 둘수 없다. 채굴설비를 고속도화하는것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고 당의 요구가 아닌가. 《80년대속도》창조어로 줄달음쳐나가는 우리 조국은 지금 더 많은 죄물을 요구하고있다. 그 어떤 곤난이 있어도 장태호를 도와 꼭 성공해야 다...)

물론 남들이 먼저 간 길을 따라가기보다 처음으로 일어나가는 길이 힘든것만은 사실이다. 가느라면 가시덤불도 헤쳐야 하고 진펄도 지나가야 한다.그러나 그 어떤 어려운 길에라도 확고한 신념을 지닌 사람은 자기의 자욱을 뚜렷이 남기며 끝까지 걸어가는 법이 아닌가

(그렇다.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기쁨만을 드려야 할 당중앙의 친위대, 돌격대 3대혁명소조원답게 일해야 한다!...)

성규는 달아오르는 가슴을 안고 씨엉씨엉 걸음을 옮겼다.

2

광산의 밤은 깊어만 갔다. 그러나 성규는 《고속도종합굴진기》앞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그의 얼굴은 온통 땀과 기름투성이였다.그러나 갈래갈래 엉킨 전기선들과 복잡한 기계장치들은 그 무슨 신비한 사연을 담은듯 입을 국 다물고 무거운 침묵만 지키고있었다.

(무엇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는가? 실패원인은?...)

그때 《음》 하는 마른기침소리에 성규는 얼결에 머리를 돌렸다. 갱어구에서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장태호가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고속도종합굴진기》제작에 다시는 손을 대지 않을것 같더니 오늘 이 깊은 밤중에 잠 못 이루고 찾아온 태호에게 성규는 감사의 눈길을 보냈다.

《또 밤을 새웠구만.》

장태호는 성규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

성규는 대답대신 그저 빙그레 웃어보였다.

《...자, 이걸 먹으라구...》

태호는 큼직한 보꾸레미를 성규앞에 내밀었다. 성규는 정다왔던 어제날이 되돌아온듯싶어 기쁜 마음으로 보꾸레미를 붙였다. 거기에는 문어회며

말린 낙지가 들어있었다.

《야, 이거 동해바다 특산물이 광산구경을 왔구만요.》

성규는 대번에 환성을 올렸다.

《성규는 어렸을적부터 낙지를 몹시 좋아했지... 우리 집 사람한테 한번 얼핏 그걸 이야기했더니 처가집에 편지를 했던 모양이야... 처가집은 바다가니까...》

태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복잡한 선들이 거미줄처럼 건너간 《고속도종합굴진기》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말없이 복잡한 기계장치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기 시작했다.

성규는 태호를 잠시 지켜보았다.

눈곱이 축축히 젖어왔다. 역시 어릴 때부터 알고있던 장태호였다. 그만두자고 하던 말도 자기를 믿고 해온 화풀이에 지나지 않은것이였다. 성규는 보꾸레미를 밀어놓고 태호의 옆으로 다가왔다.

《...아무래도 절삭속부분이 미타해요.》

《...글쎄...다시 조립을 해놓고 시동해보자구.》

그들은 일손을 다그쳤다.

드디어 《고속도종합굴진기》의 시동준비가 끝났다.

《여보게! 스위치를 넣네!》

장태호는 기름묻은 손을 걸레로 닦으며 말했다.

성규는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어서 그렇게 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태호가 스위치를 넣자 모든 장치들은 순조롭게 작용하기 시작했고 음향도 고르로왔다. (그런데 왜 절삭날이 쇠돌에 닿으면 멈춰설까?...)

《성규! 한대 태우라구...》

태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면서 성규에게 담배팩을 내밀었다.

《전 아직 담배를 못배웠습니다.》

성규는 잠시 기계에서 시선을 떼고 어쭙게 웃으며 사양했다.

《몸에 해롭다는데 배우지 않은건 잘했어...》

장태호는 담배팩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조용히 웃음을 지웠다.

태호는 다시 고르롭게 시동되는 《고속도종합굴진기》쪽으로 돌아서서 발동소리를 귀기울여 듣고있다.

그는 팔목시계를 연신 들여다보기도 하고 서성거리기도 하였다. 한 3분이 지나갔을가 담배를 연거퍼 태우던 태호는 《앗-》 하는 비명소리에 필쩍 놀랐다. 그는 재빠른 동작으로 스위치를 끄고 성규에게로 급히 달려갔다.

《아니 웬일이야.》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얼굴은 약간 창백해졌다. 그는 성규가 《고속도종합굴진기》의 작용에만 너무 신경을 쓰

던 나머지 기계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절삭축을 만져보다가 손을 다칠뻔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태호는 무작정 성규를 끌어다 의자에 앉히며 말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나, 거기다 손을 대면 어떻게 해!》

장태호는 성을 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때없이 뜨겁게 울렸다. 성규는 빙긋이 웃어보이기만 했다.

태호는 그를 사납게 흘겨보았다.

옛날 어린시절에 질책하던 표정 그대로였다. 성규는 절절 웃었다. 태호도 빙긋이 따라 웃었다. 그들사이에는 모든 간격이 없어진듯하였다. 이날 시험에서도 일정한 전진이 있었다. 그것은 성규가 절삭축이 기준치보다 지나친 열을 받고있다는것을 알아낸것이다. 이것은 부속가공과 조립에서 기술적요구를 지키지 못하여 절삭축에 지나친 부하가 걸린다는것을 의미했다. 다시 해체하고 원인을 찾아내야 했다.

저 멀리 광산마을의 창문들에서는 불빛이 반짝이였다. 광산구내로는 기관차들이 요란한 기적소리를 울리며 천천히 미끄러져가고있었다. 쇠돌들이 차량마다에 가득가득 실려 유색금속을 기다리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장으로 쉬임없이 흘러가고있는것이다. 이렇게 매일 매시각 수많은 쇠돌들을 실어내는 화차들을 볼 때마다 채 완성하지 못한 《고속도종합굴진기》가 떠올랐고 소조원으로서의 자기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감때문에 성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곤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경쾌한 기적소리를 울리며 지나가는 차량을 보며 그 어떤 신비로운 동화세계에 잠길 때도 있었다. 그 쇠돌들이 마치 집체같은 대형기계로도 되어보였고 하늘높이 날아오르는 비행기로도 되어보이기도 했다.

성규는 푸른 하늘을 한가슴에 안으려는듯 두팔을 한껏 벌리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검푸른 밤하늘에는 구슬을 뿌려놓은듯 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무엇인가 끝없이 속살거리고있는것 같은 저 밤하늘의 별들...

크기도 모양도 거리도 서로 다른 천태만상을 이뤘어도 오직 저마다 조국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쉬임없이 반짝이는 저 별들...

그속에는 온갖 친근하고 다정한것들로만 짙어있는듯싶었다.

아, 얼마나 아름답고 정다운 밤인가! 발목이 되도록 끝없이 거닐고만싶어지는 밤이었다. 성규와 장태호는 생각에 잠겨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시퍼런 별찌가 밤하늘을 쭉 그으며 지나갔다. 별찌가 대기속으로 떨어 지는것이 었다.

그때 장태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성규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다.

《성규... 내 말 좀 들어주겠나?》

이렇게 허두를 낸 장태호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였다.

《무슨 좋은 방도가 떠올랐나요.》

무심결에도 성규가 하는 생각은 《고속도종합굴진기》였다. 그 순간 장태호는 허구픈 생각이 들었다. 나이도 어리고 자기보다 기술도 경험도 미숙한 성규가 《고속도종합굴진기》를 실현하려고 애를 쓰고있는 일이 철부지 소년의 소행처럼 생각되였다. 어째서 잘 안되는 일을 된다고 고집스럽게 내밀려고 하는가? 장태호는 쓸쓸한 미소를 띄우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거말이야...》

장태호는 말을 꺼내놓기가 거북한듯 잠시 말끝을 흐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고속도종합굴진기>의 발기는 내가 했다고 하지만 제작과정이야 성규랑, 공무직장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일이지...》

《.....》

《그래서 난 이 <고속도종합굴진기>를 우리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의 집체창안이라구 아예 이름을 다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래.》

성규는 그 순간에 가슴이 몽클해져서 장태호의 손을 짝 움켜잡았다.

장태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자신의 공명보다도 모든 동무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가. 이런 장태호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자신이 죄스럽게 생각되였다.

《정말, 형님두...》

성규는 그 마음이 고마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되뇌였다.

《그 까짓거 뭐...》

장태호는 웬일인지 성규의 밑에 얼굴을 붉히며 두눈만 슴뻑이였다.

3

박성규는 도에서 진행되는 소조원회의에 런 이틀째 참가하고있었다. 그의 머리속은 《고속도종합굴진기》로 짙어차있었다.

(지금쯤 시험에 또 착수했겠는데...)

성규는 휴식시간이 되기 바쁘게 전화기앞으로 뛰어갔다.

그는 광산기술과부터 찾았다.

《소조원 박성규입니다... 장태호기사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전화를 받는 사람은 기술혁신돌격대의 공무직 장청년이었다. 장태호기사가 시험을 앞둔 오늘 갑자기 몸살이 나서 출근하지 못했다는것이였다.

성규는 전화를 든채 멍해지고말았다. 장태호가 가뜩이나 약한 몸에 너무 무리하여 자리에 덜컹 누운 모양이였다..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계획된 시험은 어떻게 할가요?》

성규는 어떤 대답을 주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였다. 고심하여 다시 제작한 《고속도종합굴진기》시험을 단 하루라도 미루면 병석에 누운 장태호가 얼마나 서운해할것인가.

성규는 결심을 내렸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늘중으로 <고속도종합굴진기>시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태호기사가 그 일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회의장에 앉아서도 성규는 앓아누운 장태호와 시운전하게 될 굴진기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오직 눈에 보이는것은 장태호의 얼굴이였고 귀에 들리는것은 《고속도종합굴진기》뿐이였다. 그리고 성공을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당비서의 사람 좋은 얼굴도 보였다.

(어떻게 됐을가... 지금쯤 시험에 들어갔을가.)

성규는 연신 팔목시계만 들여다보았다. 오늘은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것처럼 생각되였다. 마치 그에게는 한초한초가 천년처럼 길기만 하였다... 그날밤 성규는 종시 광산으로 내려오고야말았다.

《고속도종합굴진기》시험이 어떻게 되였는지도 몹시 궁금했지만 마음속에 제일 걸리고있는것은 장태호였다. 성규는 곧장 쟁으로 가는 길어구에 있는 장태호의 집으로 찾아갔다.

《소조원아저씨 온다.》

방문을 열고 내다보던 태호의 아들 영수가 성규에게 덤석 매달렸다.

《오-영수.》

성규는 반색하며 태호의 아들을 덤석 들어안았다.

《...며칠새 영수가 꽤 무거워졌는걸... 허 학교에서 10점까지 맞았다.대단한데-》

성규는 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자기가 쓰던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의 3색원주필을 뽑아 내밀었다. 영수의 입은 대번에 해벌쭉해졌다.

《아버지 계시니?》

《지금 아파서 그래요.》

성규는 벌써 원주필에 반해버린 영수를 도로 내려놓았다.

장태호는 머리말에 약봉지를 수두룩하게 쌓아놓고 누워있었다. 다급히 방안으로 들어서는 성규를 본 장태호는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아니. 그냥 누워계십시오.》

성규가 만류했지만 장태호는 한사코 일어나았었다.

《독감을 만나서...》

장태호의 목소리에는 병색이 돌았다.

《너무 일에 무리하셨군요.》

장태호는 측은해지리만큼 수척해졌다. 건강에 특별히 류의하도록 당부하지 못했던 일이 후회되

는 성규였다.

《이거, 현장시험을 앞두구 덜컥 자리에 누워버렸으니, 사람들이 많이 욕할줄로 아네-》

《원 별걱정을 다 하시누만요.빨리 건강이나 회복하십시오. <고속도종합굴진기> 걱정은 말고말입니다.》

성규의 우스개소리에 태호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버렸다.짧은 순간 그의 얼굴에는 말 못할 고뇌의 흔적이 스치고 지나갔다.

아래방에서는 영수의 뽀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소조원아저씨가 준거야.》

한동안 덤덤히 앉아있던 장태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성규, 내가 자네에게만 하는 소릴세... 난 몸 두 몸이거니와 또 실패하게 될 시험을 차마 볼수가 없어. 이렇게... 용서하라구.》

《아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가기전에 한 기술협회의회에서 로동자들이 제기한 방안대로 다시한번 절삭축부분을 가공하여 조립하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만 풀면 새로운 발전이 있겠는데...》

성규의 말에 장태호는 허거운 텅빈 웃음을 터뜨렸다.

《흥, 거. 로동자들의 방안이라... 그래, 나도 기사니만큼 그만한것쯤은 아네. 그러나 그들의 말 몇마디로 풀수 있는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를 넘겨 고생하겠나...》

《뭘요? 형님...》 성규는 너무나도 엄청난 장태호의 말을 안타까운 얼굴로 밀막았다.

《내 말 좀 마저 듣게.저 자네가 날 생각한다면 이번 시험만은 묵과해주게.난 되지 않을 일을 계속하다가 파오를 범하기는 싫네.》

장태호의 말은 청천벽력같이 성규의 머리를 무겁게 때렸다.

(이사람이 바로 것처럼 믿고 따르던 장태호란 말인가?)

성규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너무나도 큰 믿음을 잃었던것이다.

성규는 이제야 전날에 말하던 《량심과 체면》이란 말이 리해되였다. 그리고 며칠전에 장태호가 《고속도종합굴진기》창안을 집체작으로 하자고 말하던 그 진속이 환해졌다. 또한 장태호가 시험준비까지 다 해놓고 앓아누운 원인도 리해되였다.

《어찌 그럴수 있어요...》

성규는 흥분을 누르며 속삭였다.

《난 이미 책임임에 섰던 사람이야, 다시 그앞에 선다는것은... 차라리 기사로서 량심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게 낫지 《죄》를 졌다는 말은 차마 듣지 못하겠어. 성규도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되고 아이들이 있어보라구...》

《.....》

《우리가 앞뒤집에서 살 때 뗏어졌던 그 <우정>이라는것이 성규한테 단 한조각이라도 있다면 제

발 부탁이니 나를 그이상 더 채찍질하지 말아주세요...》

성규의 머리에는 불현듯 어린시절 태호가 자기를 대신하여 교장선생님한테 유리창을 깨었다고 본의아닌 추궁을 고스란히 받아안던 일이 떠올랐다. 그러니 태호는 철없던 그때의 《우정》을 상기시키며 성규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의리》를 지켜달라는것이 아닌가?! 성규는 배반이라도 당한듯했다. 그대로 참고있을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며 누구를 위하여 새 기계를 창안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아니 협소한 자기 가정을 위하여서입니까? 채굴설비의 고속도화는 시대의 요구이고 거기에는 오직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야 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성규는 잠시동안 장태호를 건너다보지만 했다. 장태호는 방바닥만 내려다보고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고 다시 붉어졌다.

성규는 음성을 낮추려고 애쓰며 말했다.

《섭섭합니다. 형님이 이렇게 말하는것이 잘 생각해보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은 일제놈들을 하루속히 몰아내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안고 맨주먹으로 그 무엇인들 못만 들어낸게 있습니까!

그리고 락원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것처럼 가렬했던 전쟁의 불바다 속에서도 수류탄을 만들어 전선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우리 당은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더 튼튼히 꾸리고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하여 채취공업부문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으며 설비의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에 그토록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령님 품속에서 대학을 나오고 잔뼈가 굵은 우리 인테리들이 어떻게 자기의 리익과 안일을 탐내며 속수무책할수 있으며 지어는 우리의 로동계급까지 무시할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대, 우리 시대 기술일군의 자세이며 량심이며 의리입니까?!

형님, 형님이 대학으로 떠나가던 날 집의 아버지가 하던 그말이 지금도 저의 귀에 쟁쟁합니다.

지난날 형님네 집은 대대손손 글 한자 못읽어보고 그 고향내나는 광산마구리속에서 쇠돌을 허리가 휘도록 지어날랐습니다. 그때 광산의 일본 감독놈은 형님의 아버지가 공부하고싶어 길가에 널린 책장을 주어본다고 무지한 미꾸라지가 룡이 되려 한다고 막 때렸지요. 그바람에 아버지는 다리까지 영영 불구가 되었다지요... 그러던 가난한 광부의 자식이 수령님 덕분에 대학생이 되었다고 아버지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 같은 그 은덕에 꼭 보답하라고 그때 절절히 부탁하셨지요.》

성규는 침착했으나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오늘 형님은 너무나도 그 기대를 어기

고있습니다.형님. 그대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좀 고생하고 육을 먹은들 뭐랍니까? 예!》

성규의 격동에 젖은 목소리는 장태호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태호는 방바닥에 놓인 담배팩에 손을 내밀었다. 담배가치를 잡은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4

성규는 장태호의 집에서 나오는 길로 시험실에 들어섰다. 《고속도종합굴진기》의 마지막 시험준비를 서두르고있던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성규에게서 이상한 기미를 느꼈던지 일시에 조용해졌다. 그제야 성규는 태호에게서 받은 흥분을 그대로 묻혀가지고 왔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인차 얼굴표정부터 고쳤다.

《일이 잘돼가는것 같군요.》

성규는 입가에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젠 다 됐는데 태호기사가 하나 빠졌습니까.》

갑자기 방안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유독 공무직장 청년만이 심각해진 얼굴로 성규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태호기사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

성규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공무직장 청년은 알만하다는듯 얼굴에 비난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실룩거리는 그의 입에서는 금방 험구가 튀어나올것만 같았다.

《태호기사는 몹시 앓고있더군요.》

《어떻게 앓는가요?》

이렇게 묻는 청년의 어조에서 성규는 《태호기사는 병때문에 자리에 누운것이 아니라 시운전이 실패할 경우를 미리 예견한것입니다.》하는 암시를 느꼈다. 그러나 성규는 아직도 태호를 믿고싶었다. 아니 믿어야 했다.

《태호기사동무는 시운전준비가 완전히 끝났다고하면 앓는다 해도 나올겁니다.》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여전히 기색이 좋지 않았다.

《그건 태호기사동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아마 시운전이 끝난 다음에나 나오면 나오겠지요.》

방안에서는 신랄한 목소리들이 연방 터져나왔다. 그 조소와 비난은 성규의 가슴을 쓰리게 했다. 생각같아서는 그도 장태호를 마음껏 힐책하고싶었다. 하지만 성규는 마치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기라도 한것처럼 그 모든것을 고스란히 괴롭게 받아안았다.

《소조원동무, 시험은 우리끼리 합시다. 뭐 장태호가 없으면 굴진기를 못만들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도 넉넉히 할수 있습니다.자신있습니다.》

공무직장 청년은 강경하게 나왔다.모두들 자신있다고 나섰다. 성규는 머리를 들었다. 그는 조용

히 입을 열었다.

《물론 동무들의 힘으로도 할수 있겠지요.그건 나도 믿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태호기사동무를 떼여놓고 한다면 그것은 <고속도종합굴진기>의 중요한 부분보다도 더 귀중한것을 떼여놓고 하는것으로 됩니다. 이 마지막 고비에서 기사동무를 떼어버리고 우리끼리만 한다면 기사동무는 어떻게 됩니까?》

《…………》

모두들 묵묵히 앉아있었다. 성규는 더 하고싶은 말이 많았으나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태호기사동무는 꼭 나올겁니다… 나옵니다.》

그의 말이 하도 확정적으로 울려서인지 그의 믿음에 감동되어서인지 모두들 더 말이 없었다. 그들은 책상우에 퍼놓은 《고속도종합굴진기》도 면만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성규의 말과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다. 소조원이 왜 태호기사의 발기를 그토록 지지하고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밀어왔는지를 생각했다. 물론 굴진기도 귀중하다. 그러나 장태호는 그보다 수천 수백배로 더 귀중한것이다! … 그들은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것도 깨닫지 못하고 앉아있었다.

×

장태호는 시험실 창밖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는 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성규가 한 그 모든 말들을 들었다. 장태호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었다.

《소조원동무, 날 용서해주게. 나때문에…》

장태호의 꺼칠꺼칠한 두볼로는 뜨거운 그 무언이 흘러내렸다. 그에게 저런 넓은 아량과 뜨거운 심장이 있었던가! 그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기술도 부족한 성규가 어찌하여 그토록 굴진기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수 있었는가를 깨달았다. 숨쉬고 살고있는 립장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말랐다.

《고속도종합굴진기》를 태호는 오직 그자신의 일로만 생각했었다. 허지만 성규는 어버이수령님께와 당중앙에 기쁨드리려는 이 하나의 생각을 안고 시대의 요구, 당의 요구라는 높은 견지에서 자기의 온몸 온 심장을 통채로 내맡기지 않았던가!

바로 이것이였다. 그에게는 이것이 없었기때문에 조그마한 실패나 비난에도 물러섰고 자기의 체면을 생각했으며 로동자들의 창발적인 의견을 소 닭보듯하였던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험에서 실패하게 된 근본원인이였다. 당의 요구라면 한몸이 찢어져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태호 그자신은 회의의 토론연단이나 학술회에서 얼마나 많이 웨쳤던가. 그것은 말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로 받아들여야 하는것이였다. 장태호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이때 타박타박 걸어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태호는 흠칫 놀라며 강가에서 물러섰다.

《아버지-》 아들 영수였다.

태호는 놀랐다. 《너 왜 나왔냐?》

《응, 엄마가 아버지 밥 안잡숫구 일하러 하신다구 이 밥팩을 가져가랬어.》

《그래?》 태호는 아들의 손목을 잡아 돌려세웠다.

《걱정 말고 집으로 가거라.나도 좀 있다가 들어가겠다.》 그는 갱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영수는 멍칫거리더니 종종걸음으로 쫓아왔다.

《아버지.어디 가나?》

《갱에 좀 들어가봐야겠다.》

《갱에? 굴진기때문에 가나?》 태호는 놀랐다.

《그걸 어떻게 아니?》

《아버지가 굴진기 만든다구 아까 소조원아저씨가 그랬어, 아주 멋있대. 아버지, 나도 같이 갈래.》

마가을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아버지! 저 별… 저거…》

갑자기 아들이 신기한것을 발견했을 때처럼 장태호의 손목을 마구 잡고 흔들던 밤하늘을 가리켰다.

별찌가 시퍼런 빛을 뿜으며 어디론가 사라져가고있었다.

《저 별은 땅에 떨어지면 저렇게 타 없어지고만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다 그렇게 된대요.》

《그건 누가 그러던?》

《소조원아저씨가 그랬어요.》

《그래?》 태호는 묵묵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성규가 영수에게 말해주었다는 그 단순한 자연의 리치가 그저 무심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래 소조원아저씨의 말이 옳다.》

장태호는 또릿또릿한 아들의 눈을 내려다보며 다시한번 되뇌었다.

《그 말이 옳다》

그는 아들에게 더 많은 말을 하고싶었다.

하나하나의 별이 모여 이루어진 별무리… 저 별무리에서 떨어져나간다면 별찌처럼 슬픈 종말을 고하고말리라는데 대하여 이야기하고싶었다.

또 이렇게도 말해주고싶었다. 사람은 별찌처럼 되지 말고 찬란히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고…

3대혁명소조원은 우리모두들 별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어느덧 갱입구까지 왔던것이다.

《모두다 <80년대 속도>창조예로!》라는 구호가 걸린 갱입구는 어서 들어오라는듯 활짝 열려 그를 부르고있었다.…

후회

손철남

장마가 걷히고 빨간 고추잠자리들이 푸른 하늘 위로 슬슬 날아들던 말복거리 쾌청한 어느날이었다. 나는 큰물막이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관개하천건설자들을 취재하기 위해 옥수천제방 공사장으로 떠났다. 《보따리직장》이라 불리우던 관개하천건설기업소에서 일이 잘된다는 소식이 나를 흥분시켰다. 산넘고 들을 지나 삼백륙십일, 배낭을 지고 강줄기를 따라 관개건설과 국토보위에 한생을 바치고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머리속에는 숨은 영웅들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더우기 듣는 말에 의하면 거기엔 광풍폭우를 맞받아 터져나가는 언제를 구하러 큰물에 앞장서 뛰어들었다는 영웅중대장도 있다고 한다.

나는 ××신문사 부장의 직책을 맡은후로 쉬이 뜨게 되지 않던 사무실을 떠나 것처럼 나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영웅인물들을 찾아 현실생활을 취재하고 사람들도 만나볼겸 대담하게 취재차에 몸을 실었다.

막 떠나려는 때 금시 취재실에서 들어서서 로동무를 만났다. 60고개도 넘어서 몸이 뚱뚱히 나고 구레나룻이 희끗희끗한, 부서에서 제일 나이 많은 로동무의 높이 벗어진 이마에서는 더위때문인지 늙어 그러는지 맥없이 땀이 흘러내리고 입에서는 가쁜 숨에 새어나왔다.

헐떡거리는 그를 볼 때마다 나는 인젠 그도 년로보장을 받으며 집에서 말년을 보내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곤 하였다. 뭐 그렇다할 성과작도 없는데다가 인젠 늙어서... 젊은 기자들도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 그에게 이 과중한 임무를 계속 짊어지고 수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때마다 년로보장이란 말만 들어도 채머리를 저어대는 로동무의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다.

(아 더운 날씨에 그 비지땀을 흘리며 바빠 보낼건 뭐람. 시원한 네모나무밑에서 손자의 손목을 잡고 낚시질이나 다닐수 있는데...)

나는 이번에 취재차에게 돌아오면 꼭 기회를 보아 다시 권고를 해보리라구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꼭 실것을 재삼 당부하고 자리를 떴다.

차가 달렸다.

차가 달리니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스쳐지나는 모든 사물이 나의 머리속에서 무거운 생각을 밀

어내고 경쾌한 감정을 불러오게 했다.

대도로를 벗어나 승용차가 옥수천상류로 뻗은 길에 들어서자 갑옷을 입힌듯 회백색 화강암으로 일매지게 쌓아올린 제방뚝이 한눈에 안겨왔다. 푸른 하늘을 비껴뚫고 유유히 흐르는 옥수천 맑은물은 구슬처럼 반짝이고 팔뚝같은 이삭들을 무겁게 빼물은 강냉이밭은 제방을 끼고 끝없이 펼쳐졌다.

옥수천제방공사를 맡고있는 중대지휘부는 무척 아름다운곳에 자리잡고있었다.

앞에는 맑은물 흐르는 옥수천이 손에 닿을듯 바라보이고 뒤에는 장정들이 꺼경꺼경 우는 야산이 밤나무숲에 묻혔다. 마당은 좁아도 산쪽으로 가꾸어진 화단이 있었고 꿀호박이 주렁주렁 달린 우물가에는 용드레가 키높이 솟아있어 내 동요시절의 고향집추억을 불러오게 했다.

중대장은 실로 내가 상상하고있던 씨원씨원한 사람이였다. 오십대 사람같이 얹게 몸매가 다부지고 살결이 캄캄한 그는 담배를 피워도 몇모금에 다 빨아치우곤했다. 언변은 좋지 못해도 갑문이요 역수관개요 하는 그의 말을 통해 중대의 공지와 자랑을 알수 있었다.

나는 우리 나라 관개하천발전력사와 더불어 중대의 로정을 빛나게 장식한 중대장의 피타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나의 물음에 것처럼 씨원씨원하던 중대장이 꺾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뒤틀어야 누가 알았으랴. 그는 너무나도 그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새색시같은 미소를 띄고 떠듬떠듬 말을 이어놓았다.

《뭐 저야, 저 노력한게 있겠습니까? 저 말씀을 잘못들은게 아닙니까? 저 제가 한 일이야 전적으로 저 중대동무들이...》

중대장은 말마디마다 어색한 《거》 발음을 내면서 얼굴을 붉혔다. 그런데 우리 중대 동무들이라는 말과 함께 그의 얼굴색은 삽시에 자랑찬 홍조로 빛나더니 그의 말은 청산류수처럼 쏟아져나왔다.

《내가 적어놓칠 않아서 그렇지 이야긴 많수다. 진후 백만정보 할 때두 그렇구 한랭전선을 막기 위해 역수관개량 큰물막이 할 때두 그렇구 굉장했수다.

다른 동무들은 다 제껴놓고두 우리 중대에 차봉두아바이라구 있는데 한당대 관개건설자로 일해옵니다. 해방초기 사람들이 물때문에 안타까와하는것을 보구 말없이 저수지 막는 일에 나선 사람이우다.전후엔 아예 우리 사업소에 와서 제대배낭을 벗었지요. 그 아바이 손으로 건설한 구조물만 해두 아마 오륙십개소는 잘 될겁니다.》

철색이 도는 중대장의 둥근 얼굴에 자랑이 넘쳐흘렀다. 중대장의 열변을 듣는 나의 마음은 저도 몰래 차봉두아바이의 이야기에 사로잡혔다.

전후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 양수장 하나를 건설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했던가. 구조물 하나하나가 다 간고분투의 결과로 이루어진 창조물이라는것을 생각할 때 나는 차봉두아바이에 대한 이야기를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더구나 한두개의 대상공사에서만도 수많은 혁신자가 나고 공로자가 나는것이 우리 시대의 창조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륙십개소나 되는 구조물공사에 참가했다는 차봉두아바이의 수훈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지 않을수 없었다.

순간 중대장은 뜻밖에 자책이 담긴 눈길로 나를 쳐다보더니 금방 꺼버리려던 담배꽂초를 다시 집어들고 새 담배가치에 불을 붙였다.그러는 그의 얼굴에는 부자연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다.

무엇때문에 그럴까?

나는 묵묵히 앉아있는 중대장의 반응을 기다리며 맥락없는 생각을 굴려보았다.

차봉두아바이에게 무슨 말못할 사연이 있는가, 아니면 그에 대한 평가에서 중대장의 어떤 실책이라도 있었는가?...

《내 잘못으로 그 아바이가 별로 평가받으게 없습니다.》

그는 솔직한 사람이었다.

《차봉두아바이는 오는 해에 60돛입니다. 예순살이면 년로보장을 받고 집으로 갈 나이도 되었지만 평가하나 옳게 해주지 못했습니다.내 불찰이지요.》

아래사람들의 성실한 노력이 빛이 나도록 받들어주지 못한 중대장의 뉘우침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체현되어있는듯싶어 나는 여유있게 들을 준비를 했다.

《내가 차동무와 함께 일한지도 이제는 2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차동무는 많은 일을 했지요.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동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놀라울 정도지요. 그런데 일할 때는 다 평범하게만 보이거던요.》

중대장은 차봉두를 가리켜 아바이라 부르던것을 동무라 부르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공정성을 보이려 했다. 그는 흘러간 세월에 리정표

처럼 새겨져있는 생활의 추억들을 불러 교훈을 찾으며 자기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가 해놓은 공사두 몇년 있다가 보면 <저걸 우리가 했던가> 하고 놀랍게 생각할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때들 보면 다 평범하게 보이고 모든 일이 응당하게 여겨지면서 특별한것이란 있어보이지 않더라말입니다. 구조물공사를 할 땐 저마다 힘든 일을 말아하려고 했고 지하수가 터지면 저마다 뛰어들어 몸으로 막군했지요. 그런 땐 나두 뛰어들구 차동무두 뛰어들구 소대장이건 중대장이건 운전공이건 있는 사람은 다 뛰어들어 막군했는데 한번은 취사원아주머니까지 끼어들어 점심을 굶은일이 다 있었수다. 그러니 누가 특별하다고 할수없었지요. 정말 그 땐 나두 한창나이였으니까요.》

조용히 시작한 말은 점점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철색이 도는 그의 얼굴이 이따금 명상에 잠길 땐 두눈귀에 실주름이 부채살처럼 모여들어 마치 흘러간 생활의 잊지 못할 화폭을 다시 펼쳐보이기 위해 동공에 초점을 맞추려는것 같기도 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그때는 내가 중대장이 갓 되었을 땐데 저수지공사를 하뻤수다. 저수지는 거의 완성되어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언제중심에 진흙을 다져넣는 중심강작업도 하고 장석을 한창 입혀나가던중인데 비를 만났으니 일은 급하게 되었지요.설상가상으로 채석장밑바닥이 드러났수다. 사방에서 《돌, 돌》하는데 어떻겁니까. 경황없이 뛰던 나는 제일 가까운 산에다 새로운 채석장을 잡았습니다. 헌데 그놈의 산이 생겨먹길 우에는 경사가 심한 반면에 밑에는 완만한 암석층이더라말입니다. 그래 나는 웬땀이나 하고 암석층부터 때먹을 결심을 했지요.

<우에서부터 내려먹지 않겠나?>

때가 때이고보니 작업조직을 하기 바쁘게 다들 헤쳐갔는데 유독 차동무만이 내걸로 오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소. 그래 나는 말도 없이 차동무를 힐끗 쳐다보았지요. 나의 시선에서 그런 걱정안해도 된다는 뜻을 읽은 차동무는 새로운 채석장을 바라보며 미타한듯 《아무리 바빠두 옷버력을 치워야 할것 같은데...》 하고 다시 말하더군요. 왜서인지 그때 나에게는 차동무가 마치 남의 생각을 의심하는것처럼 속이 좋지 않더군요. 급하게 되면 짙검불도 잡게 되는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더구나 난 그때 밑의 돌만 헐어써도 될 줄로 알았지요. 그러니 갓 중대장이 되어 열성이 하늘에 닿았던 나는 제 생각만이 제일 옳은것처럼 보였구 나만이 기발한 생각을 할수 있다구 믿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범하게만 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일은 꼬이고야말았습니다. 경사가 급한 우를 그냥 두고 밑에만 파먹으니 며칠 못가서 사태가 지게 되었지요. 물은 벌써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돌은 또 떨어졌지 비는 더 오지 진퇴양난에 빠진 나는 제풀에 성이 나서 몸에 바줄을 감고 산을 타고내려 중간발파를 할 구멍을 뚫러왔습니다.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구멍을 뚫러왔는지 뒤시간도 되나마나해서 예닐곱구멍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놈의 버력을 활 날려보내면 앓는 이발을 쑥뽑아낸것 같이 씨원할것 같애 빨리 장약을 하라, 발파를 하라 하구 사람들을 다 급하게 몰아냈지요. 허나 그렇게 하는 일이 잘될리 있습니까. 그때 차동무가 아니었다면 사람까지 한명 잃을 뻔했습니다.》

《예, 현대 어떻게 돼서...》

《이제 우리 차동무를 만나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들으시우. 차동무가 정표동무를 구원해냈으니까요.》

나는 단념하고 말았다. 중대장의 얼굴에 나타난 피로운 빛을 보면서까지 파들어가고싶지 않았고 더구나 직접 당사자를 만나 듣는 이야기가 훨씬 흥미있을것 같아서였다.

나는 화제를 다시 본문제로 이끌어갔다.

《그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를 구원했겠지요?》

《언제는 구원되었지만 그때 중대장은 <죽었습니다.>》

《아니, 그때 중대장이?》

나는 의혹이 가득찬 눈길로 중대장을 쳐다보았다.

《그때두 내가 중대장을 하긴 했지만 그 중대장이 제구실을 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정말 난 그때에야 인생의 대학이랄가, 생활의 교과서를 쥐구 첫페이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의 교훈이 컸던 모양입니다.》

《예, 잔뜩 찌프르던 그날은 그럭저럭 넘겼습니다. 복새를 놓으면서 말이지요.》

다음날은 개였습니다.날이 얼마나 맑았던지 눈이 다 부시더군요.풀잎에 맺힌 물방울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구 하늘은 닦은 거울처럼 맑으니 내 기분도 좋더군요.그래 난 힘든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하며 채석장이나 복구하자구 슬슬 올라갔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물이 넘는다> 하구 다급하게 웨치는 소리가 총알처럼 날아와 내 고막을 때리는게 아니겠소.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어제밤에도 물이 취수구를 넘지 못했는데 비까지 멋진 멸절한 아침에 동이 터지다니 믿을수 없는 일이

였습니다.그래두 난 길목을 질러 언제로 달려갔습니다. 언제우에 올라서보니 앞이 아득해집니다.

언제 불어났는지 누런 황토물이 흰거품을 물고 금시라도 내 발목을 넘을것처럼 출렁이었습니다. 산골에 내린 무더기비가 내리쏘리는게 분명하더군요.순간 다리맥이 다 풀썩해집니다. 온 중대가 달라붙어 몇년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언제가 터지는 날에는 어떻겁니까. 처녀들은 너무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구르며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물은 점점 더 불어오르는데 갑자기 어떻게 할수는 없지 하니 나는 공연히 이리뛰고 저리뛰며 큰소리만 쳐했습니다.

<이사람, 덤비지 말구 조심하라구. 저기 흙모래를 담아놓은 가마니가 있으니.>

정신나간놈처럼 뛰어다니다가 차동무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펴쩍 들더군요.

나는 픽 돌아서서 <빨리빨리 언제를 막읍시다> 라고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그런데 내가 소리치기전부터 모든 중대원들은 누구나 다 자기 힘껏 뛰고있었습니다. 돌이건 모래가마니건 있는것 날라다 언제를 보강해보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고있었지요.

산골물이란 순식간에 불었다 순식간에 주는것이기때문에 그 순간에는 맹수처럼 무섭습니다. 그러니 당해낼수가 있습니까. 아니나다를가 <동이 터진다!> 하더군요. 물이 넘어나며 흙을 밀어내니까 인차 동이 패우며 물길이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엔 언제전체가 움썽움썽 하는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중대장은 그때 일을 지금 다시 당하기라도 하는듯 상혈된 얼굴에 비통한 기색을 담고 두눈을 스르르 내리감았다. 회상하기조차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목에서 두드러져나온 시퍼런 피줄이 훌쩍훌쩍 세차게 뛰는데 걱정예 복받친 감정을 억제하느라 그러는지 그는 눈도 뜨지 않고 입도 열지 않았다.

꽃을 찾아 헤메던 꿀벌 한마리가 어디선가 날아들어 앵앵거리다 중대장의 무거운 표정에 놀란듯 웅하고 사라져버렸다. 침묵이 흐르는 조용한 방안에 벽시계만이 푹딱거렸다. 나에게는 그 시계소리가 중대장의 가슴속에서 울리는 심장의 공동소리처럼 들렸다.

짱, 쿵, 어디선가 폭발소리가 울렸다.채석장에서 터치는 모양이었다.

발파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잠시 귀를 기울이던 중대장은 얼굴에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이 비집해지구 나약해진다는것은 아마 그때 내 경우를 두고 말할것입니다. <인젠 다구나>

하니 뭐 더 생각할것도 없더군요. 언제가 밀리는 판에 뭘 더 생각할게 있겠소. 차라리 언제와 함께 없어지고싶은 생각까지 납니다. 언제를 잃고 살아 남느니 차라리 언제와 함께 없어지면 사람들의 추억속에나마 있을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무능하며 비겁하다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기억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지휘관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난 신념을 잃고 주저앉았으니 벌써 산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아 어쩌면 종단말인가? 정말 무슨 방도가 없을까.)

이때였습니다.나는 귀전에 들리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중대장동무, 사람으로 철벽을 쌓으면 안되겠습니까?>

이 말을 온 심장으로 들으며 나는 소용돌이치는 물속에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물살에 밀려 비칠거려지더군요. 이와 동시에 나는 옆에서 나의 허리를 움켜잡는 뜨거운 손을 감촉했습니다.

그가 바로 차동무였지요.뒤미처 퐁당퐁당하는 물결의 진동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공두 뛰어들구 취사원두 창고원두 뛰어들구 지어는 지나가던 이웃농장의 사양공두 소창으러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주저없이 물에 뛰어 들었습니다.순식간에 사람들로 방파제가 이루어졌지요.어깨성을 쌓구 손에 손을 맞잡구 가슴으로 막았수다. 누런 황토물이 철썩일 때마다 얼굴에 물벼락을 맞으며 가쁜숨을 몰아쉬면서두 누구하나 무서운줄 몰랐구 물러서지 않았수다. 이발이 딱딱 마주치구 손발이 가드라들어두 누구하나 그걸 느끼지 못했수다. 사생결단하고 접어들었으니 열이 오를대로 올라지요.

한쪽에선 불이 일게 모래가마니를 메다 패운대를 막구 한쪽에선 물길을 막구 하니 자연도 어쩔수 없던 모양입니다. 젓가슴까지 올려붙었던 물이 즈믄하더니 동가슴에 풀잎과 함께 물거품을 남겨놓으며 찌기 시작했수다.

<물이 찌다! 끝내 언제를 구했다.>

누가 선창을 했는지 저마다 웨쳐들었습니다.

<중대장동무, 물이 찌우다.물이 찌요.>

차동무의 기쁨에 젖은 목청도 나의 귀전에서 울려왔습니다.

물이 찌니 한숨이 나갔구 한숨이 나가니 통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웃음이 피어나는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도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이 푹푹 뜰는 옷도 짚새 없이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공중 띄우기를 해주는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물에 뛰어들었다구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과 함께 울수도 웃을수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두 나는 사람들앞에 할 말이 있고 떳떳하게 대할수 있는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해오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몸서리치며 눈을 감고 주저앉았던곳에서 어떻게 감히 물에 뛰어들수 있었는지? 그야말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으며 자기 생명을 내대지 않고서는 누구도 나서지 못할 그런곳에서 누가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힘을 주었는지. 또한 누가 남들은 안심하고 깊은 잠이 든 그 야밤삼경에도 쉬지 않고 가마니마다에 흙과 모래를 채워넣었는지? 비록 내가 첫가마니를 떼였고 비록 내가 첫사람으로 물에 뛰어들었으나 나는 나를 그렇게 하게 밀어주고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을 생각하면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가 누구겠는가고 찾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때를 다시 더듬으면 차동무일것 같기도 하여 물기는 했으나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러루하게 보아오던 차동무가 어디서 힘이 생겨 그런 용단을 내렸을까 하고 자기 우월감에 잠겨있던 나는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대장이라는 자격지심이 나약성을 인정하려는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차동무가 내걸으로 왔습니다. 그도 어려운 시각마다 나를 돌봐주고 이끌어주었으며 나보다 앞장서나가는 사람이지요. 나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감사의 눈길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자책에 모대기는 나의 마음을 물안에서 열었던 탓으루 그가 느끼지 못한것 같았습니다.

<물이 그만했게 다행이야.>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시루죽은 기상을 하구 떨구만 있으니까 <저 한몸 돌보지 않구 무리하더니 좀 쉬라구. 감기오겠네.> 하며 등을 밀더군요.

우리 집단은 바로 이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차동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그만해서 언제가 구원된줄 아십니까? 더 큰물이 와서도 그는 막아냈을것입니다. 제몸보다 언제를 먼저 생각했기를 그도 서슴치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그후 이 전투의 성과를 축하하여 상급기관에서와 동지들은 앞장서 물에 뛰어든 나를 영웅이라고 칭찬했지요. 그러나 내가 어찌 그런 칭찬을 받을수 있습니까? 나는 끝내 그 표창을 우리 집단에 줄것을 요구했지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주저했던 비겁한 생각은 털어놓지 못하고말았습니다. 왜서인가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것처럼 깨

곳한 우리 집단의 영예에 티를 추가봐...

모든 생활은 비슷한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앞서가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이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것을 나는 그때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소박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말없이 수직수직 일한다고 해서 범상하게 보며 그러루하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처리하는것은 큰 잘못입니다. 내가 바로 차동무를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나는 자신의 무능과 비겁성을 대담하게 인정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기자선생, 부탁입니다만 부디 차동무와 우리 집단의 이런 숨은 동무들을 신문에다 좀 잘 써주길바랍니다. 우리 차동무야말로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변심을 모르고 살아오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놓듯 중대장은 자기 말을 힘겹게 마쳤다. 하얗게 질린 입술로 담배를 가져가는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것을 본 나는 사람이 후회없이 산다는것이 얼마나 힘든 말인가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사업소 당비서는 이곳 중대장이 많은 일을 한 능력있고 열성이 높은 일꾼이라고 평가했었고 또 사람들은 그가 간고한 투쟁마다 앞장서는 그 불같은 마음을 평가한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남모를 고민이 깃들어있었으니 참으로 후회없이 살기란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나는 문득 로동무생각이 났다.그도 역시 한생을 자신의 존재가치를 뚜렷이 인식시키기 위한 큰소리를 침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다. 가치있는 기사는 몇편 쓰지 못했다 해도 그가 동무들을 위해 바준 원고는 얼마이며 그의 방조하에 썩여진 문제작은 얼마인가? 이때 나는 처음 신문사에 와서 기자사업을 할 때 그가 나를 방조하여 원고를 완성시켜주던 그 헤아릴수 없는 낮과 밤이 생각났다. 역시 그때 나는 전 도를 들썩하게 한 기사를 써서 조직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으며 지금은 부장으로까지 되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평가와 믿음이 어찌 나 혼자의 노력이라 하랴. 그러나 나는 그의 높은 이마와 험뎠거리는 숨결속에 배여있는 성실한 노력은 웅당 그래야 될것처럼 이해해왔으며 한번도 눈여겨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었다.

기회를 보아 로동무에게 년로보장을 권고하려던 나에게 중대장의 후회는 의리도 없는 인간에게 던진 폭탄처럼 안겨졌다. 그에게서 글을 배웠고 그와 함께 일해온 내가 그의 일생의 노력을 그렇게 평가하고 나이들면 로쇠되기 마련이라는 단순한 논리만을 앞세워보게 된것은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과 숨은 노력을 볼줄 모르는 편협한 사

고에서 온 결과일것이다.

후회의 공통된 심정을 안고 중대장과 헤어져나는 차봉두동무를 만나고싶은 생각이 앞서 점심때가 된것도 모르고 옥수천제방공사장 채석장을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류창한 매미의 노래가 산촌의 정서를 한껏 돋구는 끝안으로 들어가는 나의 마음은 맑고 상쾌했다. 어찌선지 중대장의 후회가 나의 생각을 더 깊게 해주었다. 인간해 대한 평가에서 잘못을 보며 후회와 교훈을 찾는다는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러한 후회와 교훈이 클수록 인간에 대한 관점이 정확해질것이며 아래사람들에 대한 일꾼들의 태도는 얼마나 진실해질것인가!

중대장의 실책을 내가 보상해주게 되었다는 긍지로 하여 채석장에 급하게 도착했으나 이미 식사시간이 선포된후여서 작업장은 쥐죽은듯이 조용했다. 잔돌이 한벌 깔린 채석장에는 망작같은 돌들을 쌓아올린 무지가 여기저기 널려있는데 숨죽인 작업장을 대변하듯 체소한 사람이 돌무지결에 홀로 앉아 두눈을 잔조롭히고 자그마한 손도끼로 팔뚝만한 물푸레나무를 열심히 다스리고있었다. 아마 곡괭이나 삽에 맞출 자루일것이다.

해빛에 반짝거리는 흰머리칼들이 귀밑을 덮고있는것으로 보아 아바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 아바이는 아마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서 휴식하는 사람일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 무더운 점심참에 할 일이 없어 저렇게 수놓이를 하듯 까근히 다듬질을 하겠는가? 그것도 뭐 삽자루같은것을...) 그러나 좌우지간 그 공사장에 바치는 마음은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이렇게 생각을 번져가던 나는 차봉두아바이가 어데 계시는가고 물어보았다.

그는 차봉두동무를 찾아왔다는 나의 말을 듣자 의아한 표정을 짓고 송구스런 어조로 어쭈게 자기소개를 했다.

이 아바이가 영웅적인 위훈을 세운 그 차봉두란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반가움에 앞서 호기심이 동한 나는 한참이나 그를 뜯어보았다. 반듯한 이마밑으로 조용히 빛나는 두눈, 눈섭조차도 연한 그의 얼굴에는 별다른 점이 없고 매우 순박하고 진실한 감만이 풍겨 어린시절에 보았던 나의 외삼촌을 연상케 했다. 이몸집이 체소한 로인이 그토록 큰일을 할수 있었던말인가? 중대장의 후회에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든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그는 내가 찾아온 사유를 듣자 처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한 일이 없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매마침 식사하러 오라는 소리가 강변에서 들려

왔다. 그는 구원이나 받은 사람처럼 나의 손목을 잡아끌며 어색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피할수없이 끌려간 나는 때아닌 장소에서 뜻밖의 환대를 받게 되었다. 고작해야 산나물이나 이채를 띠리라 믿었던 나의 추측은 완전히 허무적이었다.

이런 산골에서 보리라곤 짐작도 못했던 전어가 8월꽃고추에 줄여있었고 비타민 에이와 씨가 많다는 부르는 빨간고추장에 반쳐져있었다. 휴식시간에 잡았다는 쏘가리를 탕쳐넣은 호박국에 입천장을 델번하면서 싱싱한 소나무가 던져주는 큼직한 그늘밑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난 나는 이들의 생활이 부러움기까지 했다.

젊은 축들은 땀을 들이느라 어느새 푸른 소에 빠져 허우허우하며 돌아갔고 나이든이들은 담배를 구수하게 피우며 풍년든 분지와 찔팡이를 따들일 걱정들을 했다.

인간의 의지대로 자연을 길들이는 이들의 생활에는 서정과 랑만이 넘쳤다.

오후 한것을 나는 이들과 함께 채석장에서 보냈다. 오전에는 주로 밭파를 하고 오후에는 채석을 하기때문에 돌을 날랐다.

장석이적기가 용을 쓰며 돌을 운반해내는 소리에 온 골안이 발동기 메아리로 가득차고 바람따라 펄럭이는 삼색기를 배경으로 혁신자들의 이름이 쪽 나붙은 나지막한 속보판이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해 일떠선 채석장의 분위기를 힘있게 대변하고있었다.

나는 이들과 함께 일손을 맞잡아보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웃옷을 벗고나섰다. 하얀 내손이 떡판같이 넓죽한 누런 돌에 가닿자 채석공들이 펄쩍 놀라며 저저마다 만류해나섰다. 그래도 나는 그 돌을 들어보려고 바등바등 애를 썼다.

웃쪽에서 지레대를 쥐고 큰돌을 굴러내던 차봉두아바이가 급히 나에게로 다가왔다.

《조심하시우. 돌다루는 일이 돼놔서.》 하며 그는 자기가 꺾던 통장갑을 쑥 벗어 내 코앞에 내밀었다. 그리고는 어쩔사이도 없이 그 떡판같은 돌을 힘 들어안으며 허리를 쭉 폈다. 돌을 안은 그의 두팔뚝에는 주먹같은 근육들이 툭툭 불거져나와 마치 굵은 쇠바줄로 돌을 감아놓은것 같아 보였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저벅저벅 그는 거침없이 걸어나갔다.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정신없이 그를 바라보던 나는 열결에 받아든 장갑을 되돌려주려 그의 뒤를 쫓아갔다.

《우리 늘 다뤄와서 일없수다. 손 상하지 않게 장갑을 끼구 잔돌이나 날라보슈.》

젊은 내가 지랴싶은 자격지심이 나의 눈길을 큰 돌에로 이끌어갔으나 그때마다 차봉두아바이는 자연스럽게 선손을 쓰곤했다.

일이 끝나자 저녁노을이 붉게 물든 골개들에 시원히 땀을 들였다.

나와 차봉두아바이는 너럭바위를 타고 앉아 모래무지잔등이 뻗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물에 두발을 푹 잠그었다. 시원하고 상쾌한 잠이 전신에 퍼졌다. 모래무지새끼가 발밑을 쑤시고 들어오며 나의 발을 간지럽혔다. 머리에 우산처럼 드리운 다래넝쿨이 풍만하게 열린 다래를 금시라도 안겨줄듯 술바람에 기분 좋게 흐느적인다.

《쪽쪽 쪽쪽쪽.》

《시쪼 시쪼 시쪼.》

깃을 찾아드는 산새들의 아름다운 노래가 골안을 메웠다.

《종군요.》

《예, 일할 재미가 나지요.》

조용히 긍정하는 차봉두아바이의 두눈에는 생기가 넘쳤다. 연한 눈썹조차도 눈과 함께 빛나게 웃는것 같았다.

차봉두아바이와 함께 젊은이들 뒤에 서서 천천히 산길을 내리는 나의 마음은 이를데없이 상쾌했다.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아 그랬는지, 일할 재미가 난다는 차봉두아바이의 공지가 나의 기분으로 전환되어 그랬는지.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골개물은 굵이 처흐르고 노을은 붉게 타는데 여기저기 아담하게 들어앉은 목조가옥의 터발마다에 노랗게 핀 호박꽃은 조용히 웃으며 산촌의 정서를 내 가슴에 한껏 안겨주었다.

산길을 내릴 때 차봉두아바이는 말이 없었다. 프락프르에서 떨어진 돌을 길썬에 모아놓곤하느라 그랬는지 모른다. 내가 돌을 집으려 하면 옷을 마친다고 아예 손도 못대게 했다. 그 일때문에 자주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나를 향해 그는 도리어 미안해하면서도 돌만 보이면 또다시 허리를 굽히곤했다.

결국 좋은 저녁길에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보려던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고말았다. 저녁을 먹고서야 마당가에 피운 모기불을 가운데 놓고 마주앉게 되었다. 앉기는 단둘이 앉고 더구나 취재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나였으나 바람따라 술술 불어오는 알찌근한 쭉냉파리냄새와 배짱이 우는 소리, 어둠속에 명멸하는 반디불이 어쩐지 공식적인 담화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향토적인 애뜻한 감정을 안게 했다.

우리는 두서없는 이야기로 밤을 보내기 시작했

다. 대체로 말은 내가 하고 차봉두아바이는 대답을 하거나 긍정을 하기가 일쑤였다.

어디선가 밤빼꾸기가 뻐꾸크뻐꾸크 울었다. 멍석딸기를 따서 눈에 붙이고간다는 빼꾸기가 미처 떠나지 못한 안타까움을 하소하듯 또다시 뻐꾸크뻐꾸크 울어서야 나도 제정신이 들어 자기 임무를 자각하게 되었다. 특히 중대장이 그처럼 부탁하던 숨은 영웅을 찾아낼데 대한 책임감은 나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저수지언제를 구원하던 이야기나 좀 해주십시오.》

《?》

무슨 생각에 골몰해있던 차봉두아바이는 의욕이 실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있던것이 미안스러워 《아침에 길따라 할 생각을 좀 했더니 선생님의 말씀두 새겨들지 못해 안됐네다. 길이 나쁘니까 돌이 자주 떨어져서...》

하고 송구스럽게 사과를 했다.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그럴수 있지요.》

나는 아까 산길을 내리며 떨어진 돌때문에 걸음을 멈추곤하던 일이 되살아나 도리어 그의 생각을 높은 책임성으로 보게 되었다.

참으로 자기 일을 무한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 저수지언제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언젠데요?》

그는 금시초문인것처럼 반문했다.세월과 더불어 창조된 수많은 이야기로 해서 잇은 모양이었다.

《중대장동무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잘 생각해보십시오. 몇년전에 저수지공사를 할 때 물이 불어나 터지게 된 그날 언제를 막아낸 그 가마니에 흙을 담은 사람이 아바이라 하던데요.》

나는 능청스런 미소를 미우고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대었다.

《아, 그 얘기말이요. 난 또 무슨 말인가 했었수다. 내사 밤잠이 적으니 좀 몸을 돌려본거지요. 근데 거 뭐 나뿐이요? 거 바위돌이란 녀석두 왔구, 또 몇몇... 아니 그 큰물이 지는데 안나올 사람이 어디있나요. 중대장은 온밤을 채석장에서 밤했수다.》

생각지 못한 성과를 거둔 나는 엇딘바에 절이라고 편속 들이대었다.

《아바이, 그날 제방이 터질 때 아바이가 물에 뛰어들어 몸으로 담벽을 쌓으면 된다고 하셨지요. 예?》

《아니 그거야 뻔한 일을 가지구뵤. 내가 미처

말못했으면 다른 사람도 말했을게 아닌가. 거 영웅이야 중대장이지, 난 말만 하구 아직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아니 글썽 중대장이 서슴없이 물에 풍덩 뛰어들지 않았겠나, 에 인젠 난 나이가 많아 생각뿐이지...》 말도 다 끝내지 못한채 아바이는 피로운듯 머리만 긁적이었다.

《아니, 아바이두 먼저 뛰어들었다던데요. 그래두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곳에 어디 뛰어들기가 쉽습니까?》

《뭘, 전 중대가 그때 다 뛰어들었지요.》

차봉두아바이는 자기를 그 어떤 구원자나, 생명을 내놓고서야 얻을수 있는 위훈의 창조자로 생각지 않았다. 누구나 할수 있는 대수롭지 않는 범상한 일로 여기고 기억속에조차 새겨두지 않았다.

순간에 생명을 잃을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으로 깊은 생각없이 누구나 뛰어들수 있단말인가? 중대장은 그때 주저앉았다고 했다. 그것때문에 그는 지금 가슴아픈 후회를 하고있다.

기억력을 되살려주어서 한 차봉두아바이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단순했다. 허지만 그의 단순한 이야기를 듣는 나의 가슴속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숭고한것이 새겨졌다. 바로 이런 《단순한 일》들이 모여 그의 일생을 수놓았을것이 아닌가! 이것이 차봉두아바이의 진면모라고 나는 생각했다. 누구나 당하게 되면 제 한몸 아낌없이 내맡기리라 생각하는 인간들에 대한 그의 소박한 믿음, 우리 시대 인간들을 자신처럼 믿는 그 마음이 나의 가슴속에 깊이 깃들었다.

《그때 정표동무는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중대장동무가 속이 타니까 자기가 직접 올라가 발파구멍을 뚫고 정표동무더러 장약을 해서 발파하라고 하니까 올라가 하구 내려오다가 바위가 굴러나며 떨어졌지요. 그래 제일 가까운데 서있던 내가 뛰어가 업어왔습지요.》

《그때 도화선에다는 불을 달았겠지요?》

《그래두 한 이분 있다가야 튀니까 뭐 별루...》

역시 대답은 단순했다.

《정표동무는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소대장을 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중대장일을 보는데 약골이 돼서 걱정을 했더니 이제는 몸두 좋아지구 일을 잘합네다. 얼마전에도 회의왔다가 들렸는데 자주 찾아옵네다.》

《지금까지 일해오시는 과정에 어떤 표창들을 받으신게 있습니까?》

《일한것두 없이 공로메달두 타구 간석지 달문 공사팬 우리가 속보에 한번 났었수다.》

《속보예요?》

《예, 그때 참 사람두 많구 공사두 컸는데 우리 소대를 속보에 내줬었지요.》

《그게 언제인데요?》

《달문공사때니까 십여년전이웨다.》

순간 나는 무엇인가 혼돈되는듯한 느낌이 들어 잠시 사색을 정돈하기 위해 주의력을 집중했다.

속보라! 차봉두란 사람이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느낀 감정과 중대장이 그토록 절절하게 담보하던 그런 경지에까지는 올라서지 못하는 인간이나 아닌지?... 십여년전에 속보에 났던 사실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있는 사람이 우리들중에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무슨 일로 속보에 났던가요?》

《큰일두 아닌걸 가지구 그랬지요. 휘틀을 해체하면서 우리 소대에서 못을 뽑아 퍼두었더니 그걸 가지구 주인다운 태도라구 했던것 같습네다. 하긴 오래 돼서 생각두 잘 안납니다만 그것두 우리 소대가 났댔기 그렇지 잊은지두 오랫동안거웨다.》

나는 자신의 생각이 편협하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속보에 났던 사실을 기억하고있는것, 이것은 결코 개인의 명예를 새겨두려는것이 아니라 조직과 집단에 대한 자량이었고 의리였다.

차봉두동무는 바로 이런 사람이 었다.

노란 호박꽃에 구슬같이 맺혔던 이슬에 방울져 떨어졌다. 옥수천에서 피여오른 물안개가 축축한 땀기와 함께 마당가로 서서히 밀려들었다. 밤도 퍼그나 깊은 모양이었다.

나는 차봉두아바이의 여생을 넘려하던 중대장의 말이 생각키워 호기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건드려보았다.

《어떻습니까. 이제 60뉘생일이나 쇠시면 집에 가서 여생을 즐기셔야지요?》

《원 당치않은 말씀이웨다. 오록이 성성해가지구 집에 가서 뵈하겠습네까.》

차봉두아바이는 필쩍 뛰었다.

《그러지 않아두 나이만 먹구 해놓은것이 없어 후회가 큰데 일을 해야지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까짓 손에 익은 일이 힘들게 있나요. 한 십년은 일없웨다.》

《그래두 중대장동문 걱정하던데요?》

《허허 그 사람은 늘 그런 걱정입니다. 내 딸두 자꾸 그런 편질 보내와서 그러지 말라구 했수다.》

《딸이 어데 있습니까?》

《군대에 나가 있는데 우아래 없이 키우다나니 응석받이지요.》

차봉두아바이는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비닐지갑을 꺼내더니 사진 한장을 뽑아 나에게 주었다. 뒤등에 《아버지 보세요. 초소에 선 딸입니다.》라고 쓴 사진에는 군모를 단발머리우에 단정히 쓰고 앞가슴을 활짝 펼친 씩씩하게 생긴 처녀가 조용히 웃으며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딸이 잘났군요. 열아들 부럽지 않겠습니다.》

《학교때 내내 최우등을 하긴 했는데 아직 철이 없지요.》

차봉두아바이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약간 퇴색한 이발에 불빛이 어려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나로 하여금 차봉두아바이를 무척 다감한 인간으로 느끼게 했다.

나는 밤도 깊고 더구나 용무도 끝난 뒤라 그에게 북받쳐오르는 존경심을 안고 심심한 감사를 드렸다.

《별말씀이웨다. 자식을 봐서라도 일을 많이 해서 기쁘게 해드려야 했을걸. 나이만 먹구 일을 못하다보니 미안하웨다. 지금두 살아온 길을 더듬어보면 후회가 큼니다. 생겨먹길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런지 우린 젊었을 때에두 말두 제대루 못하구 일두 시원하게 제껴보질 못했수다. 지금 청년들처럼 활발하구 공부두 많이 하구 그랬으면 얼마나 일을 잘했겠쎬까. 우리 일처럼 정붙는게 없는걸 참, 헛살았지요.》

한생을 값없이 살아온 사람처럼 그와 얼굴에는 후회로부터 오는 자책의 그늘이 짙게 어리었다.

나는 차봉두아바이를 다시한번 새롭게 보게 되었다. 남들이 것처럼 자랑스럽게 높이 보는 그에게도 후회가 있는가? 후회가 있다면 이 후회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후회와 교훈이야말로 남들이 한걸음을 나갈 때 열백걸음을 나가려는 불면불휴의 인간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자신에 대한 요구를 언제나 시대의 첫자리에 놓으려는 불같은 인간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숭고한 정신이며 높은 목표가 아니겠는가!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와 다시 만날것을 약속했다. 차봉두아바이를 만난 기쁨으로 하여 나는 이밤을 잊을것 같지 않았다. 과거에 대한 자랑보다 미래의 위훈이 더욱 크게 기대되는 인간을 또 한사람 알게 되었다는 자랑이 나로 하여금 산촌의 이밤을 영원히 잊을수 없게 했다. 왜선지로동무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좋은 밤이여서 그런지, 나도 후회없이 살기를 바라서 그랬는지...

밤에 본 초상

림재성

사귀기도 쉽지만 잊어버리기도 쉬운것이 러행 길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길동무일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전직후 양덕-고원간 혼합렬차안에서 잠깐 만나본 일이 있는 한 처녀를 스무해가 훨씬 지나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있다.

준엄했던 이 땅에서 포성이 멎은지 불과 열달 밖에 안되는 늦은 봄 어느날이었다. 그때 지방신문사에서 취재기자로 사업하던 나는 관하구역의 립산마을에서 일을 끝나치고 돌아오던길이었다. 내가 탄 렬차는 긴 화물렬차의 뒤꼬리에 대용객차 3대를 편결한 혼합렬차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의 피해를 말끔히 가셔내지 못해서 짐을 싣는 유개차에 등반이 없는 의자를 길게 가로놓고 객차대용으로 리용하군했다.

내 맞은편에는 머리태가 치렁치렁한 처녀와 이미 시집을 간듯한 차림의 젊은 녀인이 꼭 붙어앉아 소근소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부인인듯한 녀인이 주로 말을 하고 처녀는 듣고있었다. 말하는 녀인은 좀 수다스러운 편이었으나 선량한 웃음이 입가에서 노상 떠나지 않는 처녀는 무게와 지성이 한꺼번에 느껴졌다.

나는 가끔 옆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들의 속삭임을 방해하지 않을 양으로 눈을 감고 차벽에 등을 기대었다.

잠도 변변히 자지 못하면서 운전공들과 함께 험한 립지를 오르내린 요 며칠사이의 피곤이 물려와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다.

렬차는 높은 철다리와 긴 차굴에서 그리고 풀어놓은 땀기오리처럼 오불꼬불한 곡선구간에서 자주 변속을 하느라 몹시 들쭉군했다. 울리막길을 힘겨웁게 달리던 렬차가 어느 차굴앞에서 거의 비상제동에 가까운 변속을 하는 바람에 마음을 툭 놓고 앉아있던 손님들이 한꺼번에 옆으로 쓰러졌다. 유쾌한 웃음소리와 가벼운 나무람소리가 들려왔다. 그바람에 나도 깨어났다.

밖은 어느새 칼칼해지고 천정에는 축수 낮은 전등이 립색하게 차안을 비치고있었다. 해진 뒤의 산골이라 그렇듯 어둠이 빨리 몰려왔던것이다.

《지금 몇시나 됐나 체네?》

머리를 앞가슴에 틀어박고 건들건들 졸던 늙은이가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고나서 처녀에게 물었다. 그런데 처녀는 인차 대답을 하지 못하고 수다스러운 부인의 눈치만을 보았다. 녀인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것으로 보아 그도 시계가 없는 모양이었다. 전쟁의 가슴아픈 참화는 이 젊은 녀성

들에게서 시계까지 벗겨갔던것이다. 하긴 나 자신도 시계가 없었으니까. 희한한것은 처녀의 품속에서 늙은이들이나 차고다니는 회중시계가 나온 것이었다. 처녀는 동행하는 젊은 녀인에게도 시계가 없다는것을 알게 되자 망설이는 기색이더니 품속에서 자그마한 물건을 꺼내었다. 늙은이들이 흔히 피춤에 찢러넣고 다니는 회중시계였다. 깨끗한 비로도천으로 여러겹이나 정성들여 싸긴 하였으나 먼발치에서 보기에다 무척 낡은 시계라는게 알렸다. 나는 지성이 느껴지는 그 기호품이 어쩐지 처녀에게 어울리는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탐방기자와 직업적인 나의 눈으로 볼 때 그 시계에는 말 못할 사연이 얹혀있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야릇한 호기심까지 들었다. 나의 이 호기심이 얼굴표정에 나타났던지 젊은 녀인이 얼마간 당황해하기까지 했다.

《애 년 무얼 이런걸 다 가지고 다니니?》

하며 힐난에 가깝게 말하는 녀인의 얼굴에서는 부자연스럽게 웃음이 굳어졌으나 회중시계의 임자는 별로 탓하는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너그러운 웃음이 떠도는 그의 얼굴에는 승엄한 빛조차 어리는것이였다. 처녀는 말없이 회중시계를 다시 비로도천에 싸서 품속이 깊에 간수했다. 리지적인 승엄한 표정이며 서두르는 기색이 없는 차분한 처녀의 손놀림으로 보아 그도 시계로 하여 생각이 깊어지는듯싶었다. 그제야 수다스러운 녀인도 웃음을 거두고 처녀의 귀가에 입을 바투 가져갔다.

《아버지거나?》

하고 젊은 녀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으나 처녀는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그럼 기념품...?》

《호-》

렬차는 손님들을 또 한차례 들었다놓더니 덜컥 멎어섰다. 방송을 대신하는 나 어린 역무원의 역명환호가 싱그러운 늦은 봄날의 훈향과 함께 산골의 밤하늘에서 메아리를 일으켰다.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들과 렬차에 오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서로 다른 억양센 사투리가 총알처럼 날아왔다.

렬차가 멎자 연신 달콤한 하품을 하던 늙은이도 내렸다. 오르는 손님으로는 책보를 낀 통근생 처녀 한사람뿐이어서 차안은 행뎡그레해보였다. 나는 오래간만에 만났듯싶은 두 녀인으로부터 한걸음 옆으로 물러나 앉았다. 했으나 호기심으로 가득찬 나의 귀에는 소곤소곤 주고받는 녀인

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넉넉히 들려왔다.

렬차는 우렁찬 기적소리로 산천을 울리며 천천히 자욱을 떼고 녀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시계로 하여 야릇한 흥분과 그 어떤 희억속에 잠기는듯싶은 처녀가 더 많이 말을 하고 그의 동무는 주로 듣기만 했다.

《넌 내가 왜 아직두 시집을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지? 난 그런 질문을 부모님들과 친척들에게서도 한두번만 듣지 않았어. 그러나 그 질문에 한두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려워. 네가 굳이 대답을 듣고싶다면 무어라고 말할가... 난... 난 어떤 동무를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존경하고있어. 그 동무아닌 다른 남자는 생각도 하고싶지 않아.》

《그게 누구냐?》

《.....》

《순철대위? ... 그럼 경국군의... 그도 아니라구? ... 아이, 요 엉큼한것!》

녀인은 이 이름 저 이름 성급하게 주어섬겼으나 처녀는 한본새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아까 그 시계는...?》

그리하여 그들의 이야기는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그래 차라리 시계얘기나 할가?》

처녀는 녀인의 호기심을 그다운 유연한 성품으로 적당히 눌러놓고는 시계로 화제를 돌렸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처녀의 성가문제보다도 더 흥미를 끄는 문제여서 귀가 솔깃해졌다.

알고보니 두 녀인은 한해가까이 사단군의소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적들의 《하기공세》가 한장 준비되고있던 1951년의 여름, 차라리 늦은 봄이라고할 그런 환절기에 헤어졌었다.

처녀의 이야기는 그들이 눈물을 뿌리며 석별을 아쉬워하던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

차굴의 귀아픈 공명과 울리막길의 부잡스러운 렬차의 온갖 소음으로 하여 자주 동강이 나는 처녀의 이야기를 이어놓으면 이러하다.

.....

사단병원을 떠난 량혜경군의는 그 이튿날에는 벌써 최전방군의소 근무실에 앉아있었다. 로교수인 원장자신이 며칠간의 휴식을 권했으나 마침떠나는 차면도 있어 서둘러 길을 떠났던것이다. 전선에서는 매일같이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저녁까지만 해도 참모들의 작전지도우에

푸른 동그라미로 표시되어있던 적군이 차지한 깊은 골짜기의 뉘엿한 구릉들에서 이른새벽에는 벌써 아군의 중대취사차가 풍기는 구수한 고기국냄새를 맡을수 있는 그런 때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 불타는 전장으로 마음을 달리고있었다. 혜경이는 군의학교를 졸업한 다음

한해 가까이 되어서야 소원을 풀수 있었으니 소녀시절부터 의롭고 용감한것을 동경해오던 그는 가장 준엄한 위치에 서있는 자기만을 상상해왔었

다. 그러나 혜경이가 도착한 전방군의소는 전쟁을 모르던 평화시절의 처치실을 방불케 했다. 뒤울안에서는 별떼가 웅윍거리고 다박술 우거진 야산기슭에서는 까투리를 꺾어내는 잠꿩이 여무지게 꺾꺾 울었다. 포탄파편이 휘파람을 불며 지붕우를 날아예고 부상병들이 간단없이 밀려드는 군의소만을 상상해오던 그에게 이 한가롭고 목가적인 풍경은 그저 놀라울뿐이었다.

량혜경이는 말동무 없는 당직실에서 가물거리는 등잔불과 함께 전방의 첫날밤을 보내고있었다.

문득 어데선가 밤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벼락같이 덮쳐든 전쟁의 참화를 피해 멀리 자취를 감추었다가 그래도 제살던 고장을 잊을수 없어 밤의 고요를 타서 찾아와 저렇게 애처롭게 짝을 찾는 그 새소리는 처녀의 머리속에 무척 오래전의 일처럼 느껴지는 촌에서 보낸 여름밤들을 쉽사리 떠오르게 하였다. 도시태생인 그는 랑림산줄기의 깊은 계곡에 자리잡고있는 외가집에서 즐겨 여름의한때를 보내군하였었다.

마당에서 실실이 피어오르는 향긋한 쪽연기며 어두운 밤하늘에서 까불까불 날아다니는 반디불, 더운 코심을 내쉬며 새김질을 하는 외양간의 압소, 할머니의 옛말들... 그런가 하면 웃으며 떠들며 읊거리 회관으로 밀려가는 처녀 총각들, 머리칼을 보기좋게 휘둘러넘기며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을 읊던 시골문학청년... 동화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랑만과 정서의 현실이 있는 향촌의 가지가지 생활들을 추억하던 혜경이는 몸을 흠칠하고 떨었다. 사람들이 무시로 피를 흘리는 엄혹한 전장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랑만이기때문이었다.

그는 밤새의 구슬픈 울음소리로 하여 심란해지려는 마음을 수습하려고 제목만 읽다가 밀어놓은 신문을 집어들었다.

단신으로 적진속에 뛰어들어 한개 소대를 요정냈다는 박홍규라는 군관의 전투담이 그의 사진과 함께 크게 소개되었다. 눈꼬리가 가늘어진 그의 예쁘장한 얼굴모습으로 보아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용맹이나 위훈을 기대하기는 애당초 가망이 없을상싶었다. 혜경이는 평화시기에 이런 류의 청년들을 잘 알고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얌전하고 품행이 조용하며 기질은 언제나 약하고 소심했다. 그는 자기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무던히도 마음을 쓰던 군의들과 참모들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외양이 매번 그의 사람됨을 전부 드러낼수 없는 모양이다.

(전쟁이 사람들의 성격을 변화시킨것일까?)

전투영웅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나름으로 전쟁과 인간에 대한 철학을 음미해보던 혜경이는 신문에서 눈길을 떼고 귀를 기울였다. 거의 룡감으로 기적을 느꼈던것이다. 머지 않은곳에

있는 보초막에서 잔기침소리가 나고 그와 엇갈려 군의소쪽으로 다가오는 발자욱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그러나 그 발자욱소리가 문앞을 스쳐 지나자 또다시 심연과도 같은 정적이 깃들었다. 혜경이는 그 정적속에서 실낱같이 울려오는 말발굽소리를 가려들었다. 내린천의 수원이라고도 하는 먼 귀암폭포의 락차소리가 그 말발굽소리에 어울려 은은하게 들려왔다. 흥부의 미세한 진동을 통해 인체내의 오묘한 비밀을 알아내야 되는 의료일군의 직업적인 예민한 음감이 그 작은 소리조차 가려들을 수 있게 하였다. 짐작이 옳았다. 태고연한 원시림속에서 부리 긴 날짐승이 구새먹은 강대나무를 쫓는 듯한 그 작은 소음은 점차 뚜렷한 표상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질풍같은 말발굽소리로 변하였다. 피말의 힘찬 투레질소리에 이어 짙막하게 주고받는 성급한 말소리가 들려온것은 얼마후였었다.

혜경이는 전선군의의 예감으로 급한 부상병이 온거라고 단정하고 벗어놓았던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그가 미처 자리를 수습하기도전에 안장에서 뛰어내린 기수가 처치실문을 비좁게 채우며 성큼 들어섰다.

풍막자락이 펄럭거리는 바람에 가물거리던 등잔불이 금시 꺼져버릴것처럼 휘청거리다가 간신히 허리를 폈다. 혜경이는 단정히 일어나 청신한 여름밤의 땀기를 한가슴 안고 문턱을 넘어서는 젊은 기수-군관을 조용히 맞이했다. 한여름의 무더운 피약벌에 탄 겹실한 얼굴이며 군복 겨드랑이가 금시 터질것처럼 팽팽한 그의 몸으로 보아서는 군의소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 같지 않았다.

급하게 달려온탓인지 아직도 숨결이 거치른 군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처치실을 두리번거렸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군관동지?》

혜경이는 처치실문턱을 넘어서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는 실무적인 언어로 이렇게 물었다.

《침을 맞으러 왔습니다. 얼른 한대 놔주십시오.》

군관은 처녀군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채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이동용접철식의자가 금시 부서질것처럼 애처롭게 삐걱거렸다. 군관은 몇번 궁싹거려보더니 자리가 시원치 않은지 일어나 바지주머니에서 주사약을 꺼내놓았다. 요새 보기드문 희귀한 항생제였다.

《어데가 아릅니까?》

혜경이는 항생제에 포도탕용액을 섞으며 기계적으로 물었다.

《보시다싶이 난 이렇게 건강합니다만...》

《그런데 항생제는 무엇때문에 맞으세요. 보아하니 먼길을 달려온것 같은데.》

《글쎄 그건 저로서도 잘 알수 없습니다. 어제

사단병원에서 과장동지 한분이 내려와 벼락진찰을 하더니 이 주사를 맞으라더군요. 사단장아바이의 명령이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어야지요.》

군관은 팔을 걷어올리며 입속으로 투덜거렸다. 혜경이는 어제 사단병원을 떠날 때 사단장이 내과과장을 찾아 어느 중대에 보내던 일이 떠올랐다. 부대장조차 전투초소에서 떼어놓을수 없으리만큼 고집이 센 중대장이 이 군관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혜경이는 반응주사를 놓기 위해 탄산수로 팔목 부위를 소독하며 찬찬히 살펴보았다. 가늘어진 눈꼬리며 입귀에 모아붙은 잔주름이며가 무척 고집스러워 보였다. 했으나 그는 보라도 직업적인 룩감으로 피진 눈과 그렁거리는 거치른 숨결을 통해 군관의 호흡기계통에 이상이 생긴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병리학적인 예감이 작용한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열도 느껴진다.

《아니. 이렇게 간단합니까?》

군관은 주사바늘을 꽂는것처럼 하다가 인차 뺐는 혜경이를사뭇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애기를 들으니까 바지까지 벗구 뒤에다... 하하 그 친구들이 날 골려주느라고 우정 엮포를 놓았군.》

보내 그가 주사를 맞으러 군의소에 오지 않은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녀앞에서 바지를 벗고 흥한데를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친구들의 놀림때문인것 같았다. 혜경이는 병원출입을 모르고 살아왔을 이 청년군관의 순박성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이건 반응주사랍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혜경이의 자주빋 입술사이로는 희고 고르로운 이가 가끔 드러나군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말이 맞았군.》

군관의 술많은 눈썹이 거의 맞붙을 지경으로 곧아졌으나 못난이처럼 뛰어나가지는 않았다. 여지없이 실패해버린 그는 소리없이 한숨을 쉬더니 모든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두눈을 지그시 감고 시간되기를 기다렸다.

바람대신에 풀벌레가 각이한 정으로 울어대는 생각많은 여름밤이다. 이따금 령너머 저 멀리에서 울려오는 가르릉거리는 발동기소리만 없다면 전쟁을 모르는 평화롭던 나날 두무릎을 그려안고 별흐르는 하늘가를 우러러보며 가지가지 몽상속에 묻혀보던 향촌의 원두막을 생각해 하는 밤이다.

문득 군관이 눈을 뜨더니 처녀가 점직하게 생각하도록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아이, 왜 그렇게 보세요?》

혜경이는 별령벌령 끓는 소독기를 들어올리며 범상하게 물었으나 얼굴은 소연중 화끈거렸다. 실은 자기도 그의 용모를 슬그머니 뜯어보던중이였기때문이다.

(어데서 꼭 본 청년인데.)

그의 머리속에서는 군관이 처치실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줄곧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군관도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있었는지 고향이 땡산이 아닌가 꼬치꼬치 캐여물더니 나중에는 예술영화 《내고향》에 창조출연을 한일은 없는가고 따지기까지 했다.

《저는 평양에서 나서 입대할 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군.》

군관은 고개를 기웃거리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자기의 실수를 대수롭게 여기는 모양으로 명상에 잠기는 그의 얼굴에는 만시름을 잊은 사람의 평온이 깃들어있었다. 그러나 군관의 평온한 명상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군의동무는 입대한지 오래 됩니까?》

눈을 뜨고 처녀군의를 미심쩍게 건너다보는 군관의 왕청같은 질문이다.

《아니예요. 의대에 다니다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입대했어요.》

군관은 그럴상싶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파를 전공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외과였던가요? 내 친구 한사람도 의대에서 외과를 전공했는데 박문규라고 혹시 모르십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군요. 전 산부인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군관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하여 약간 이그러졌다. 전혀 새로운 의미에서 녀성군의를 눈자리가 날만큼 직심스레 살피는 젊은 군관은 아름다운 처녀에게 야릇한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미묘한 감정이 아니라 숨얼얼한 그 무엇이 느껴지는 엄숙한 얼굴표정을 지었다. 그런가 하면 정열이 끓어오르던 맑은 눈에 느닷없이 서글퍼보이는 거의련민의 정조차 불러일으키는 순박하고 어린 표정이 떠오르기도 했다.

군관은 가물거리는 탄피등잔의 오이씨만한 불꽃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혼자오리처럼 중얼거렸다.

《전쟁이 모든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지요! ...전쟁이!...》

《.....》

혜경이는 갑자기 변하는 그의 표정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뿐이다. 야전병원의 군의와 산부인과 의사, 군관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 말은 너무나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었다.

군관은 의아스러워하는 혜경의 심정이 헤아려지는듯 여전히 생각에 잠긴 눈길을 어젠가 한점에 견준채 역시 명상에 잠긴 사람의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군의동무는...》

하고 석션한 목소리로 입을 여는 군관은 혁피

고리를 한구멍 뚫추며 계속했다.

《전쟁이 아니었다라면 지금쯤 어느 요람결에 앉아서 새로 태어난 공민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고있을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국의 미래도, 행복한 오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두손으로 부석부석한 얼굴을 비비던 군관은 이마위에 흘렁 떨어지는 굵실굵실한 머리칼을 보기 좋게 휘둘러 넘기었다. (아, 그 청년이었구나!)하고 혜경이는 속으로 가버운 탄성을 올렸다. 청년의 독특한 행동을 통해 그가 외가마을 문화회관 무대우에서 서사시 《백두산》을 읊던 그 매혹적인 문학청년이었음을 알아냈던것이다. 그는 마치 태줄을 한 지경에 묻은 고향의 지기를 만난것 같았다. 한시간후의 운명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전장에서 고향사람을 만난다는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것인가.

이야기를 좀더 해보니 짐작이 났었다.

《하하, 랑만적인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그 벽촌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하긴 우리 고향에도 의학대학 학생들이 실습도 오고 토질병을 없애느라고 자주 오군했지요.》

혜경이가 그 류다른 벽촌의 여름밤을 상기하자 군관은 소년처럼 천진스레 웃었다.

《그곳에는 우리 외가가 있습니다.》

《그러구보니 고향친구로군요.》

《네. 그렇군요.》

두사람의 마음은 다같이 유쾌해졌다. 혜경이의 입가에는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특징적인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났다.

《언제 입대하셨습니까. 역시 전쟁때문에 입대하셨던가요?》

묻는 혜경이는 한층 스스럼없었다.

《웬걸요. 그전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요?》

혜경이는 놀라며 자기 생각을 말했다.

《저는 군관동지가 문학의 길을 걸을줄 알았는데.》

군관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참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었어요.》

혜경이는 머리칼을 정력적으로 너풀거리다가 보기 좋게 휘둘러넘기군하던 그의 옛모습을 그 가벼운 웃음속에 담아 그렇듯 쉽사리 상기시켰던것이다.

다소곳하던 고개를 번쩍 쳐든 군관의 두눈에는 그옥한 추억의 빛이 스쳐지나갔다.

《하긴 나도 시인이 꽤볼 꿈을 꾸었습니다. 지방신문에는 몇편 발표까지 했습니다만...》

하고 말하는 군관은 혜경이가 새로 태어난 공민원에서 행복한 요람을 지키지 못하는것을 아쉬워할 때처럼 침통한 빛을 띠었다. 생각타인지 웃음기가 사라진 그의 철색얼굴에는 잃어버린 귀중한것에 대한 애석한 감정이 무겁게 얹혀있었다.

《군의동무도 아다싶이 우리 고향은 참으로 아

를 답습니다. 마을앞으로는 옥계수가 흐르고 찌그렁오막살이를 헐어버린 남천덕에는 아담한 새 주택이 날에날마다 늘어납니다. 남달리 꿈이 많은 우리 면당위원장아버이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는 기계로 씨를 뿌리고 기계로 가을걷이를 하게 된답니다.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가고 라디오를 놓고 처녀들은 비단을 짜며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대학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부담으로 공부를 하게 될거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락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좋은 세상을 노래하지 않고 어찌 무심히 대할수 있겠습니까.》

군관의 말에는 꿈과 랑만이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불타는 지향이 있었다. 혜경이는 군관의 조용한 목소리를 통해 아름답기 송백이 울창하게 들어선 뒤산이며 땀방울이 퍼붓는 여름이면 동네조무래기들을 포근히 안아 애무해주는 동구밖의 그 작은 내가가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혜경이는 두손을 동실한 무릎위에 얹전하게 올려놓고 긴 속눈썹을 내리간채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대학 어문학부에 입학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하고 군관은 퍽 가라앉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면당위원장아버이가 말을 들어 줘야 어찌지요. 보고문같은것은 물론이고 군에 올라가 토론하게 된 처녀학생들의 토론문까지 다듬어주라는판입니다. 벽지에 사는 성인들의 문맹퇴치사업으로부터 면내기관들과 리에서 조직하는 회의나 강습에는 약국의 감초처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에서 책과 원고용지는 놓을수가 없더군요. 문학이란 참으로 묘한 힘으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취하게 하지요. 나는 면당위원장아버이가 이걸 몰라주는게 섭섭했지요. 나는 가끔 짜증도 냈습니다.

<여보게, 한해만 더 기다려주게, 이른봄에 왔던 시인선생도 말하지 않던가. 작가의 첫째가는 밑천은 생활체험이라고> 내가 보챌라치면 이런 말로 달래입니다. 하긴 머슴살이 40년에 굳어질대로 굳어진 거칠진 손에 부자연스레 펜대를 쥐고 굵적거리는것을 보면 더는 조를수 없더라말입니다. 그럭저럭 세해가 흘렀습니다. 공화국창건 한 톨이 가까와오는 어느날이었습니다. 하곡리에 지도사업을 나갔던 나는 면당으로 급히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보고문을 씌우려는게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도슬러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양보를 하지 않을걸> 나는 미리 입학원서를 써가지고 면당위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동지. 저를 더는 붙잡을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정 성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앞에 입학원서를 훌 밀어놓았습니다. 그바람에 책상우에 있던 종이장이 마루바닥에 펄럭거리며 떨어졌습

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그 종이장을 천천히 집어들더니 입학원서우에 놓았습니다.

<바우(내 아명입니다.)가라구.>

아버이는 뜻밖에도 선선히 대답합니다. 나는 오히려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제야 방안의 공기가 심상치 않은것을 느끼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긴 웅접탁 한끝에 소심하게 앉아있는 부위원장도, 그리고 마음무뎠던 외삼촌처럼 후더분하게 생긴 위원장아버이도 다같이 침통한 표정을 해가지고 담배만 뽀뽀 뽀뽀합니다. 나는 그때에야 내 입학원서 때문에 마루바닥에 떨어졌던 종이장이 웬 전사통지서라는것을 알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휩쓸었습니다. 통지서를 와락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확 흐려왔습니다. 종이장을 쥔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자그마한 지질탐사대를 이끌고 태백산맥의 준령을 넘나들던 아버지가 원썩들에게 피살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38선에서 무려 백여리나 떨어진 외진 산간마을에서 말입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쥐새끼들처럼 38선을 몰래넘어선 악질적인 <호림부대>망나니들은 산밭을 타고 후방길숙이 잠입하여 농사를 짓는 아낙네들의 젓가슴을 도려내고 꿀벌을 치는 늑은이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부림소와 집 짐승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놈들은 시료배낭밖에 없는 아버지의 가슴에 여섯방이나 총알을 먹였습니다.<바우 가라구!> 아버이는 목이 메어 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느닷없이 터져나오는 기침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군관은 숨을 가누느라 잠깐 말을 끊었다. 그는 가생이의 도금에 벗겨지기 시작한 시계를 꺼내어 들여다보더니 밖의 동정을 살폈다. 주위에는 여전히 칠혹같은 어둠의 장막이 무겁게 드리워있었고 이 전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듯이 태평성대를 읊조리는 풀벌레의 구성진 노래소리만이 싱그러운 훈향을 떠도는 여름밤의 고요를 흔들어놓았다.

《내가 객적은 한담을 하는게 아닙니까?》

군관은 가물거리는 등잔불을 지켜보는 혜경이 쪽에 언뜻 고개를 돌렸다. 회억의 그윽한 잔물결이 아니라 그 어떤 비분으로 상기된 그의 두눈은 유난히 번쩍거렸다. 그것은 랑만적인 옛 문학청년의 눈이 아니었다.

《아니예요. 어서 말씀을 계속해주세요.》

생각에서 벗어난 혜경이는 가볍게 몸을 떨며 서둘러 재촉했다.

《군대생활에서 처음 얼마동안은 그리 시원치 못했습니다.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런대에 도착하니 글씨 총이 아니라 펜대를 쥐여주는게 아니겠습니까. 런대장동지는 내 글씨가 깨끗한데다가 문장이 통속적이어서 마음에 꼭 든다는겁니다. 면당위원장아버이와 어찌면 신통히 같은 말을 하는지... 속에서 불이 일더군요. 그럭저럭 몇달이

지났습니다. 38선에서는 놈들이 하루도 번지지 않고 불집을 일굽니다. 난 선서를 한 군인이라는 자각마저 잃어 버릴만큼 흥분했습니다.

<련대장동지, 저는 원쑤를 잡으려고 대학이 아니라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서기노릇을 하자고 입대하지는 않았단말입니다.>

련대장동지의 눈꼬리가 약간 꿈틀거리기는 했으나 내 말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난 좀더 대담한 공격을 들이댔습니다.

<련대장동지도 일제원쑤놈들에게 부모를 잃고 장군님유격대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때 련대장동지에게 총을 안주고 굴이나 쓰라고 했더라면 좋았겠습니까?>

내 말에 련대장동지는 골살을 찌프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굴이 다 무언가. 치마두른 녀인들과 함께 밥을 지으랍데.>

<밥을 말입니까?>

<밥뿐인줄 아나. 무기수리소에 가서 석달열흘 풍구질도 했소.>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련대장동지가 내 생각이 짧다느니, 발등박에 못보는 근시안이라느니 하는바람에 그만 불끈하고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원쑤를 더 많이 잡겠다는게 어찌 근시안이란말입니까?>

<그럼 한가지 물어보지요.>

련대장동지는 화도 내지 않고 따지고듭니다. 나는 약이 올랐습니다. 따지겠으면 얼마든지 따져라 하는식으로 배심종게 기다렸습니다.

<그래 동무 보기에는 서기사업이 시시하게 보이는가?>

<저는 서기사업이 시시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 다.>

<그럼 어째서 그 일은 못하겠다는거요?>

<.....>

<흥. 대답을 못하는군.>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련대장동지는 정색을 하더니 여유를 주지 않고 다그쳐 들이댔다.

<우리 사회에서 각자가 맡은 혁명임무의 크기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귀천의 차이는 없는것ियो. 명백한 진리를 체득하기전에는 총이 아니라 대포를 쥐도 적을 잡을수 없소. 시라소니는 시라소니 대로 남아있거던.>

글쎄 이런단말입니다. 론전에서 여지없이 패한 나는 며칠동안 공공 앓았습니다. 그러던중 나의 머리에는 그럴듯한 묘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머지 않은 신작로쪽에서 마사원이 휘두르는 채찍소리며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덜컹덜컹했다. 잠잠하던 매봉쪽에서 눈먼 포탄이 가끔 쿵쿵거리고 대들보같은 탐조등이 킁킁한 하늘을 향하여 곧추 뻗어올랐다가는 령너머 저쪽으로 자취를 감추곤했다. 한동안 전쟁의 소음을 가늠해보던

군관은 마침내 안도의 빛을 띠며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내가 서기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글씨가 남달리 고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내 손이 원망스러워보이기까지 해서 왼손으로 바른 손을 탁 내리쳤습니다. 물론 아팠습니다. 당장 정리해야할 서류가 책상우에 무독히 쌓였으나 손이 아파서 쓸수가 없었습니다. 내머리속에 그럴듯한 생각이 떠오른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군관은 제판에도 그때의 일이 우스웠던지 히죽이 웃었다.

《나는 피를 부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글을 깨끗이 쓰되 알아보기 힘들게 획마다 타래송곳처럼 꼬불꼬불하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니 아무리 상형문자를 해독할 능력이 있는 고고학자라 해도 진땀을 뺍지 않고는 알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제일먼저 지쳐버린것이 상급부관이 었습니다.

<피를 부리는거요?>

단야공출신인 그 텅텅한 상급부관은 대뜸 내 속심을 알아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닌보살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부터 새끼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군의동무는 다발성관절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흥, 다발성관절염이라면 제대감이로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

<됐소, 동무하고 길게 말할것 없소, 대렬참모한테 가지요.>

<거긴 못가겠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공교롭게도 련대장동지가 지나가다가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고지식한 상급부관은 독이 오른 얼굴을 해가지고 사실이 여사여사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아차 잘못 걸렸군.)

뒤늦게 자기 실책을 느낀 나는 종신 서기의 신세를 면하려던 얇은 피때문에 제대나 되지 않다가 하는 위구심으로 하여 마음을 죄었습니다.

<어디 보지요.>

마침내 일은 닥쳐오야말았습니다. 련대장동지는 다발성관절염에 걸렸다고 우기는 내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성품이 고지식한데다가 로파심까지 있는 그는 모든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전에는 그 어떤 결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옆에는 단단히 버리며 하회를 기다리는 상급부관이 비웃는듯한 얼굴로 나를 지켜보는데 오목눈의 간호원까지 와있었습니다.

련대장동지는 멀쩡한 내 손을 무던히도 잔잔히 <진찰>을 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흔들며 돌아섭니다.

<안되겠군.>

하며 그는 성이 난듯한 눈초리를 상급부관쪽으로 휩 돌립니다. 나는 눈길을 떨구고말았습니다. 상급부관의 열오른 땡땡한 얼굴을 통해서 련대장동지의 단호한 결심이 짐작되었던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사람은 다같이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손을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서기구실하기는 틀렸소.>

나는 원하는 초소로 갔으나 마음은 편안치 않았습니다. 련대장동지에게 모든것을 고백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고 달이 바뀌어도 회답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련대장아버이가 소대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자기 성미대로 무던히도 잔잔히 전투준비정형을 살렸습니다. 점심참에는 전사들과 한 식탁에서 두부국을 맛나게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드디어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련대장동지, 저의 편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까?>

<받았소.>

<제 생각이 확실히 짧았습니다.>

<무얼말이요?>

<저... 다발성관절염말입니다. 사실은...>

<생각나오. 동무는 다발성관절염을 앓았지.>

련대장동지는 명랑한 표정을 짓더니 내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무 글씨가 어찌나 꼬불꼬불한지 읽을수가 없어야지. 앞으로 내게 보내는 편지는 특별히 글씨를 깨끗이 써야 되겠소. 허허.>

그가 바로 오늘밤 나를 이 군의소로 보낸 사단장동지입니다.>

군관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야기끝에 흔히 있군하는 활기쁜 질문과 대답도 없었다. 다같이 깊은 명상속에서 자기 생각을 좇고있었다. 가물거리는 등잔불에 빨간 찌가 앉았으나 혜경이는 움작도 하지 않았다.

신작로쪽에서는 한층 부산스러운 소음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정적은 오히려 갑절로 짙어진듯싶었다. 혜경이는 문득 전쟁이 끝난 뒤의 이 청년의 모습을 상상해보려 하였으나 도무지 표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듯 그에게는 물날고 땀배인 군복이 어울렸던것이다.

《물론 문학공부를 계속하렵니다.》

군관은 처녀의 질문을 기다렸다는듯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풀려나오며 시원스레 대답했다.

《그러나 먼저 원예사가 되렵니다. ... 왜냐구요? 나는 밤마다 우리 면당위원장아버이(그는 후퇴시기 유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우다가 고향마을을 해방하는 전투에서 희생되었습니다.)가 들려주던 고향의 래일을 두고 꿈을 꾸지요. 그런데 나무랄데 없는 아버이의 그 설계도면에는 딱 한

가지 모자라는게 있었는데 그것은 거리의 록화조성이지요 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했는지 아니면 혼한게 나무 꽃이라 망실했는지. 아무튼 이것을 빼놓는다면 사람의 얼굴에 눈썹이 없는 것과 같을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이와 마주앉아 의논하기는 틀렸거던요. 나는 밤마다 생각을 굴리다가 아버이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소원대로 시를 쓰렵니다.》

혜경이는 두손을 포개여 가슴우에 얹었다. 잠이 모자라 눈두덩이 부을사하고 어디에 굶렸는지 정맥이 부풀어오른 목에 길게 말라붙은 피자육이 있는 이 청년의 미래의 모습이 이제야 생생한 표상으로 떠오른다. 그 초상은 어린시절을 보낸 인민학교의 작은 책상과 화창한 봄날 고향의 들판길을 걸으면서 몽상해오던 그런 영웅서사시의 주인공의 불멸의 모습이였다.

《군의동무는 물론 자기의 요람결에서 행복한 애기어머니와 새로 태어난 공민을 보호하겠지요.》

《네.》

또다시 두사람은 일을 다물고 가물거리는 등잔불을 지켜보았다. 미래의 꿈을 그리며... 군관이 시계를 꺼내어 들여다보았다. 그제야 혜경이는 덤벼치며 자리를 수습했으나 군관의 팔목에 이미 반응의 자취가 사라진 뒤였다. 이야기에 심취된 두사람은 다같이 시간에 대해 망각했던것이다.

《마침 잘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잠깐 눈을 불이려던참이었는데.》

군관은 덤벼치며 다시 반응검사를 하는 녀군의를 이렇게 웃으며 안심시켰다. 그는 금패처럼 귀중하게 간수하고있는 시계를 꺼내어 혜경이앞에 내놓았다.

《15분후에는 꼭 깨워야 합니다.》

하고 그는 거둬 당부하였다.

군관은 눈을 감자 곧 잠들었다. 거치른 숨소리가 고르롭게 들리더니 얼굴에는 더없는 평온이 깃들었다. 하긴 지금 그는 작은 시내물이 흐르는 고향의 들판에서 하늘높이 떠서 봄을 읊조리는 노고지리를 쳐다보면서 푸른 아이를 키워오던 어린시절의 추억을 더듬는지도 모른다. 혹은 박꽃이 하얗게 핀 초가집지붕아래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님의 다심한 모습을 꿈에서 보았는지도 모른다. 혜경이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방문객으로 하여 이 귀중한 15분간이 빼앗기지 말았으면 하고 은근히 가슴조였다.

그러나 혜경이는 그 짧은 시간조차 끝내 지켜내지 못하였다. 성급한 말발굽소리가 마당가에서 들려오더니 어느새 기관단총을 받들어총한 나이지숙한 하사관이 품막을 헤치고 처치실로 들어섰다. 혜경이가 깨우기도전에 군관은 눈을 번쩍 뜨더니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하사관이 군관의 귀에 입을 바투 대고 무언가 빠른말로 속삭였

다.

《아직 시간이 안되었는데?》

군관이 놀라 되묻는 말이었다.

《네 ... 앞당겼습니다.》

하사관의 말도 채 끝나기전에 군관은 허리끈을 조이며 문밖으로 달려나갔다. 혜경이는 밖으로 나가는 군관에게 주사를 상기시켰으나 그는 주춤거리는 하사관의 등을 떠밀고는 재빨리 문밖에 사라졌다.

밤안개에 젖은 축축한 대기는 군관의 조급한 대답을 텅빈 방으로 전해왔다.

《주사는 후에 맞지요... 빨리...》

두사람은 마당가 정자나무에 매놓은 말쪽으로 황급히 달려갔다. 피말 두필이 눅눅한 여름밤의 고요를 깨뜨리며 세차게 두레질을 했다. 불의에 들이닥친 정황앞에서 얼며름해있던 혜경이는 한 잠만에야 군관이 말긴 시계에 생각이 미쳤다. 그랬으나 그가 문을 차며 밖으로 뛰어나갔을 때 시계의 입자는 벌써 박자로 말의 배허벅을 힘껏 차고있었다. 약간 성이 난듯한 근엄한 군관의 얼굴이 피딱 처너쪽을 돌아보며 무어라고 웅크었으나 강철편자로 굳은 땅을 내리치는 말발굽소리는 혜경이의 목소리까지 함께 삼켜버렸다.

두 기사는 순식간에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점점 가늘어지다가 마침내 어둠속에 찾아들고마는 말발굽소리로 미루어보아 그들이 먼 내리천의 굽인돌이를 지났으리라고 짐작될뿐이었다.

군의소마당가에 초연히 서서 어둠속으로 사라진 동향인을 바래우던 혜경이는 꿈에서 깨어난것처럼 흠칠 떨며 돌아섰다. 모든 일이 벼락같이 시작되고 끝난바람에 정신이 뻥할뿐이었다. 이야기에 심취된 나머지 이름조차 물어보지 못한것이 못내 후회되었다. 우연적인 상봉과 돌발적인 리별이 일상사로 되어있는 전선에서 그를 다시 만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던것이다.

주인을 잃은 시계때문에 절망감에 잠겨있던 혜경이의 두눈에 불꽃이 탁 튀었다. 누렇게 변색이된 문자판에 시계의 입자-박흥규라는 세글자가 보였던것이다. 《박흥규》 하고 입속으로 외워보던 그는 덤벼치며 밀어놓았던 신문을 집어들었다.

《어마나-》

혜경의 입에서 가벼운 탄성이 흘러나왔다. 틀림없는 그 사람이였다. 그러고보면 초면이었던 그가 낯익어보였던것은 머리를 휘둘러넘기는 옛 문학청년의 인상깊은 모습때문만이 아니라 신문에서 익혀둔 의로운 초상때문이었다.

이날 매봉에서는 날섣년까지 총성이 콩북듯했다.

우중충한 산발우에서 마지막 별이 자취를 감추 무렵 혜경이는 담가대를 이끌고 선잠 고지로 달려갔다. 뜻밖에도 간밤에 군관을 찾아 군의소에 왔던 나이지숙한 하사관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박흥규중대장이 치명상을 입었다는것이다.

전투는 치열하였다. 중대는 적들의 한개 지령점을 점령하고 새로운 전투에 진입해야 할 때 공교롭게도 중대장이 부상을 당하였다.

량혜경이는 그길로 중대장이 누워있는 엄폐호로 달려갔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중대지휘부에 와있던 1소대장과 나어린 위생병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혜경이를 맞이했다.

《벌써 여러번 정신을 잃었습니다만 한사코 후송되기를 거절합니다. 군의동지가 설복해주십시오.》

《들어가보지요.》

혜경이는 위생병의 뒤를 따라 어둡침침한 엄폐호로 들어갔다. 적들이 버리고 간 통나무엄폐호벽에서 포탄깍지로 만든 등잔불이 가물거리고있었다. 눈을 감고 누워있던 중대장이 푸르스름한 눈시울로 힘없이 혜경이를 쳐다보았다. 이마살을 찌프리고 쳐다보던 눈에 차츰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시무룩이 웃기까지 했다.

《또 이렇게... 만났군... 고향... 친구.》

《네. 그런데 어찌다...》

혜경이는 목이 메여 다음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모포우에 힘없이 드러내놓은 손을 잡아 맥을 보는 혜경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심장의 박동이 너무나 희미했던것이다. 구급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수 있었다.

《중대장동지, 후송해야 되겠습니다. ...위생병동무, 담가를 준비하세요.》

중대장은 눈을 감았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루룩-하고 질풍같은 사격소리가 고지우에서 들려왔다. 중대장이 눈을 번쩍 떴다. 그는 놀란 사람처럼 가슴을 더듬었다. 혜경이는 그가 시계를 찾는거라고 생각하고 품속에서 회중시계를 꺼내여주었다.

《이제 30분후에 우리 중대는 고지의 익측을 향해 돌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박흥규가 군의의 요구에 준 대답이였다.

《그렇지만 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혜경이도 경각에 이른 부상병을 놓고 양보할수 없었다. 소대장도 간절히 부탁했다.

《아니요.》 하고 중대장은 고집을 부렸다.

《지휘관의 얼굴은 대원들의 거울이요. 중대원들은 내 얼굴을 쳐다보고있소. 내가 중상을 당해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은... 그들은 이 어려운 싸움을 무척 힘들게 치를것이요. 소대장 없는 소대는 또 어떻게 되겠소?》

중대장은 엄하게 소대장에게 자기 위치로 돌아갈것을 명령하였다.

《군의동무 바라건대 내가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 30분간만 견디게 해주오. 그야 이 시계를...》

그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더듬어쥐더니 혜경이에게 주었다.

《만약 내가 정신을 잃더라도... 정확히 30분후

에 돌격신호총을 쏘주오... 붉은 신호탄 세발...》
중대장은 돌격의 시간을 5분 앞두고 정신을 잃고말았다. 그러나 포연서린 조국의 하늘우로는 제시간에 정확히 세발의 붉은 신호탄이 올랐다.

돌격의 함성이 고지에 메아리치고 복수의 서리비긴 총창이 번쩍거렸다...

나는 처녀의 다음 말을 들을수가 없었다. 때마침 열차가 긴 기적을 울리며 평원선에서도 유명한 직동령 10리차굴에 들어섰던것이다. 귀청을 때리는 요란한 공명과 함께 숨막히는 석탄연기가 문새짚으로 집요하게 숨새들어왔다. 나는 얼굴을 두무릎 새짚에 틀어박고 코와 눈을 수건으로 가리웠는데 이 괴로운 방독작업은 다음 역에서 열차가 멎었다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열차안에 짝 찼던 연기도 전부 빠지고 줄곧 한덩어리가 되어 소곤거리던 두 녀인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중한 그 무엇을 잃어버린것처럼 마음속이 허전해서 맥빠진 눈으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차창밖으로는 기관차연통이 토해놓은 무수한 불씨들이 여름밤의 반디불처럼 어둠속에서 날아다니고 저기 별흐르는 하늘을 배경으로 말없이 서있는 준령들이 춤추듯 우줄우줄 밀려가고 밀려온다. 기관차는 그냥 목갈린 기적소리로 산천을 울리며 협곡의 가파로운 령길을 숨가빠 달린다.

그때로부터 무척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나는 오늘 아침 안해가 들려주는 신문을 펼쳐보다가 깜짝 놀랐다. 열차칸에서 한 처녀가 들려준 무훈담의 주인공이며 남달리 꿈이 많던 광홍규라는 영예군인이 사진과 함께 크게 소개되었던 것이다.

나는 단숨에 기사를 내리읽었다. 심장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하여 쿵쿵 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운 공로와 건강을 고려하여 나라에서는 그가 여생을 편안히 보낼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불편한 몸으로 가파로운 령길을 넘나들면서 고향의 산천을 살피웠고 수없이 많은 약초밭을 가꾸었다. 30년 가까운 세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번지지 않고 포기포기 정성을 담아 약초를 가꾸어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올렸다.

스물여덟해. 20대 청년이었던 나에게는 어느덧 대학생아들이 생겨났고 재작년에는 막내가 소년단백타이를 풀었다. 그러나 그 긴긴 세월 들추는 대용객차안에서 한 처녀가 들려준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는것은 나로서도 자못 놀라운 일이다.

《가장 의롭고 용감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생활을 사랑하고있으며 남달리 꿈이 많다.》

그때 처녀는 이렇게 찍어 말은 하지 않았어도 속대사만은 그러했으리라. 그렇다면 그 청년군관의 생활과 꿈은 과연 무엇에 기초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반만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해발속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의 행성이 되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 그의 생활과 꿈속에서 용용히 맥박치고있기때문이 아닐가!

나는 영웅의 그후 생활을 취재하기 위하여 서둘러 령장을 꾸렸다. 매캐한 석탄연기가 문새짚으로 집요하게 숨새들어오던 대용객차에서 만났던 그 처녀는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이에 대해서도 가슴후련한 소식을 함께 들을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떠나는 급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가사

만경봉 무지개

리정웅

인민의 태양 솟은 고향집 우러러
충성의 한마음 무지개로 비졌는가
어린시절 수령님 반겨주신 무지개
만경봉 하늘가에 빛을 뿌리네

수령님 혁명력사 해발로 피어나
무지개 필필이 칠색무늬 펼치는가
어린시절 수령님 큰뜻어린 무지개

주체의 내 조국 한품에 안았네

해와 별 찬란한 그 빛발 넘치여
만경봉 무지개 온 누리에 빛나라
끝없는 새 희망 안겨주는 무지개
만민의 가슴속에 뿌리내리네

아 무지개 만경봉 무지개
공산주의언덕에 영원히 비껴라

소조원의 눈길

김종원

바라보면

3대혁명소조원

그대의 눈길

그지없이 밝고 씩씩이 빛나더라

창의고안 도면우에

밤마다 그 눈길 모으면

끝내는 새 기계 막장에 세우고

탄벽을 밀어가는 채탄장에 그 눈길 보내면

누구도 못보던것 다 보더라

큰일은 제가 다 하고도

축하방송무대엔 나를 떠밀고

자기는 늘 뒤자리에 서던

그 눈길이더라

때아닌 석수가 탄벽을 뚫으면

그리도 앞자리에 빛나던

나도 미처 몰랐던 흠

가슴속 갈피갈피를 헤쳐

그리도 선명히 보여줄 땐

그 눈길 왜 그리도 고맙던지

북극성 기울도록 새 기술 새겨줄 땐

그 눈길 왜 그다지 부드럽던지

열밤을 지새도

열정이 타오르는 눈길이더라

한곳에 미쳐도

천길 막장을 다 보는 눈길이더라

그래서 내곁에 있다

잠시라도 떨어지면 찾게 되고

만나면 정이 들어

영원히 한식술처럼 지내고싶고

아, 그때문이 아닌가

아무리 눈을 밝혀도 풀지 못한 매듭도

그대를 찾아 안고가면

열정에 넘친 눈망울속에

우리가 가닿을 끝모를 굴길도

환히 열리고

그대의 나이 나와 꼭같아도

나에겐 안겨오더라

때론 다심한 어머니의 마음

언젠가는 그리도 엄한 맏형의 눈빛

어떤 땐 추억의 갈피속에 친근한

내 눈을 튀워준 스승의 눈길

아, 우등불가에서 가슴들이 높뛰던 그 밤

새로운 속도의 숨결을 줄 땐

그 얼마나 번뜩이던 눈길이던가

석탄산 하늘높이 쌓았다고

당중앙의 감사를 받던 아침엔

왜 그리 이슬도 맑던 눈길이던가

그래서 못내 부러워 보면

어쩐지 나와 같지 않더라 그 눈길

우리 탄전에 함께 일한 날 오랫동안

불 때마다 새롭게만 느껴지더라 그 눈길

오오 우리 수령님 보내주신

3대혁명소조원

혁명의 전위

당의 빛발을 안고사는 밝은 눈길

우리 간직하리라 그 눈길

우리 따르리라 그 눈길

분수

-평양체 육관 분수앞에서-

김형준

해돋이의 총석정 여기가 아니더냐
울긋불긋 불밝은 거리는
팔담에 내린 금강의 선녀더냐
분수가에 거니는 처녀들 모습

무슨 사연 그리도 하 많아
수도의 밤하늘 정답게 씻으며
별들과 다정히 속삭이더니
불밝은 창문과 웃음짓더니

수도의 해돋이 네가 먼저 반겨
금실은실 줄줄이 늘어서
천가락 만가락 해빛을 엮어
하늘땅에 수놓은 천리마거리 분수여

불수록 좋아 한걸음 다가서니
이 가슴에 넘치는 감사의 마음
부채살 무지개 분수에 실어
저 멀리 하늘가에 걸어놓았나

이 가슴에 넘치는 기쁨의 노래
줄줄이 솟구치는 물줄기에 실으니
마음의 금선을 일시에 통겨주며
하늘땅에 채워가네 수령님 은혜

너로구나 분수여
천리마기수 강선의 총각
쇠물인양 못깊이 최장대 잠그니
불꽃인양 솟구치는 락원의 분수

무지개 타고왔나 금강마을처녀들
결눈길 살짝 쳐다보는 그 마음
그 마음 알아선가 사랑의 샘
수집은듯 물머리 해빛에 웃네

솟구쳐오르네 행복의 분수
방직공처녀의 비단꿈이 되라고
농장벌처녀의 이삭의 노래 되라고
수령님 안겨주신 사랑을 노래하며...

솟구쳐오르네 마음의 문수
과학자의 사색에 열정을 실어
로인들 백발에 청춘을 불려
천만년 끝없을 불로의 샘이 되어

아, 봄꽃피는 공산주의언덕에
무지개, 행복의 다리를 걸어놓고
사회주의 이 강산을 높이 들어 올렸구나
물보라 꽃보라 끝없이 솟구치는 행복의 분화구
여!

나의 심장

류춘선

내 기쁨속에 맞고보내는 생이어서
나날이 다가오는 나날들이
맑은 샘처럼
용솟음을 안겨주는것이나

내 마음 열정에 불타고
쇠물처럼 타들어
잠결에도 선뜻 손대어보는것이나
심장
나의 심장에

그러면
들려온다

뜨겁게 맥박쳐오는
고동소리
고동소리

들려온다
가장 가까운 내 마음속에 간직된
백두의 설령 아득히 멀리에서
붉은기의 세찬 팔력임소리
투사들의 뜨거운 숨결소리...

태양을 받들어
충성을 다지던 혁명투사들이
심장에 새겨안던

신념의 노래
가장 가까웁게 들려온다

그 심장들이
식을줄 모르는 뜨거움을
나의 삶의 숨결로 부어주고
나의 미래를 위해
눈보라를 헤쳐더라
불비를 막았더라

아, 때문에
낳아키워준 고마운 품을
어머니라 목메여 부르기전
승엄히 우러러 안기여라
따사로운 당의 품에

그 품속에서
내 삶의 아름다운 노래처럼
나의 피가 끓고 또 끓어
진함을 모르는것은

한생을 순간에도
한생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 신념을 지녔기에
나는 행복하여라
당을 위한 이 한몸

가장 순결하고
티없이 맑은 진정을 안고
당이며.그대 위해
영생의 삶 꽃피워감은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라

그때문에
그대 위해 바치는
그 숭고한 사명으로
불타노라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이 심장은

내 사랑하는 도시여

최인희

사랑한다 어항의 도시여
마치련인파도 같이
너는 나를 사로잡았다
무엇때문이였더나
내 너를 사랑하는것은
평생을 함께 보내리
숫저이 고백한것은

미역이 널린 모래불에
태를 묻은탓일가
알몸에 소금이 돌도록
딩굴던 시절의 은모래탓일가

물이 불붙는 먼 수평선에서
희망의 흰돛을 띄워보내며
해당화 잎잎을 마음없이 뿌릴제
내 발목을 더위잡고
소리쳐 입맞춘 파도의 도시여

구석구석에 고기비늘이 번쩍이고
청높은 아낙네들의 웨침이
들이닿는 배전에 부딪쳐좋으며
파도 높은 포구에 소란스러워도
그것없이야 네 무슨 내 사랑이더나

너는 항상 비릿하였다
바람결이 껌진하도록
걸어가는 그 맛이 나는 좋아
정불인 내 사랑

그 언제던가 이른새벽
포구에 오신 어버이수령님
멀리 정거장에까지 풍겨오는
그 내음새에 고기풍년인줄 알았다고
기쁘시여 환하시던 그 미소

자주 오시는 그이께
언제나 그 기쁨 드리고싶어
불타는 마음 잠못들며
잠못들면 그만에야 고백한것
내 청춘 내 삶을 바쳐
여기서 살리라 너와 함께
어장이 넘치여 기슭이 빠져지도록
고기때를 후려올리며...

사랑한다 어항의 도시여
마치련인파도 같이
너는 나를 사로잡았다
그 어떤 유혹이 마음을 불러도
나는 못떠날 너의 갈매기

5월의 광주여, 온 남녘이여!

럼우봉

잔디도 설피게 푸른
무등산기슭
가냘피 들꽃을 피워
5월은 왔느냐

길가던 나그네여
그 꽃을 꺾지 말라
채 피지 못한 꽃나들이
그밑에 누워있다

봄날의 교정을 나와
가을학기에 돌아못간 학우들
기다리는 어머니 품에도
다시 안기지 못한 아들딸들이
거기에 묻히었다

금남로 피고인 돌바닥을
열손가락으로 뜯고 허비다
대검에, 화염방사기에
열백번 고쳐 죽고

죽어 흩어져
산골짜기에 버려졌다고
《시민증》도 다시 찍어
빈련번호가 메워졌다고
어이 모르랴

이름없던 무등산은
머리를 높이 들어
파쑸의 죄상을 고발하고
광주는 그 이름같이
피의 성시로 더욱 빛나거니

아, 끝내는
피와 민주를 바꿔야 하는 땅
피흘려 넘어선 강폭우에만
자유의 다리는 놓여지는가

인간의 도살장에서
인권의 불모지에서
《유신》을 불사르려
민주를 되찾으려
인민이 어깨 결고 나아갈 때

총에 맞고도 엄마를 찾는
일곱살 소년으로부터
손주같은 애들을 살려내라는.
칠순로인의 가슴에까지
총알을 마구 쏘아박은놈

치떨리는 그 폭거로
스스로 인간이기를 그만둔
아니. 애당초 인간이 아님을 보여준
살임두목 전두환역도
다름아닌 그 《공격》으로
미국제 《룡상》을 타고왔아
오늘도 인간의 언어 아닌
《랭동호텔》을 지껄이고
《넥타이공장》을 늘어거니

아 어제 또 오늘도
울어도 보고
속아도 보며
선채로 살아온 우리-

정녕 이제는
항쟁의 거리에서 움켜쥐었던
그 돌이 남았노라
살인귀를 복수해달라던
전우의 마지막 부탁이 남았노라

-전두환 찢어죽이라!
누를수 없는 피웨침을 안고
사릴수 없는 불길을 안고
다시 온 5월의
광주여, 온 남녘이여!

소리쳐가자
불붙여가자
우리의 노래
우리의 투쟁을

하여
인간쓰레기들의 무덤우에
우리의 새세상을 세우자
저 가냘픈 들꽃 대신
용사들의 비석도 번듯이 세워주자

사령원의 침묵

김영길

평양역에는 방금 떠날듯하면서도 좀체로 움직일 줄 모르는 열차가 서있었다.

기적소리는 벌써 두번이나 길게 울렸고 기관차는 말못할 안타까움을 호소하듯 흰 증기를 목이 메게 뿜어올리며 푸푸 거렸다.

열차가 가닿을곳은 베이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열차가 아니었다.

플레트홈에는 귀국하는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을 배려우러 나온 평양시민들과 멀리 농촌들에서 철도연선까지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껏 올려붙인 차장으로는 꽃뭉치들이 꼬리를 물고 날아들어가고 다시 날아나오군했다. 오색테프와 꽃보라의 란무로 하여 사람들의 머리위에 맑게 개인 하늘에는 마냥 칠색무지개가 걸려있는 듯했다.

어떤 객차의 창문밑에는 허리가 또아리같이 굽은 로인이 파뿌리처럼 드리운 흰 수염에 이슬방울을 번쩍이며 얼음물에 담갔던 수건을 짜서 지원군전사들의 얼굴에서 흐르는 땀을 씻어주고있었다.

흐른 시간이 흐를수록 격랑을 일으킨 바다처럼 더욱더 세차게 설레었다.

《아가, 이걸 받아주렴 응. 전쟁을 겪고보니 남은 거란 이뿐일세...》

한 할머니는 지원군처녀에게 비너를 쥐여주면서 말했다.

《어머니-오래-오래-》

세번째 기적소리가 잠시 이 뜨거운 숨결을 삼켜버렸다.

본사로부터 긴급과제를 받은 《로동신문》사의 권위있는 한 기자가 이 열차를 타고 국경도시 신의주까지 가기 위해 때맞추 역으로 나왔다.

그런데 기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의 담뱃을 뿜고 열차에까지 오를것인지 좀체로 궁리가 나지 않았다.

기자는 누구에게 응원을 청할지 몰라 잠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이때 역사의 한쪽 휴게실에서 이 열차로 떠나는 사령원이 수행원들과 함께 나오고있었다.

기자는 그쪽으로 바빠 걸음을 옮겼다.

기자의 기본 취재대상은 바로 이 사령원이었다.

전선과 승리한 고지에서 두세차례 만난적이있는

사령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기자는 그와 함께 열차에 올랐다.

원래 성미가 소탈하고 군사적인 활달성을 가진 사령원은 포탄이 우박치듯하는 고지우에서도 끄떡없이 앉아 기자와 면담을 한적도 있었다.

한번은 갱도입구가 들쭉하여 나가보았더니 런락병인듯한 조선인민군전사와 무릎싸움을 하느라고 흠뻑지를 구름같이 피워올리고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사색보다 동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개선장군이 되어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에게서 오늘 감동적이면서도 귀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얻어들이리라하는것은 의심할바 없었다.

기자에게는 국경역까지의 긴 로정이면 본사에서 받은 동승기외에 몇건의 단상들까지 쓸 자심심이 생겼다.

뿡-덜커덩, 텅 열차는 예정보다 퍼그나 지체되어 겨우 역을 떠났다.

《안녕히! ...》 눈물젖은 웨침을 멀리 뒤에 남긴 채...

사령원이 탄 려객차간은 별로 복잡하지 않았다. 수행원 몇사람과 기자, 그리고 이따금 연락을 가지고 들락거리는 사람들뿐이었다.

활짝 열린 창밖으로 상반신을 내밀며 손저어 웨쳐대던 사람들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고 창문들도 조용히 닫혔다.

분위기는 더없이 좋았다.

사람들은 눈가에 맺힌 이슬도 닦을념 하지 않고 오손도손 웃음꽃을 피웠다.

어깨걸고 싸운 전우들과의 애뜻한 추억에 대하여, 목숨바쳐 싸웠던 아름다운 조선의 산천에 대하여, 멀지 않아 만나 반기게 될 그림던 조국의 친지들에 대하여...

기자는 두어 좌석 건너 맞은편 의자에 앉아 취재수첩과 사진기를 탁상우에 놓았다.

기자는 사령원과 나누게 될 취재내용을 되새기며 그의 일거일동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쿵, 쿵 다리를 넘어서는 차바퀴의 진동소리와 함께 말고온 중책을 헤아려보는 기자의 마음은 저으기 조급해났다.

그런데 켜 시간이 흘렀으나 흥분에 젖어든 사람들과는 달리 유독 사령원만은 창밖에 눈길을 돌린채 침묵을 지켰다.

이미 기자의 동승취지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령원은 좀체로 기자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는 것이었다.

기자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사령원이 다소 마음을 안정하기를 기다렸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걸까... 그렇지, 수년이란 세월을 불비속에서 헤쳐온 사령원이니만큼 리벌의 이 순간이 어찌 감회깊지 않으랴...

몇시간후이면 가당을 그의 고향에는 손꼽아 기다리는 동지들과 현숙한 안해, 귀여운 딸애들이 있으리라.

그에게는 이 한초한초가 얼마나 더디게 흐른다고 느껴질것인가...)

뿔, 산굽이를 돌아서는 렬차의 고동은 기자를 재촉하듯 우람차게 울려왔다. 기자는 다시 사령원을 초조한 눈빛으로 건너다보았다.

그러나 사령원은 조급한 그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말 한마디 않고 차창에 거의 이마를 맞대고 어딘가를 초점없이 내다보고있었다.

눈길은 하늘에 가있고 커다란 두손으로 무엇인지 감잡잡은것을 버릇처럼 쓸어만지는 것이었다. 너무도 엄숙한 표정이었다.

기자는 사령원의 눈길을 좇아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렬차는 벌써 열두삼천리벌을 끼고 달렸다. 눈썰미 아득히 펼쳐진 벌에는 푸르른 웅단을 잔듯 푸르싱싱히 자란 벼포기들이 울퉁불퉁한 포탄자욱을 메우며 바람결 따라 파도를 일으키고있었다.

때로는 거머께 그슬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 바꾸어맞춘듯한 흰 전주들이 눈앞으로 휩휩 스쳐지나가기도 했다.

논두렁우에서 발가숭이 조무래기들이 달리는 렬차를 향해 무어라고 소리치면서 물이 줄줄 흐르는 반두와 종다래기를 머리우에 쳐들고 휘둘러대며 뽕뽕 뛰어댔다.

하늘에는 갓 피어난 새털같은 구름 몇송이가 똥똥 떠있을뿐 사령원의 시선을 그토록 끝만한것은 별로 없었다.

기자는 직업적인 눈으로 사령원을 다시금 관찰하기 시작했다.

사령원은 확실히 깊은 사색에 빠져있었다. 부관은 작전지도앞에서조차 사령원이 지금처럼 생각에 골몰한적이 드물었다고 했다.

때로는 사령원의 커다랗고 시원스런 눈동자에는 감상적인 빛까지 비끼는듯했다.

조급해하는 기자를 도우려고 수행원이 두번씩이나 다가섰다가 종내 말을 붙이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이었다.

기자는 임무수행을 위해 주동적으로 활동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하여 기자는 사령원의 부관을 조용히 불렀다.

부관이 발끝걸음으로 다가왔다.

기자는 부관의 귀에 바투 대고 수군수군 물었다.

《혹시 차에 오르기전에 기분나쁜 일이라도 있는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같은 날에 침묵만을 지키실까요.》

《글쎄말입니다. 전쟁 3년을 함께 살아온 저도 모를 일입니다.》

부관은 제사 답답하다는듯 기자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손님이며 이름있는 기자인 당신이 어서 말을 붙여보라는 눈치였다.

기자는 아직까지 사령원이 두손안에 틀어쥐고 있는 물건에 신경이 썩었다.

한순간 사령원이 그것을 쓰다듬느라고 천천히 손을 쳐들었을 때 기자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그것은 빨간 사기차잔이었다.

기자는 다시 부관을 손짓으로 찾았다. 그리고 사령원쪽으로 눈짓하면서 이렇게 슬쩍 비쳐보았다.

《사령원이 차를 마시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부관은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도리머리를 했다.

《저런 기분상태에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갖다드리지 못합니다.》

부관은 손을 오그려붙이고 쑥쑥 말했다.

기자는 자못 의아한 시선으로 부관을 바라보며 재우쳐 물었다.

《그럼 사령원이 만지고있는 저 차잔은 무엇입니까?》

《차잔이라니요?》

하면서 몸을 벌떡 일으킨 부관은 한동안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제사 부관의 얼굴에 다소 안도의 빛이 떠돌며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아-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건 그 빨간 사기차잔입니다.》

그것은 중국식 적자색 사기차잔이었다.

부관은 그 사기차잔의 력사에 대하여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령원은 한때 평남도의 깊은 산골. 어느 한 농가에 얼마간 들어있었다.

그 농가에는 할머니와 분옥이라는 다섯살난 손녀애가 살고있었다.

산골에서 자라며 할머니의 손끝에서만 땀돌아서 부끄러움을 타고 사람을 피하던 귀여운 애는 웬일인지 첫날부터 어항속의 물고기처럼 사령원의 방으로 꾸린 옷방에서 잠시도 떠날줄 모르고 땀돌았다.

사령원 역시 즐겨 계집애의 소꿉놀이 《동무》

가 되어주곤했다.

사령원은 밤늦게 농가로 돌아와서도 잠을 갈래여 바람이 들어오는 문쪽으로 굴러나간 계집애를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곤했다. 그럴 때마다 계집애는 병아리처럼 사령원의 품으로 기여들었다.

사령원과 다섯살짜리 계집애 사이에는 《언제 돌아오마》하는 군사비밀도, 《우리 읍안에 감자가 많아...》하는 가정내막사도 곧잘 소통했다.

사건은 바로 어느 한낮에 일어났다.

사령원은 그때 신문을 읽고있었다.

아까부터 앓은땀이 책상머리에 붙어있어 딸그닥거리며 혼자소리로 무엇이라 종알거리고있던 분옥이가 찰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만 가벼운 비명을 질렀다.

그제사 사령원은 머리를 들고 계집애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사령원의 차잔이 두동강난채 노전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때를 같이하여 부엌쪽에서 할머니의 달래는듯 하면서도 자못 위엄기가 풍기는 목소리가 들어왔다.

《애야, 너 게서 뭘하느냐. 응-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하자 분옥의 눈이 대번에 울렁하니 커졌다. 계집애는 할머니가 방금 부지깽이를 들고 달려들기라도 한듯 사령원의 품에 와락 안겨들어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가 때려요...》

사령원은 계집애를 안고 한동안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사령원은 잠시후 깨어진 차잔을 들고 이리저리 맞춰보다가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사령원은 두동강난 차잔을 종이에 꼼꼼히 싸서 재빨리 가방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아래방에 있는 부관을 불러 무엇이라고 귀속말로 수군거렸다.

얼마후 부관은 깨어진 차잔과 똑같은 차잔을 가져다가 할머니가 농군하는 접시우에 받쳐놓았다.

꼭같은 차잔을 보게 된 계집애는 그제사 해죽해죽 웃으면서 다시금 차잔을 딸그락거리며 소꿉놀이를 계속했었다...

부관의 이야기는 끝났다.

기자는 여전히 펜을 놀리고있었다. 기자는 그 사실자체보다 의미심장한 분석을 더 가해서 동승기의 요점들을 적어나가있었다.

다섯살짜리 계집애와 깨어진 차잔- 그것은 별로 기이하거나 큰 사건도 아니다. 그러나 그 자그마한 일화속에는 한 가정의 사말사와 같은 진정한 생활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것이 있다.

기자는 이윽하여 수첩에서 머리를 들고 사령원

을 바라보았다.

사령원은 여전히 심각한 생각에 잠긴채 차창밖 그 어디인가 한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있었다. 아직도 차잔을 가까이 놓고 이따금 만지기는 하나 보때 방금 부관이 이야기한것과 같은 일화를 회상하고있는 표정은 아니었다.

사령원의 눈에는 그 어떤 승엄하고 무척 중대한 문제를 안고 모대기는 빛이 질게 어려있었다.

하다면 사령원은 평양으로부터 이곳 신의주까지의 긴 로정을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과연 무엇에 대하여 줄곧 생각하고있을것인지?...

기자는 그것을 꼭 알아야 했다. 무심중 차창밖을 내다보던 기자는 그만 가슴이 철렁했다. 렬차는 벌써 룡천벌을 누벼가고있었던것이다. 기자는 그이상 더 머물거릴수가 없었다. 그는 취재수첩을 접어 옷주머니에 넣고 사령원을 향해 걸어갔다.

사령원은 그제야 기자가 다가오는것을 느낀 모양이었다.

그러나 차창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전에없이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기자선생.》

그리고는 다시 덤덤한 자세로 앉아있었다.

기자는 낫다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사령원동지! 그런데 웬일이십니까. 종일 차창밖만 내다보시니...》

사령원은 인차 입을 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자는 끈덕지게 그 침묵을 받아들였다.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마침 렬차가 교량을 지나느라고 요란스럽게 덜커덩거렸다. 기차는 숨을 툴아쉬웠다.

한참후 다시 울리기 시작한 딸가닥딸가닥 딱하는 단조로운 동음은 기자의 조급한 마음을 더 부추겨주었다.

비로소 사령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기자는 그 목소리에 놀랐다.

몇시간전에 들은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렇게도 쟁쟁하고 확신에 넘치고 활달하던 한마디로 젊은 장군다운 목소리는 어데 가고 늙은이다운 거친목소리였다.

사령원은 혼자소리로 띠엎띠엎 말했다.

《나는... 차마 뒤로 급히 물러나는 저 별관을 바라볼수 없습니다... 그걸 의식하면 렬차가 너무도 빨리 달리는것 같고 이 땅과 너무도 빨리 하직하는것 같아 괴롭습니다. 그래도 구름 한점없는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느라면 다소나마...》

사령원은 마치 험한 령길을 뚫아오르는 사람처럼 무척 힘겹게 말을 하다가 여기서 일시 입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에 흥건히 내배

인 땀을 흘리면서 심호흡을 하였다. 사령원은 이윽하여 다시 말을 이었다.

《기자선생, 당신은 내가 무슨 생각을 그토록 하는가고 묻겠지요. 좋습니다. 알려드리지요. 난 얼마전 조선인민들에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번한 그 죄책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검토하였습니

다. 기자선생도 아시겠지만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의 한사람인 모안영동지가 미국놈들의 폭격에 전사하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짧은 생각에 전우를 그의 고향에 모셔다 안치할데 대한 저의 개별적의견을 우리 당중앙에 제기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모택동주석으로부터 그렇게 큰 비판을 받으리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모주석은 이렇게 준렬히 꾸짖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고향산천에서 천만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 중국의 산야에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발자국이 력력히 찍혀있지 않는가… 사람들은 또한 죽어도 자기의 태를 묻은 고향의 산언덕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 중국의 넓은 들에는 그이의 전사들의 피가 스며있지 않는가? 조선과 중국의 산야에 묻힌 조선동지들과 중국사람들이 만약 그 땅을 자기

의 고향처럼 생각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땅을 위해 목숨을 바칠수 없었을것이다. 지원군 전체 전사들이 그 땅을 진정으로 자기의 조국, 자기의 고향처럼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목숨바쳐 싸울수 없다…》

사령원은 다시금 말을 중단하고 묵묵히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얼마후 그는 혼자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땅에 수많은 전우들을 묻고 갑니다. 모안영동지도 라성교렬사도… 그들은 이 땅에서 고이 잠들고있습니다. 고향 뒤동산에서처럼…》

사령원은 처음으로 기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말을 계속했다.

《기자선생은 아마 승리하고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사령원의 마지막 말을 듣고싶으시겠지요… 대답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보다 정든 고향을… 사랑하는 조국을 두고가는 석별의 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령원은 기사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습관적으로 다시금 차창가에 눈길을 던졌다.

기자는 소리없이 펜을 달렸다.

떠나는 마음!… 떠나는 마음!… 고향을 떠나간 사람들은 언제이고 고향을 그릴것이다.

한전류속에

한기운

붉고 푸른 신호등은
간밤도 정상이라고
배전반공 나를 보고 마주 웃는
그대들의 아침인사인가

아, 우리의 미래를 꽃피우며
그대들의 미래를 축복하며
전류가 가는곳 달라도
내 가슴은 언제나 한마음

관전, 단동…
가본 일 없고
만나 이야기 나눈적 없어도
바라보면 정다운 우리고장
강건너 이웃마을 같아,

서로 위하는 마음
언제나 한전류속에 울려오는
강선의 출강종소리,

안산의 출강종소리…

흐르는 전류의 그 한빛속에
우리의 3대혁명 진군길
그대들의 현대화건설
하나의 미래를 불러오거니

사는 땅 달라도 어깨 나란히,
하는 말 달라도 뜻은 같아
하늘도, 땅도…
은빛 송전선에 하나로 이어져
공산주의노을가로 함께 달리는 마음

아, 언제나 한가슴에 안고산다
수풍의 한전류속에
내 목숨처럼 소중한
우리 조선을!
그대들의 중국을!

형 제

김휘조

오늘은 어디 있나
못잊을 그 사람들

압록강가 우리 집
마당가에 사과나무 복을 돈구어주고
박우물에 하얀 조약돌을 깔아놓고...
서둘러 전선으로 떠나던 지원군들
하루를 묵어가면서도 정을 남긴 그들

샘솟는 박우물 맑은 물우엔
오늘도 그대들 모습에 비껴오고
피어나는 사과나무 꽃구름속엔
그대들 얼굴이 웃고있어

오늘도 못잊는 사람들
지금은 어디서 나락을 가꾸나
내 조국의 쇠물도 함께 기뻐하며

그대들의 땅에 우리 남긴 위훈
해마다 오탁으로 무르익고

이 땅에 그대들 남긴 위훈
해마다 열매로 주렁지고

서로 도와 오늘도
피워가는 친선의 꽃과 함께
그대들 조국에 우리 조국에
더더욱 만발하는 행복의 꽃들

서로 있는곳이 멀어 마음도 멀랴
폭풍이 또다시 밀려온다면
그대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중국의 농가에서나 조선의 농가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아

그대들 있는곳에 언제나
우리가 있네
우리 있는곳에 언제나
그대들 있네
우리는 한가정, 혁명의 형제